

광주여성사 I

전근대편





역사 속 잊혀진 광주여성들에 대한 재조명

여성들은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주체임에도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이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가부장적 질서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논리를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여성과 관련한 사료들은 대부분 그 중요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의 여성 인물과 관련한 유적들도 훼손되거나 유적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지역여성사 작업은 거대담론에 묻힌 지역 여성들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역사의 공백을 보충하거나,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소수의 여성엘리트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역사 속에서 여성의 공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근대 시기 광주여성의 삶의 흐름과 궤적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역사의 공백을 메꾸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거 현실과 맞닥뜨린 광주여성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광주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위업을 성취해 내면서 근현대시기 도시로서 발전해왔고 전남을 포괄하는 지역의 대표도시로 성장했으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발돋움 했습니다.

광주의 역사 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광주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광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올해 광주여성사 전근대편을 시작으로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도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심의위원, 자문위원, 감수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속 광주여성의 활동과 역할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해준 집필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 미 경

| 차례 |

■ 제1장 | 서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 제2장 | 선사·고대의 광주 여성

I. 선사·고대의 광주	20
II. 선사시대 일상생활을 통해 본 광주 여성	27
1. 구석기시대 광주 여성의 일상생활	27
2. 신석기시대 광주 여성의 일상생활	33
3. 청동기시대 광주 여성의 일상생활	39
III. 고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과 경제·사회생활	45
1. 광주 여성의 혼인과 가정생활	45
2.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62
IV. 소결	79

■ 제3장 | 고려시대의 광주 여성

I. 고려시대의 광주	84
II. 고려시대 기록을 통해 본 광주 여성	88
1. 묘지명을 남긴 여성과 광산 김씨 가문의 여성들	91
2. 『고려사』 열녀전에 오른 여성	115
III.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	118
1. 솔서혼(率孀婚)과 가족 구성	118
2. 수평적 부처(夫妻)관계	124
3. 부모 봉양과 남편에 대한 내조	132
4. 자녀 교육과 가정 관리	135
IV.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138
1. 자녀 간 균분 상속	138
2. 국가의 작호 수여와 여성의 지위	140
V. 소결	143

■ 제4장 | 조선시대의 광주 여성

I. 조선시대의 광주	148
II. 조선시대 유교이념 확산을 통해 본 광주 여성	150
1. 유교적 여성관의 확산과 여훈서 보급	150
2. 유교의 '이상적 여성' 효녀·효부·열녀	159
3. 부인의 봉호	175
III. 조선시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	179
1. 가족 구성과 운영방식	179
2. 혼인한 여성의 친정, 시가와와의 관계	187
3. 일상생활 공간의 구별	205
IV. 조선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208
1. 여성의 재산권과 재산 운용 방식	208
2. 여성의 외출과 규제	214
3. 정치적 사건과 광주의 여성들	220
V. 소결	225

■ 제5장 | 결론

I.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30
II.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234
■ 참고문헌	238
■ 별첨자료	
전근대 광주여성 인물	248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광주여성사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올해 2019년 광주여성사 I(전근대편) 발간에 이어 2020년 광주여성사 II(근현대편)를 계획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를 거점으로 한 여성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지역여성사 연구는 어떤 지역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속에서 여성의 삶과 경험을 역사화 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지역의 의미를 검토하여 지역민으로서 여성의 주체성(subjectivity)과 행위성(agency)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여성사는 과거 속 지역 여성의 역사성, 사회성을 드러내어 여성의 존재의 깊이와 존엄을 보여주고 여성에 대한 인식과 삶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여성사의 발전은 현대사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1980년대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는 각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함께 전개된 여성운동 발전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의 여성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더 나아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본격화되면서 지역은 지역민의 삶의 중요한 단위이자 주체로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

에 대한 자부심은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행정단위에서의 지원과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여성사 연구는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6년 『강원도 여성사』 발간을 시작으로 2000년 『광주여성발전사』, 『전북여성발전50년』, 2002년 『경기여성발전사』, 2003년 『전남여성 100년』과 『경북여성사』, 2005년 『사진으로 보는 전남여성 100년』, 2006년 『신문으로 읽는 경북여성사』, 2007년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본 경북여성의 삶』, 2009년 『충청남도 여성의 삶과 역사』와 『제주여성사 I』, 『부산여성사 I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2010년 『부산여성사 II - 역사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2011년 『제주여성사 II』와 『부산여성사 III - 역사속의 부산여성(현대편)』, 2013년 『전남여성 2000-2012』, 2014년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2016년 『민주장정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2017년 『광주여성사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등이 출간되었다. 이밖에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2001년 『포항여성사』, 2003년 『강릉시여성사』 등이 출간되었다.

지역 여성사 연구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통사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며, 이후 신문기사, 사진 등 사료 발굴 작업과 구술사 등을 통한 인물 발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사료발굴과 인물사 연구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등의 콘텐츠 개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여성사 연구는 주로 지역의 개별 연구자들과 여성가족재단 전시관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비롯한 근현대 시기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여성인물도 근현대시기의 인물에 한정되어 조명

된 상황이다⁰¹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신들만의 지역사, 지역여성사 정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광주지역은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지역사 또는 여성사 측면에서 접근해 학문적 의미를 밝히고 그 성과를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통해서이다. 여기에 지역 여성의 역사와 문화가 포함될 때 진정한 그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할 수 있다. 지역여성사를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희귀성을 극복하고 역사 속 여성의 활동과 역할이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노력은 광주여성의 역량과 힘을 후세에 전승하고 광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01 2000년 『광주여성발전사』는 1940년대 이후 광주지역 여성들의 영역별 활동상을 서술하였으며, 『전남여성 100년』은 광주·전남지역 여성들의 활동사를 통사로 접근하여 성평등 실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서술하였다. 이후 발간된 광주지역 여성사 연구는 2013년 『민주장정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여성운동-』과 같이 대부분 일제강점기 동안의 항일운동,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활동사에 집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서 2017년 발간된 『광주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는 광주여성 사료 조사 및 여성인물 발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구축에 목적을 두고 근현대시기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야별 광주여성들의 활동상을 정리하였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광주여성사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고대부터 근현대까지로 하여, 1차년도 2019년 광주여성사 I 에서는 선사·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를 다루었고, 향후 광주여성사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광주여성사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986년 광주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되기 이전까지 광주와 전라남도의 역사는 밀착되어 있었기에 전라남도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요 공간적 범위를 광주⁰² 지역으로 하고 광주여성의 역사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제는 전근대 시기 광주여성의 혼인과 가족생활, 경제·사회생활 등으로 분류하여 집필자의 역사적 해석을 통해 서술하고자 하였

02 선사시대의 마한 문화권, 통일신라시대의 무진주(무주), 후백제 건국의 토대가 되었던 광주(태조 재위 기간 중 940년에 광주라는 지명이 역사상 처음 등장)는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호남지역 맹주의 자리를 나주에 내주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만 해도 전라도의 50여 고을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1896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전라도가 남, 북도로 나뉘면서 전라남도가 출현하여 광주는 그 관찰부(도청) 소재지지가 되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이후 광주면이 되었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초보적인 수준의 도시기반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1931년 광주읍, 1935년 광주부로 승격되었고, 해방 이후 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었고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호남권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고, 근현대 시기의 광주여성은 혼인과 가족생활, 경제·사회생활 이외에도 문화, 종교, 교육·계몽, 독립, 노동, 민주화운동 등으로 분류하여 서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인물의 범위로 전근대 시기 광주여성인물은 일차적으로 문헌자료에 기초하였고, 귀족여성 뿐만 아니라 기록이나 전승에 등장하는 기타 신분의 여성을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각 장을 선사·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어 광주지역 여성과 관련한 문화 유산 현황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광주지역 여성의 사회성, 주체성, 다양성을 드러내고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사료 부족의 한계 속에서 과거 여성사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사료 접근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서와 같은 전통적인 사료뿐만 아니라 편지, 일기, 자서전, 사진, 신문기사, 구술사 등의 비전통적인 사료를 포함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광주 여성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주지역 여성인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시대를 앞서 간 광주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의 역사를 복원하여 후세들에게 전승하며, 광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를 상징하는 인물과 집단을 문화자원화 함과 동시에 한국사 및 지역사 서술에 있어 광주지역 여성사를 접목하고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주여성 중 두드러진 개별인물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가능케 하는 집단으로서 보통 여성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작업으로까지 확장, 통사적 접근을 시작으로 편지, 일기, 자서전, 신문기사, 사진 등 사료 발굴 작업 및 인물 발굴 작업 시도하고자 한다.

지역의 역사 및 여성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위원단 운영을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여 광주지역 여성사를 서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여 광주광역시 및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 기관들의 인식 제고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
제2장

선사·고대의 광주 여성

I. 선사·고대의 광주

II. 선사시대 일상생활을 통해 본 광주 여성

III. 고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과 경제·사회생활

IV. 소결

I 선사·고대의 광주

광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의 주변은 영산강의 상류인 극락강, 황룡강, 광주천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광주의 기후는 온난하여 농경에 알맞으며 광주의 입지적 조건은 물길을 통해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어서 대외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광주의 지리·기후적으로 우월한 환경은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고 문화적인 꽃을 피울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先史, 古代라는 시간 속에서 광주 지역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어떤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만들어 먹었을까. 선사와 고대 광주 지역의 여성들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냈을까. 더 세부적으로 그들의 혼인 생활은 어떠했으며 가정 그리고 당대 사회에서의 지위는 어떠했을까. 나아가 선사, 고대 광주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을까. 이렇듯 선사와 고대 광주 지역의 여성과 그들의 일상은 다양한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최근까지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러 출판물들이 발표되었다.⁰¹ 그러나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일상을 다룬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관련 기록이라든지 남겨진 유물 자료 역시도 지나치리만큼 소략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요한 구성원이었고 행위 주체였다. 그럼에도 역사 서술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서 그리고 역사 서술의 시기에는 역사를 기술한 주체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남성 본위의 역사가 기술되었고 자연스럽게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로서 남겨지게 되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선사 그리고 고대 광주 지역 특히 여성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제라도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찾은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 그리고 기록 자료는 너무나 미미하였다. 그러나 비록 단편적인 유물, 기록 자료이지만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선사 그리고 고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일상에 다가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선사 그리고 고대 광주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광주 지역에 살았던 여성을 살피는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출

01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편, 1999, 『光州의 歷史와 文化』,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 무등역사연구회, 2001, 『광주·전남의 역사』, 태학사. ;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光州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 국립광주박물관 편, 2010, 『국립광주박물관』, 통천출판사. ;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 대동문화재단, 2014, 『광주역사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6,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 下』, 도서출판 심미안. ; 김덕진, 2018, 『전라도의 탄생 1』, 도서출판 선인.

맡은 지금까지 광주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구석기대부터 시작할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광주 지역의 구석기 유적은 약 6만 5천년 전이다. 즉 광주 여성사는 약 6만 5천년 전의 구석기시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고대는 연구자 별로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기 국가 단계를 갖춘 시기부터 통일기신라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⁰² 이를 참고하면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삶에서 언급한 선사 및 고대는 구석기시대부터 통일기신라까지가 그 시대적인 범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 공간을 지칭하는 명칭 ‘光州’는 고대에는 사용되지 않던 지명이었다. 지금의 광주는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였다. 마한의 어느 소국이 구체적으로 광주 지역에 응거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 비교적 광주 지역의 정치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시기는 백제 이후부터이다. 백제에서 광주는 무진주라고 불렸고 통일기신라에서는 무주라고 불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주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⁰³ 이렇듯 본 연구의 대상 공간인 광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 번의 지명상의 변천을 거쳐 지금의 광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일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광주의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02 한국사 시대구분은 연구자 별로 차이가 있다. 정구복은 한국의 고대를 ‘한자가 전래되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후 신라 말’까지로 구분하였다. 鄭求福, 1995, 『史學史에 있어서의 時代區分과 各時代의 特徵』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95쪽.

03 고대 무진주의 관할 지역은 이외에도 분차군, 추자해군, 월나군, 무시이군, 육내군, 이릉부리군, 파부리군, 발라군, 도무군, 물아해군, 인진도군, 아차산군, 나기군 등이다. 백제시대 무진주가 관할한 군을 포함하면 현재의 전라남도 지역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 광주 지역을 주요한 공간 범위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관할 군현의 여성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아래는 『삼국사기』에 소개된 광주에 대한 기록이다.

- A-1 : 무주는 본래 백제의 땅인데 신문왕 6년에 무진주로 삼았다가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무주라고 하였으며 지금의 광주이다. 거느리는 현은 셋이다. 현웅현은 본래 백제의 미동부리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남평군이다. 용산현은 본래 백제의 복룡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옛이름을 회복하였다. 기양현은 본래 백제의 굴지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창평현이다.⁰⁴
- A-2 : 무진주【노지(奴只)라고도 한다】 미동부리현, 복룡현, 굴지현이 있다.⁰⁵
- A-3 : 동성왕 20년, 8월에 왕이 탐라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친히 치고자 무진주에 이르니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그만 중지하였다【탐라는 곧 탐모라이다】.⁰⁶

위의 사료 A-1, 2는 광주의 명칭과 광주가 거느린 현에 대한 기록이다. 백제시대의 무진주는 미동부리현으로 불렸던 지금의 남평 지역, 그리고 복룡현으로 불렸던 지금의 광주시 광산구 평동 방면과 굴지현으로 불렸던 지금의 담양군 창평읍에 이르는 지역이 대략 무진주의 공간 범위이다. 지도상에 표시하면 현재 광주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다소 동방에 위치하면서 북에서 남서 방향으로 둥글게 뻗어오다가 다시 남평에서 서쪽 방향으로 꺾여 있는 구조이다. 현재의 광주 지역이

04 『삼국사기』 36 잡지5 지리3 신라, “武州 本百濟地 神文王六年爲武珍州 景德王改爲武州 今光州 領縣三 玄雄縣 本百濟未冬夫里縣 景德王改名 今南平郡 龍山縣 本百濟伏龍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祁陽縣 本百濟屈支縣 景德王改名 今昌平縣”.

05 『삼국사기』 37 잡지6 지리4 백제, “武珍州【一云奴只】未冬夫里縣 伏龍縣 屈支縣”.

06 『삼국사기』 26 백제본기4 동성왕 20년,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耽羅即耽牟羅】”.

동서 방향으로 더 긴 타원 형태의 구조인 점과는 차이가 있다. 기록을 바탕으로 고대 무진주의 지점을 따져보면 대략 전남 담양군 창평 방면 그리고 전남 나주시 남평 일대까지를 고대 무진주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백제시대 무진주의 영역은 현재의 광주의 영역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하여 광주와 그 일대 전남 지역의 여러 곳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일상보다는 선사 및 고대 여성의 일상에 대한 일반론적인 진술로 흐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삶을 살피는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현재 광주의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에 응거하였던 정치체와 부근 지역에 대한 언급들이 있겠지만 주요한 대상은 현재 행정 구역상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일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라는 공간을 망라하는 여러 물질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선사시대부터 통일기신라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여성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생활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겠다. 물론 기록 자료 역시도 검토의 대상이다. 설명의 과정을 통해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일상과 역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에 살았던 실존 인물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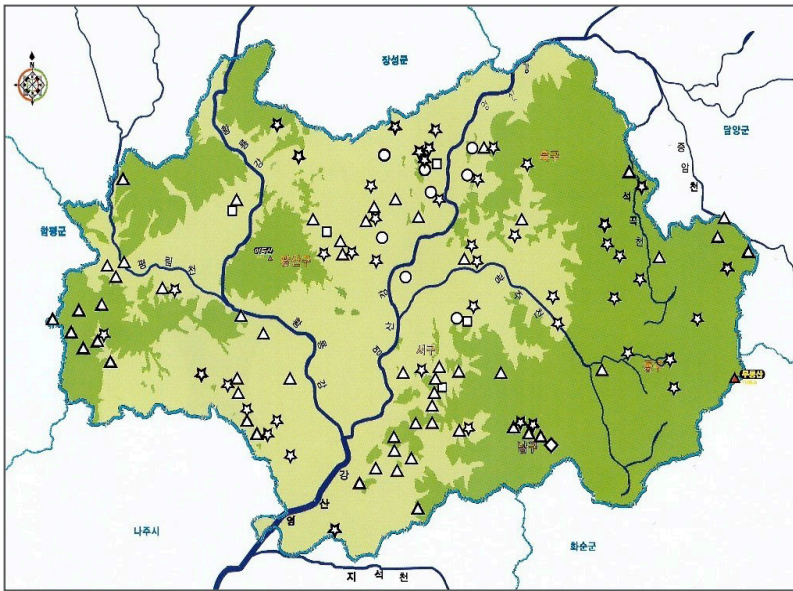
인류 역사의 구성원은 여성과 남성이다. 여성은 한 시대의 당당한 구

성원이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역사 행위의 주체였다. 그럼에도 행위주체자로서 여성의 삶과 역할을 소개하는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역사 행위의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자로서의 역할의 대부분을 남성이 담당해 왔던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시기적으로 고대, 지역적으로 광주에 살았던 여성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록 자료는 희박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치적 중심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고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일상과 지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때론 비약과 추론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유적 자료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도상 자료를 등을 단서로 선사 및 고대 광주의 여성의 일상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관찰자의 시각으로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일상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자의 선택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이 작업이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일상을 살피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후속 연구들을 추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내륙 지방에 해당한다. 광주의 지리적인 요건은 선사와 고대에 이르는 시기 거주했던 사람들의 식생활 및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해당 시기 발견된 바다 생물에 대한 흔적은 당시 교역의 양상까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선사 및 고대 광주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 유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유적 분포도를 제시한다. 유적 분포도를 보면, 광주는 남북으로 영산강이 관통하여 흐르고, 북서방면으로는 황룡강이 서남방향으로 흘러 들어 영산강으로 합류하고 있

으며, 남동방면으로는 지석천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⁰⁷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마한~통일신라시대

⁰⁷ 광주의 위치를 표시한 도판은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光州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26쪽에서 인용하였다.

II 선사시대 일상생활을 통해 본 광주 여성

1. 구석기시대 광주 여성의 일상생활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고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 또는 뿌리를 채집하여 먹고 살았다. 구석기시대는 기본적으로 석기의 종류, 만듦새의 특징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진다. 전기는 인류 출현 시기 또는 석기 문화의 시작부터 10만년 전까지이다. 중기는 10만년전에서 4만 혹은 3만년 전까지가 해당한다. 후기는 4만 혹은 3만년 전부터 1만년 전까지로 구분한다.⁰⁸

08 이견무 · 조현중, 2003, 『선사 유물과 유적』, 솔, 13쪽.

인류에 의해 제작된 석기의 형식학적 분류와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절대연대의 구축은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세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를 구분하는 편년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구석기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본 것은 광주 지역 구석기의 특징 및 시기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08년 광주박물관에서 발간한 도록에는 전기는 약 350만년 전~12만 5천년 전, 중기는 12만 5천년 전~4만년 전, 후기는 4만년 전에서 1만년 전으로 세분한다.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기는 자연에서 구한 돌을 직접 떼기로 제작한 석기가 특징이다. 중기는 톱날석기, 뚜르개, 새기개 등이 등장하고 미리 정해진 형태로 박편을 떼어낼 수 있도록 몸돌을 다듬는 르발루아(Levallois) 기법과 박편을 세밀하게 다듬는 이차 가공법이 출현하였다. 후기는 정교한 바리와 동일한 형태의 생산물을 다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간접떼기와 제작자 몸의 힘으로 눌러서 박편을 떼어내는 눌러떼기가 등장한다. 특히 눌러떼기는 후기 구석기 단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석기 제작 기술로서 바리도구 끝에 보폭한 볼이나 뼈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구석기는 대부분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光州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27쪽.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약 6만 5천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적은 주로 섬진강과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다.⁰⁹ 영산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은 강의 중상류 지역인 광주 첨단과학기지 내의 산월동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치평동, 철도 이설 구간인 매월동 등의 구릉상에서 여러 점의 뼨석기가 출토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¹⁰ 그리고 영산강 지류인 극락강과 지석천 유역에서 생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선사시대인들의 생활 지역이 구릉이나 택지 그리고 물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택지분양 및 도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차후 추가적인 자료 발굴과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 시기적인 편년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중기 구석기시대에 전남 지역에 들어 온 인류는 광주에서 뚜렷한 생활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다만 치평동, 매월동, 산월동에서 후기 구석기인들의 흔적이 일부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에서 조사된 석기의 종류는 몸돌과 박편, 굽개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광주 지역의 구석기 유적 중 치평동 유적은 영산강 유역의 지층 속에서 구석기 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이다. 아래는 광주 치평동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들이다.¹¹

09 국립광주박물관 편, 2010, 『국립광주박물관』, 통천출판사, 12쪽.

10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편, 1999, 『광주의 歷史와 文化』,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9쪽.

11 치평동 구석기 문화층에서 발굴된 유물 자료 이미지는 이기길·이동영·이윤수·최미노, 1997, 『광주 치평동 유적 - 구석기·갱신세층 시굴조사 보고서』, 조선대학교 박물관·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8쪽에서 인용하였다.



치평동 1문화층 석기



치평동 2문화층 석기

치평동 구석기 유적은 2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제1문화층에서는 몸돌 1점과 조각들로 만든 굽개 2점이 출토되었다.¹² 마지막 빙하기의 추운 시기에 형성된 토층 상태와 토양썰기로 볼 때 제1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2문화층은 제1문화층으로부터 2m 가량의 흙이 퇴적된 후에 형성된 후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¹³ 또한 치평동 구석기 유적은 영산강을 끼고 분

12 이기길·이동영·이윤수·최미노, 1997, 『광주 치평동 유적 - 구석기·갱신세층 시굴조사 보고서』, 조선대학교 박물관·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65쪽.

13 치평동 유적은 1996년 조선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이기길·이동영·이윤수·최미노, 1997, 『광주 치평동 유적 - 구석기·갱신세층 시굴조사 보고서』, 조선대학교 박물관·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66~67쪽. 이외에도 치평동 구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개요가 全南大學校博物館·光州光城市,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 光州光城市』, 전남대학교 박물관, 144~145쪽에 소개되어 있다.

포하는 나주 삼포강 일대의 구석기와 황룡강 상류 지역에서 조사된 후기 구석기 유적과 함께 광주의 구석기 문화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¹⁴ 치평동 구석기 유적의 제1문화층은 해당 유적이 중기 구석기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광주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였지만 그 생활상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후기 구석기시대는 치평동 유적뿐만 아니라 매월동, 산월동 유적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보인다. 몸돌을 비롯한 박편, 굽개와 같은 도구들이 발굴되었다. 구석기시대 광주 지역에 남겨진 유적, 유물을 대상으로 구석기인들의 일상, 특히 남녀 간의 일상을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아주 이른 시기부터 먹이 채집에서 성별에 따른 도구 사용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남녀간 성별에 따른 분업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을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산 활동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도구와 그리고 생산 활동 분야의 차이를 기준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가령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찌개와 굽개를 근거로 구석기시대부터 남녀간 성별에 따른 분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보통 찌개는 삼각형에 가까우며 그 한쪽 끝이 뾰족하다. 찌개는 짐승의 고기와 가죽 혹은 나무 같은 것을 베거나 나무에 매어 창끝처럼 사용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고 나무를 다듬는 일에 쓰였던 도구이다. 찌개의 사용과 용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근력을 필요로 하는 도구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근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사용하는 도구로 보

14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光州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28쪽.

았다. 반면 굽개는 날의 각도가 가파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껍질 등의 대상물을 얇게 벗기는 데 사용¹⁵ 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굽개가 채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여성층이 사용한 도구로 보았다.¹⁶

이렇듯 도구의 쓰임새를 기준으로 사냥이나 채집과 같은 생산활동 분야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분업이 이미 구석기시대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광주 지역에서의 여성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남성은 찧개를 이용하여 주로 사냥을 하고 여성은 굽개를 이용하여 주로 식물을 채집하거나 열매를 따는 것과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구석기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점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생산 활동에서의 역할은 서로의 활동을 보완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성별 분업에 따른 경제활동의 방식이었을 것이다.¹⁷ 물론 구석기시대 여성 일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그렇지만 광주 지역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찧개와 굽개를 통해 구석기시대 광주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들 역시도 식물의 열매를 따거나 나무의 뿌리를 캐는 활동을 하거나 또는 주거지 가까이에 위치한 물가에서 조개를 줍는 것과 같은 경제활동 등을 하였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5 이건우·조현중, 2003, 『선사 유물과 유적』, 솔, 19쪽.

16 최숙경·하현강, 1972, 『한국여성사 : 고대~조선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원용, 198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玉城肇, 김동희 옮김, 1986, 『세계여성사』, 백산서당.; 정현백, 1988,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원시 고대편) - 모권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2, 창작과 비평사.; 森浩一編, 1989, 『女性の力』, 中央公論社.; 歴史科學協議會, 1996, 「原始古代の女性と戦争」 『歴史論評』 96-5.; 이현혜, 1998, 『한국 고대의 교역과 생산』, 일조각.

17 歴史科學研究會, 1991, 『女性史研究入門 - 原始篇』, 三星堂.

흥미로운 점은 구석기시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구석기 화석을 조사해보면 구석기인의 수명은 40세를 넘긴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남성은 40세를 넘기고 죽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지만 여성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는데, 아마도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인한 기능 즉 출산 등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¹⁸ 그리고 구석기시대부터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소개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의 경우이지만 구석기시대라는 일반적인 접근을 할 때 참고할 만하다. 1967년 일본 오키나와의 미나토가와(港川) 유적에서 약 1만 8천년 전의 화석 인골이 출토되었다. 이른바 미나토가와인(港川人)의 발골이다. 성인 남성 인골의 신장은 약 153~155cm인 반면, 성인 여성의 신장은 약 144cm였다.¹⁹ 여성의 몸집이 작고, 몸통이 길고 다리가 짧은 편이며 팔은 가늘지만 손은 큰 편이었으며, 다리뼈는 굵고 튼튼하였다. 턱뼈가 발달해 있어서 딱딱한 것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된 몸의 구조였다. 무엇보다 남녀간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는 식량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구분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 시기 남녀간 성별에 의한 분업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이었으며 사회적인 차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구석기시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생명을 잃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데 일정한

¹⁸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34쪽.

¹⁹ 田中良之, 1995, 『古墳時代親族構造の研究：人骨が語る古代社會』, 栢書房.

제약으로 작용하였고, 그런 점에서 남녀간 성별에 의한 분업이 이뤄지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구석기시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열매를 따고 꿀을 따거나 조개를 잡는 등의 비교적 근력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담당하였다. 여성의 생산활동은 사냥감의 부족이라든지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식량을 제공하는 기반이다. 음식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독립성이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또한 채집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세대를 계속하여 전수되었고 도구 발명 등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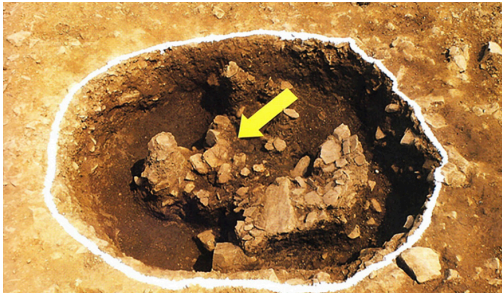
2. 신석기시대 광주 여성의 일상생활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와 달리 일정한 곳에 움집을 짓고 살면서, 토기를 만들고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한 시기이다. 초기 신석기 시대에는 여전히 사냥과 물고기잡이, 채집에 의존하였지만 점차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광주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2006년에 조사된 남구 효천2지구 주택 건설 부지의 노대동 유적이다. 노대동 유적은 곡류(曲流)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평탄한 층적 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수혈 유구 3기와 적석 유구 1기에서 사격자문 토

²⁰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34쪽.

기, 점열문 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와 돌창, 돌도끼 등 석기가 출토되었다.²¹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편들로 미루어 보아 유적의 연대는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하였다.²²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노대동 유적의 수혈유구



수혈유구에서 발견된 토기편들

21 노대동 유적의 수혈유구와 그곳에서 발견된 토기편들에 대한 도판은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光州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29~30쪽에서 인용하였다.

22 수혈과 적석유구에서 출토된 사격자문과 점열문은 일명 '봉계리식 토기'로 명명되는데 합천 봉계리, 진안 갈머리, 군산 노래섬, 제주 북촌리 등지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구연토기는 부산 울리, 진안, 여수시, 흑산도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들 토기의 분포권은 중부 이남의 전지역에서 출토되고 신석기시대 후기와 말기에 편년되는 것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았다. 鄭一, 2006, 「광주 효천2지구 주택건설부지내 광주 노대동유적」 『韓國新石器研究』 12, 119쪽.

노대동 유적은 영산강 유역의 내륙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그러나 유적에서 확인된 적석유구와 수혈유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성격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신석기인들이 거주했던 주거지나 안정된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대동 유적이 오랜 기간 점유되었던 공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³

노대동 유적은 향후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노대동 유적의 발굴은 영산강 유역 상류에 해당하는 노대동 일대에 신석기인들이 생활했던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신석기시대의 놀랄만한 변화는 토기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토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 점토가 불에 구워지면 단단하게 변한다는 현상을 발견한 인류가 만들어 낸 발명품이다. 토기를 사용함으로써 음식을 끓이는 등 식재료의 가공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토기의 발명은 석기 및 금속기의 사용, 농경과 함께 인류의 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인류가 신석기시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토기는 사회 발전과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단순히 손으로 빚고 그릇 표면에 무늬를 장식한 빗살무늬 토기는 점차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로 변화한다. 대개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조리용으로 사용되었다. 선사시대 토기는 한뼘가마에서 구워 적갈색을 띤다. 삼한 시기에는 철기 제작과 함께 물레 사용, 타날 기법, 굴가마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짧은 목항아리와 같은 새로운 기종이 나타난다. 삼한 시기에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토기가 사용되었으며 제사용, 공헌용 등 다양한 용도의 토기

23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광주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29~30쪽.

가 만들어졌다. 광주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토기의 제작과 사용의 흔적을 바로 노대동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기 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토기에 찍힌 지문이나 손자리를 분석해보면 주로 여성의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원시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의 80%에서 토기는 여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민속학적 자료를 보면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여성들이었다.²⁴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의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의 주 사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은 없다. 그렇지만 민속지 사례 및 다른 나라의 예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석기시대 토기들 중에는 제법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들이 눈에 띈다. 일반적인 조리를 위한 도구는 아닌 듯하다. 오히려 저장을 위한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광주 지역 신석기 유적에서 토기가 발견되었던 점을 토대로 당시 광주 지역 신석기 여성들의 일상을 점검해 보면, 그들은 토기를 만들고 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였으며 또한 식량을 저장해서 잘 보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만 토기의 제작과 저장을 위한 활동의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토기 제작과 저장을 위한 활동에서 일정하게 남성의 역할 역시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한 전문 연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기 사용의 주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 볼 뿐이다.

여성과 여성의 몸은 구석기,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에 이르

24 玉城肇, 김동희 옮김, 1986, 『세계여성사』, 백산서당.

기까지 신성한 존재로서 여겨졌던 듯하다. 오스트리아 빌렌토르프 근교의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는 여성상이 발견되었다. 높이는 10cm 정도이지만 커다란 유방과 볼록한 배 등이 풍만한 여성의 몸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은 생식과 출산 등을 상징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면 유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더스 강 유역, 중국, 일본 등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여성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여성상으로 여겨지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의 농포 신석기시대 조개무지 유적에서 5.6cm 크기의 흙으로 빚어 구운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퍼져 있는 듯한 형상이 출토되었는데, 여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⁵ 그리고 1974년 울산 신암리 유적에서는 높이 3.7cm 정도의 여성상이 발견되었다.²⁶ 기원전 4,000년 경의 작품으로 추정하는데, 흙으로 빚은 것으로 얼굴과 팔다리는 없어졌지만 잘록한 허리에 유방을 표현한 전형적인 여성의 몸에 대한 표현이다. 여성상의 출토는 선사시대 여성을 신성하게 여기고 숭상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²⁷ 다만 아직까지 광주 지역의 여성상 발굴에 대한 보고는 없다. 향후 광주 지역에서도 여성상에 대한 출토와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대해본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였다. 신석기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동물의 이빨이나 뼈, 조개, 옥, 흙 등을 소재로 귀걸이, 팔찌, 발찌, 뒤꽂이로 삼아 치장하였다. 또한 인물 또

25 고고학연구실, 1957, 「청진 농포리 원시유적 발굴」 『문화유산』 57-4.

26 1974년 울산시 서생면 신암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신석기시대 여인상으로 추정한다.

27 장경희, 2006, 『아름다운 우리문화재① 국립중앙박물관』, 예맥, 35쪽.

는 동물의 모습을 본 뜬 토제품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장신구는 신체를 꾸미는 기능도 있지만 종교적, 의례적, 주술적, 벽사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설명한다. 전남 지방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장신구인 조개로 만든 팔찌는 일본 열도와외의 교역품의 하나였다. 대체적으로 조개무덤에서 발견되는데, 고흥과 여수 등 주로 바닷가 지역에서 발견된다. 지리적 조건상 내륙에 해당하는 광주 지역에서는 조개팔찌와 같은 유물을 착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 철기시대 유적인 신창동 등지에서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귀장식품이 출토된 것을 보면 흙으로 만든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장신구의 종류와 재료에서 보이는 유물의 차이점은 지역적인 환경에서 빚어진 차이라고 생각한다.

신석기인들의 수공업 활동을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유물로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들 수 있다. 전남 여수 지역에서는 뼈바늘이 몇 점 발견되었다. 뼈바늘은 실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꿰매거나 연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가락바퀴는 방추차(紡錘車)라고도 한다.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드는 방적기구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가락바퀴의 중앙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구멍에 막대를 끼워 축을 만들어 고정시킨다. 그리고는 섬유를 축에 이어 회전시켜 꼬여진 실을 만든다. 가락바퀴의 재료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골재·토재·석재 등 다양하며 반구형·원기둥형 등 형태도 다양하다. 실 혹은 꿰맬 수 있는 섬유 종류가 있었다면 가락바퀴의 사용 역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락바퀴는 청동기시대 광주, 전남 지역의 유적지에서는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신석기시대 가락바퀴와 뼈바늘의 사용은 원시 수공업 활동과 연결되는 물증이다. 원시 수공업 분야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

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신석기시대 가락바퀴와 뼈바늘의 발견을 통해 비슷한 시기 광주 지역의 신석기시대 여성들 역시도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하여 짐승의 가죽 등을 연결하여 옷을 만들거나 또는 수선하였던 것과 같은 일상을 영위하였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청동기시대 광주 여성의 일상생활

청동기시대는 석기를 사용하던 인류가 새롭게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본격화되고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교역이 증대되고 계층이 분화되고 신분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청동기는 실생활 유적인 집터에서 출토된 예는 극히 소량이다. 고인돌 등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고인돌에서 청동기가 출토되는 것 또한 아니다. 이는 청동기가 일반 주민들의 실용적인 물품이라기보다는 집단의 유력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위세품이나 특별한 제사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상징물이기 때문으로 추정한다.²⁸ 즉 청동기의 사용은 사회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청동기시대에는 공동체가 일정 공간에 밀집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생활 유적으로는 집자리를 들 수 있다.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움집을 짓고 살았지만 신

28 국립광주박물관 편, 2010, 『국립광주박물관』, 통천문화사, 37쪽.

석기시대에 비해 넓은 지역에 많은 수가 밀집되어 커다란 취락을 이룬 형태이다. 특히 목책 시설을 갖춘 부여 송국리 유적이거나 주위에 깊이 20~150cm, 폭 50~200cm, 둘레 380cm의 환호 시설을 가진 울산 검단리 유적, 진주 대평리 유적 등에서 당시 청동기 사회가 주변 다른 취락과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짐작하게 한다.²⁹

광주 지역 이른 시기 집자리 유적으로는 광주 산정동, 용두동, 수문마을 등이 있다. 2005년 광산구 수완지구와 하남지구, 북구 용두동에서 세장방형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는 광주 지역에도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집자리인 송국리형 문화보다 이른 단계의 생활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들 유적의 주거지에서 이중구연의 형태에 단사선문이 있는 토기와 공열문, 구순각목문 등이 시문된 토기류와 전기 단계의 특징적인 유물인 삼각만입석촉이 출토되었다. 광주 송암동 유적이 조사된 이후 송국리형 주거 유적은 2004년 연제동 외촌 유적에서 10여 기, 2005년 수완지구 수문 유적에서 31기, 성덕 유적에서 11기, 장자 유적에서 7기, 신완 유적에서 3기가 조사되었다.³⁰

특히 수문 마을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으로서 현재까지 광주에서 가장 많은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이다. 주거지의 중앙에 타원형구덩이와 기둥구멍이 존재하는 것에서 송국리형 문화 집단이 살았던 마을로 본다. 마을은 해발 고도 40m의 야트막한 구릉 정상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 구릉 중앙의 정상부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다. 송국리

2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43쪽.

30 집자리 유적과 관련한 자료는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광주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33쪽을 참고하였다.

형 주거지는 건물 모양이 네모 형태와 둥근 형태로 나뉘며 각각 시기적인 차이도 보이지만 수문 마을 유적에서는 서로 혼재하고 있다. 이 유적의 서쪽편 구릉으로는 장덕동 성덕 유적과 장자·신완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유적과 수문 유적은 동일문화 집단의 소규모 마을로 추정하고 있다.³¹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집자리인 송국리형 집자리 유적으로는 광주 송암동 유적이 있다. 송암동 주거지 유적의 중앙에는 2개의 기둥구멍이 있으며 그곳에서 돌도끼, 반월형석도편, 갈판,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송암동 1호 주거지는 넓이가 약 14.86㎡로 1인이 점유하는 면적을 5㎡로 하면 약 3~5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암동 주거지 전경



갈돌, 갈판

31 국립광주박물관 편, 2008, 『광주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34쪽 그림 설명을 참조하였다.

송암동 집자리 유적에서 발굴된 도구와 토기편 등을 통해 당시 광주 지역에서 생활하였던 청동기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접근해 보았다. 송암동 청동기인들은 갈판을 이용하여 채집한 열매의 껍질을 벗기거나 혹은 수확한 농작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만들어서 식생활에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근력 소모량이 적은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을 것이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움집 내부에 화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덕의 발견을 통해 해당 시기 사람들이 움집에 거주하면서 취침, 휴식 등의 일상을 영위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음식까지 조리하였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청동기는 자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광석의 채취와 운반 그리고 광석을 녹여 금속을 추출하는 특별한 공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추출한 용액을 틀에 부어 청동 기물을 주조하기까지 여러 공정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재료였다. 청동기의 발명과 주조까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근력이 강한 남성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청동기시대는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남성의 노동력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가축의 사육 및 먼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 하는 등 생산활동 분야에서 남성의 노동력이 더욱 중요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고도의 근력을 요하는 노동력에서 열세인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노동력을 보좌하는 주변적인 위치로 변화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강부락의 무문토기 유적과 남구 구소동 유물 산포지에서는 어망추가 발견되었다. 우치동 유적의 주변은 영산강 지류의 하나인 극락강의 상류로 충적평야가 강을 중심으로 널리 펼쳐

쳐져 있다. 구소동 유물 출토지 역시 얇은 구릉지대로 영산강 지류인 지석천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어망추는 농경 이외에도 수렵이나 어로 생활이 중요한 생업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여성들 역시 물가에서 조개를 채집하고, 토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구소동 유적지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 그리고 백제시대에 해당되는 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강변의 구릉지대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여성의 일상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면서 발전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고인돌[지석묘]은 광주, 전남 지역에만 2만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은 매장부, 적석부, 덮개돌로 구성되며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축조가 가능하다. 특히 덮개돌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인원이 통제와 균형 속에서 채석, 운반, 축조의 과정을 거쳐 완성될 수 있다. 매장부의 축조와 덮개돌의 운반 과정에는 일정한 제사와 의례행위가 존재하며 실제로 부장용과 의례용으로 사용된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부장용 유물로는 마제석검, 마제석촉, 붉은간토기, 가지무늬토기, 비파형동검, 옥으로 만든 장식품 등이 발견되었다. 의례용 유물로는 마제석검, 마제석촉, 유구석부, 석착, 숫돌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의례용 유물은 무덤의 주변이나 적석부에서 파쇄된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무덤 축조 당시 의례행위로서 공헌품 또는 일상용품을 깨뜨려 무덤 주위에 뿌리거나 적석 사이에 묻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확인되는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중심적인 묘제로서 오랫동안 축조되다가 세형동검,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 새로운 문

물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들과의 사이에서 점차 쇠퇴하다가 소멸하게 된다.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광주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 유물을 통해 당시 여성의 일상에 접근해 보았다.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을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선사시대 광주 지역에 살았던 여성들의 주거, 음식, 경제 활동들을 들여다 보았다. 여성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면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하였기에 식물의 채집과 조개잡이 등을 하면서 식량을 확보하는데 일조하였다. 확보한 식량들을 정리, 저장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역시도 여성들이 행했던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확인하였다.

Ⅲ 고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과 경제·사회생활

1. 광주 여성의 혼인과 가정 생활

백제에서 후삼국시대에 이르는 기간 고대 광주 지역의 여성의 일상 특히 혼인과 가정 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문헌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고대 광주 지역의 남성 혹은 고대 광주 지역 전반에 대한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고대 광주 지역 사람들의 혼인 및 가정 생활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단편적인 자료나마 그것들을 통해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혼인과 성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는 단서로서 활용해 보고자 한다.³²

먼저 몇몇 중국측 자료를 통해 백제 여성의 얼굴, 머리 꾸밈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관련 자료이다.

32 고대 여성의 혼인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최숙경·하현강, 1972, 『한국여성사 고대~조선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강영경, 1982, 「한국 고대사회의 여성 - 삼국시대 여성의 사회활동과 그 지위를 중심으로」 『속대사론』 11·12합집. ; 김두진, 1994, 「한국 고대의 여성의 지위」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 전호태, 1997, 「한국 고대의 여성」 『韓國古代史研究』 12.

- B-1 : 부인의 의복은 도포 같으면서 소매가 약간 컸다. 출가하지 않은 여자는 편발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어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꾸밈을 삼고, 출가한 사람은 이를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다.³³
- B-2 : 부인들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아니하며 혼인하기 전에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출가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옷은 도포와 비슷하면서 소매가 약간 컸다.³⁴
- B-3 : 부인들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아니하며 혼인하기 전에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출가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³⁵

사료 B-1의 『주서』에는 백제에서 부인의 의복은 도포 같으면서 소매가 약간 컸다고 한다. 머리 꾸밈은 출가하지 않은 여성 즉 혼인하지 않은 여성은 편발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어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꾸밈을 삼았고 혼인한 여성은 이를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다고 한다. 『복사』와 『주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사료 B-2의 『복사』에는 새롭게 백제의 부인들이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추가되어 있다. 같은 내용이 사료 B-3의 『주서』에서도 확인된다. 머리 꾸밈은 혼인 전에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혼인을 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렸다고 한다. 사료 B-2의 『복사』의 표현을 참고하면 내림 머리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성을 표

33 『주서』 49 이역열전41 백제, “婦人衣以袍 而袖微大 在室者 編髮盤於首 後垂一道爲飾 出嫁者 乃分爲兩道焉”.

34 『복사』 94 열전82 백제, “婦人不加粉黛 女辮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 盤於頭上 衣似袍而袖微大”.

35 『주서』 81 동이열전46 백제, “婦人不加粉黛 女辮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 盤於頭上”.

현하고 올림 머리는 혼인한 여성을 나타내는 표식처럼 사용하였던 것이다. 백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광주 지역 여성들의 의복과 머리 모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북사』와 『주서』에서 언급한 백제에서 혼인한 여성이 분을 바르지 않았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듯하다.

백제에서는 혼인한 여성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또한 남편에 대한 3년 상복 규정이 보인다. 다음은 관련한 기록이다.

- C-1 : 부인으로서 간통죄를 범하면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 시집 장가드는 절차는 대략 중국의 풍속과 같다.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동안 상복을 입고 그 나머지 친척에게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었다.³⁶
- C-2 : 부인으로서 간통죄를 범하면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 결혼하는 예절은 중국의 풍속과 대략 같다. 부모상이나 남편의 상에는 3년동안 상복을 입고 그 나머지 친척들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게 하였다.³⁷

사료 C-1의 『주서』와 사료 C-2의 『북사』의 기록을 보면, 백제에서 혼인한 여성이 간통죄를 범하면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여성 일방에 대해서만 간통의 책임을 묻고 있는 듯하다. 상대 남성에게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는 명확한 규정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

36 『주서』 49 이역열전41 백제, “婦人犯姦者 沒入夫家爲婢 婚娶之禮 畧同華俗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則葬訖除之”.

37 『북사』 94 열전82 백제, “婦犯姦 沒入夫家爲婢 婚娶之禮 畧同華俗 父母及夫死者 三年居服 餘親則葬訖除之”.

성에게 더 강하게 책임을 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이는 부여에서 간통을 하면 남녀 모두를 처벌³⁸ 하였던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상복 규정에 있어 여성은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3년상 규정을 지켰다. 혼인생활 중 특히 여성의 간통 처벌 규정과 남편 사망 시 3년의 상복 규정을 두었던 바탕에는 가부장제적인 질서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백제의 풍습이 있었을 것이다. 혼인한 여성의 간통 규정과 상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의 사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서』 백제전의 내용이 이전 사서에는 보이지 않던 풍속 자료를 많이 담고 있고 그 내용의 주된 시기가 건국(기원전 18년)부터 위덕왕 25년(578)까지의 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⁹ 이를 토대로 6세기 후엽경, 백제에서는 혼인한 여성에 대한 정절이 강제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백제사회에서 혼인한 여성의 정절이 칭송되고 있는 풍조는 도미부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시대의 도미부인은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정절이 높은 여성으로 인정하여 『삼강행실도』에 소개할 정도였다. 도미부인의 이야기는 5세기 백제의 실상을 보여준다. 도미부인의 정절을 시험하는 남성으로 등장하는 개루왕은 바로 백제의 제21대 개로왕이다.⁴⁰

38 『삼국지』 30 동이열전30 부여, “男女淫 … 皆殺之”.

39 『주서』 백제전이 전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朴性鳳, 1986, 『東夷傳 百濟關係資料』, 慶熙大學校文化研究所 참고하였다.

40 개로왕은 『삼국사기』 25 백제본기3 개로왕 즉위년조와 21년조의 도림이야기에서는 近蓋婁로 명칭하였다. 반면 『삼국사기』 48 열전8 도미전에서는 蓋婁王으로 표현되었다. 비록 개루왕으로 칭했던 왕의 재위 시기는 2세기 초이지만 도미설화의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개루왕을 근개루라고도 칭하였다는 점에서 도미설화는 5세기 개로왕대의 산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이강래 역주, 『삼국사기 II』, 한길사, 1998, 865쪽).

개로왕대 도미부인이 백제사회에서 높이 칭송받고 있었던 이유가 “아름답고 고왔을 뿐만 아니라 행실에 절조가 있어서”⁴¹ 라는 점을 보면 백제사회 역시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여성의 정절은 남편이 있는 경우 다른 남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밀접해 보인다. 개로왕이 위력을 행사하여 도미부인의 정절을 빼앗으려고 하였을 때, 도미부인은 “이미 남편을 잃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다가, 하물며 왕의 사랑을 입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월경 때문에 온몸이 더러워졌으니, 다른 날을 기다려 깨끗이 목욕한 뒤에 오고자 합니다”⁴² 라고 말하면서 개로왕을 되돌려 보냈던 것에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도미부인은 도미와 함께 고구려로 달아나 구결하다 생을 마감하였다.⁴³ 신라의 사례이지만 진지왕대 도화녀 역시 진지왕의 동침 요구에 대해 ‘비록 그 대상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있는 여성으로서 죽어도 다른 남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다만 ‘남편이 없다면 가능하다’⁴⁴ 는 단서는 남긴다.

도미부인과 도화녀의 사례를 통해 국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있어 정절은 다른 남성과의 동침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주서』와 『북사』에서 확인하였듯이 백제에서 혼인한 여성이 정절을 어기면 남편의 집에서 종이 될 수 밖에 없

41 『삼국사기』 48 열전8 도미, “其妻美麗 亦有節行 爲時人所稱”.

42 『삼국사기』 48 열전8 도미, “遂引其婦 強欲淫之 婦曰 今良人已失 單獨一身 不能自持 況爲王御 豈敢相違 今以月經 渾身汚穢 請俟他日 薰浴而後來 王信而許之”.

43 『삼국사기』 48 열전8 도미, “婦遂與同舟 至高句麗 蒜山之下 麗人哀之 丐以衣食 遂苟活 終於羈旅”.

44 『삼국유사』 1 기이1 도화녀비형량, “王聞而召致宮中 欲幸之 女曰 女之所守 不事二夫 有夫而適他 雖萬乘之威 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 有願靡他 王戲曰 無夫則可乎 曰 可 王放而遣之”.

다. 여성의 간통을 처벌하는 형벌의 엄격함에 비춰볼 때, 백제의 여성들은 정절에 대해 이미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관련 범죄 역시도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혼인한 여성에 대한 정절이 백제 여성에게 강제되던 일반적인 가치라고 할 때, 고대 광주 지역에서도 정절은 역시 강조되는 덕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백제가 혼인한 여성에게 엄격하게 요구했던 정절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통일기신라 무진주의 벼슬아치였던 안길이가 자신의 처첩에게 문무왕의 동생인 거득공과의 동침을 요구한 것이다. 안길이의 사례를 보면 혼인한 여성이 외간 남성과 동침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진주 사람 안길과 그의 3명의 처첩의 이야기를 단서로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혼인과 성 의식의 한 사례에 접근해 보았다. 아래는 관련 기록이다.

왕이 하루는 庶弟 車得公을 불러 이르되 “너는 재상이 되어 백관을 고루 다스리고 사해를 태평하게 하거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폐하가 만일 소신으로 재상을 삼으신다고 하시면 신이 국내를 밀행하여 민간의 요역이 행해지는 것과 지켜지지 않은 것 그리고 세금이 무겁고 가벼운 것, 관리의 청렴함과 어지러움을 본 후에야 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들었다. 공이 이에 승려의 옷을 입고 비파를 들고 거사의 모양을 하고 서울을 나와 아슬라주, 우수주, 복원경을 지나 무진주에 이르러 촌락을 순행하였다. 주의 관리 안길이가 보고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하였다. 밤에 처첩 3인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밤에 거사를 모시고 자면 나와 종신토록 해로하리라”고 하였다. 2명의 처는 말

하기를, “차라리 같이 살지 못할지언정 어찌 남과 동침하리요”라고 하였다. 다른 1처가 있다가 말하기를 “공이 만일 종신토록 함께 살기를 허락한다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 이튿날 거사가 떠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서울 사람인데 나의 집은 황룡, 황성 두 절 중간에 있고 나의 이름은 단오이니 주인이 만일 서울에 오거든 나의 집을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서울로 돌아와서 재상이 되었다. 국가의 제도에 각 주의 향리 1인을 서울에 오게하여 여러 관청에서 상수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안길이가 상수할 차례가 되어 서울에 올라왔다. 두 절 사이에 있는 단오 거사의 집을 물으니 아는 이가 없었다. 안길이가 오랫동안 길가에 서 있었는데 한 노옹이 지나다가 그의 말을 듣고 한참 서서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두 절 사이에 있는 집은 대궐이고, 단오는 곧 사특령공인데 공이 외국에 밀행하였을 때 그대와 인연과 약속이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안길이가 그 사실을 말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가 궁성 서쪽의 귀정문에 가서 궁녀의 출입자를 기다려 말해보시오”라고 하였다. 안길이가 그 말을 따라 “무진주 안길이가 보이러 왔다”라고 고하였다. 공이 듣고 쫓아 나와 손을 붙잡고 궁으로 들어가 공의 부인을 불러 안길과 함께 잔치하였다. 그 때 찬이 50가지나 되었다. 이 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성부산 아래의 땅을 무진주 상수의 소목전으로 삼아 백성들의 별채를 금하니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이 다 부러워하였다. 산 아래의 밭은 30묘로 종자 3석을 뿌리는 곳인데 이 밭이 풍작이면 무진주도 풍작이 되고 흉작이면 무진주도 흉작이 되었다고 한다.⁴⁵

45 『삼국유사』 2 기이2 문호왕 법민, “王一日召庶弟車得公曰 汝爲冢宰 均理百官 平章四海 公曰 陛下若以小臣爲宰 則臣願潛行國內 示民間徭役之勞逸 租賦之輕重 官吏之清濁 然後就職 王聽之 公著緇衣 把琵琶爲居士形 出京師 經由阿瑟羅州【今溟州】牛首州【今春州】北原京【今忠州】至於武珍州【今海陽】 巡行里閭 州吏安吉見是異人 邀致其家 盡情供億 至夜安吉喚妻妾三人曰 今茲侍宿客居士者 終

위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거득공과 안길에 얽힌 이야기이다. 거득공은 문무왕의 서제(庶弟)이다. ‘庶弟’의 의미를 여럿 중의 하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여러 동생들 중의 하나이지만 본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는 의미로 보면 어머니가 다른 동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문무왕의 동생인 거득공이 지방 순행을 하던 당시 무진주 즉 옛 광주 지역에서 겪었던 일화이다. 거득공과 안길의 이야기에는 자못 흥미로운 몇 가지가 담겨 있다. 무진주의 리(吏) 안길이 3명의 처첩을 두었다는 것에서 남성의 지위와 재력에 따라 일부다처(一夫多妻)가 가능하였던 당시 혼인 풍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진주의 吏가 나중에 상수(上守)를 하러 수도로 가서 거득공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단서로 접근하면, 통일기신라에서 지방세력의 견제를 위해 시행하였던 상수리제도의 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거득공이 지방을 순행하던 당시 무진주에 이르자 그곳의 吏 안길이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와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안길은 그의 3명의 처첩에게 그들 중 누군가는 손님과 밤을 지낼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을 이행한 처첩에게는 종신토록 해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해당 사례는 손님에 대한 지극한 접대의 한 방식으로

身偕老 二妻曰 寧不並居 何以於人同宿 其一妻曰 公若許終身並居 則承命矣 從之 詰旦居士欲辭行時 曰 僕京師人也 吾家在皇龍皇聖二寺之間 吾名端午也【俗謂端午爲車衣】 主人若到京師 尋訪吾家幸矣 遂行到京師 居家宰國之制 每以外州之吏一人上守京中諸曹 注 今之其人也 安吉當次上守至京師 問兩寺之間端午居士之家 人莫知者 安吉久立道左 有一老翁經過 聞其言良久佇思曰 二寺間一家 殆大內也 端午者 乃車得令公也 潛行外郡時 殆汝有緣契乎 安吉陳其實 老人曰 汝去宮城之西歸正門 待宮女出入者告之 安吉從之 告武珍州安吉進於門矣 公聞而走出 携手入宮 喚出公之妃 與安吉共宴 具饌至五十味 聞於上 以星浮山【一作星損乎山】下爲武珍州上守繞(燒)木田 禁人樵採 人不敢近 內外欽羨之 山下有田三十畝 下種三石 此田稔歲 武珍州亦稔 否則亦否云”。

문명이 낮은 단계의 여러 민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⁶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고대사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처첩까지도 뇌물로서 제공하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습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사회 질서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⁴⁷ 하였기 때문이다.

안길의 공처(供妻)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진주 지방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자신의 처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풍속이 7세기 말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길의 처첩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남편과 증실토록 해로하지 못하더라도 외간 남자인 손님과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이러한 풍속이 더 이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다. 앞서 사료 C-1의 『주서』와 사료 C-2의 『북사』의 기록에서 백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절을 강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유교 윤리의 강조에 따라 일부종사와 같은 관념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풍속이 바뀌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안길의 공처 사례는 앞서 살펴본 백제 여성의 간통을 처벌하는 풍조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를 성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절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

46 손님에게 주인이 처를 제공하는 관습은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낮은 문명 단계의 여러 곳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환대법은 아일랜드의 영웅설화와 프랑스의 문학작품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손님에게 대접을 잘 해주면 그 손님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다거나 혹은 손님의 사악한 기원이나 저주를 두려워한 처사로서도 풀이된다. Edward Westermarck 저, 鄭東鎬·申榮鎬 역, 2013, 『인류혼인사』, 세창출판사, 34~35쪽.

47 안길이 처첩으로 하여금 거둬공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는 것을 접대로 삼는 관습에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와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 인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전호태, 1997, 「한국 고대의 여성」 『韓國古代史研究』 12, 122쪽.

다. 정조라는 덕목이 고대 지배층 남성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강조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백제 개로왕의 사례는 물론이고 신라의 진지왕 역시도 타인의 부인을 탐하였다. 고구려의 산상왕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여성과 동침하여 동천왕을 얻었다. 신라 소지왕의 사례에서도 선혜부인과 혼인한 상태였지만 파로군으로 벽화를 찾아가 동침하였다.⁴⁸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신라 경문왕은 헌안왕의 큰 딸을 왕비로 맞은⁴⁹ 후 다시 둘째 딸마저 왕비로 받아들였다.⁵⁰ 열거한 사례에서 절대 권력자인 남성에게 정조는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진주의 벼슬아치인 안길 역시도 3명의 처를 두었던 점에서 백제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존재하였으며 또한 정조는 대체적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덕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접근일 듯하다.

그런데 여성의 정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비단 안길만이 아니었다. 백제의 제21대 개로왕 역시도 여성의 정절을 타인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쉽게 유혹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로왕이 그런 주장을 내세웠던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개로왕대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개로왕은 중국 그리고 왜와의 대외관계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특히 지진원 사건으로 경색된 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동생 곤지를 사신으로 보냈다. 곤지는 사신으로 가기 전 개로왕의 부인을 청하였고 개로왕은 만삭인 자신의 부인을 곤지와 혼인시켜 함

48 『삼국사기』 3 신라본기3 소지왕 즉위년, “炤知【一云 毗處】麻立干立 慈悲王長子 母金氏 舒弗邯末斯 欣之女 妃善兮夫人 乃宿伊伐滄女也”.

49 『삼국사기』 11 신라본기11 경문왕 즉위년, “妃金氏寧花夫人”.

50 『삼국사기』 11 신라본기11 경문왕 3년, “十一月 … 納寧花夫人弟 爲次妃”.

께 왜로 보냈다. 곤지와 개로왕의 부인이 혼인하였다는 사례는 형제공 유혼의 형태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후 개로왕의 부인은 왜로 가던 도중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무령왕이라는 기록이 있다.⁵¹

표면적으로 개로왕과 개로왕의 부인이 처한 현실은 도미와 도미부인의 현재와 명확하게 대비된다. 즉 도미는 당대 백제에서 평민임에도 의리를 알고 그리고 부인마저도 정조가 있어 널리 칭송받던 존재였다. 반면 개로왕은 백제의 왕이지만 자신의 부인을 왜에 사신으로 가는 동생 곤지와 함께 혼인시켜 보내야만 했다. 비록 개로왕이 곤지와 혼인을 허락하였지만 개로왕의 부인이 다른 남성과 혼인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까지를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⁵² 마찬가지로 안길이가 공처했던 행위가 비록 정당할지라도 그에 대한 비난마저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길이의 두명의 처는 공처 행위에 대한 거부를 표시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내건 이유는 비록 해로하지 못할지언정 다른 남성과 동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정조를 지키겠다는 주장으로 일축된다. 이미 광범위하게 여성의 정조가 강제되었던 백제사회의 혼인 풍조에서 다른 남성과의 동침을 흔쾌히 수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

51 『日本書紀』 14 雄略天皇 5년, “夏四月 百濟加須利君【蓋鹵王也】 飛聞池津媛之所播殺【適稽女郎也】 而籌議曰 昔貢女人爲采女 而既無禮失我國名 自今以後 不合貢女 乃告其弟軍君【昆支也】曰 汝宜往日本以事天皇 軍君對曰 上君之命不可奉違 願賜君婦 而後奉遣 加須利君則以孕婦 嫁與軍君曰 我之孕婦 既當產月 若於路產 冀載一船 隨至何處 速令送國 遂與辭訣 奉遣於朝 六月丙戌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各羅島產兒 仍鳴此兒曰嶋君 於是 軍君即以一船 送嶋君於國 是爲武寧王 百濟人呼此島曰主島也 秋七月 軍君入京 既而有五子【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弟昆支君 向大倭 侍天王 以脩兄王之好也】”.

52 개로왕이 도미에게 여성의 정절이란 것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성의 정절이란 것이 그다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던 이면에는 개로왕 개인이 처한 현실과 그 과정에서 태어난 후계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작동하였다고 보았다. 최일례, 2019, 『백제 개로왕의 여성 節行觀에 담긴 역사성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1.

리해보면, 백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강제와 처벌은 가부장제적 사회 질서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때론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단면을 안길의 공처 행위, 개로왕의 공유혼과 여성에 대한 절행관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후삼국시대 광주 지역은 견훤이 다스리는 이른바 후백제 지역이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서남해안을 방어하고 지키는 비장으로 있다가 진성여왕 6년(892)에 무진주를 점거하고 부근 군현을 빼앗아 완산주에 진군하여 도읍을 삼고 후백제왕이라 칭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견훤의 출신에 대해 상이한 두 개의 정보가 있다. 바로 견훤이 상주 가은현의 사람으로 본성은 이씨라는 것, 다른 하나는 광주 본촌 출신이라는 정보이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견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다.

- (가) 후백제의 견훤, 『삼국사』 본전에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고 함통 8년 정해에 태어났으며 본성은 이씨였는데 후에 견씨라 했다. 그의 아버지 아자개는 농업으로 생활했는데, 광계 연간에 사불성 【지금의 상주】에 웅거하여 스스로 장군이라 일컬었다.
- (나) 또 하나의 이설, 또 『고기』에는 옛날에 한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고 있었는데 딸 하나가 있었으며 모습이 단정했다. 딸이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 “매번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저의 침실에 와서 관계를 갖곤 합니다.” 그 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다. “네가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딸은 그 말에 따랐다. 날이 밝자 실을 북쪽 담 밑에서 찾았는

데, 비늘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아기를 배어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열다섯 살이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 처음에 견훤이 나서 젓먹이일 때, 그의 아버지는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밥을 갖다 날랐다. 젓먹이를 수풀 아래에 두었다니 호랑이가 와서 젓을 먹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자 몸과 모습이 웅장하고 기이하며 뜻과 기상이 크고 비범했다. … 마침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⁵³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견훤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상주 사람이라는 설⁵⁴ 과 광주 출신이라는 설⁵⁵ 이 대립한다.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견훤의 출신지를 상주로 보는 추세이다. 그러나 견훤이 상

53 『삼국유사』 기이2 후백제 견훤, “三國史本傳云 (가)甄萱尚州加恩縣人也 咸通八年丁亥生 本姓李 後以甄為氏 父阿慈个以農自活 光啓中據沙弗城 今尚州自稱將軍 有四子皆知名於世 萱號傑出多智略 … (나)又古記云 昔一富人居光州北村 有一女子姿容端正 謂父曰 每有一紫衣男到寢交媾 父謂曰 汝以長絲貫針刺其衣 從之 至明尋絲於北墻下 針刺於大蚯蚓之腰 後因姙生一男 年十五自稱甄萱 … 初萱生孺褓時 父耕于野 母餵之以兒置於林下 虎來乳之 鄉黨聞者異焉 及壯體兒雄奇 志侔儼不凡 … 遂襲武瑠州自王”.

54 견훤의 상주 출자설은 고려시대 찬술된 『삼국사기』와 이를 인용한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내세우고 있다. 조선시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견훤의 광주 출신설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상주 출신설을 지지하였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견훤의 상주 출신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기백, 1967, 『한국사신론』, 일조각, 141쪽. ; 변태섭, 1986, 『한국사통론』, 삼영사. ;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1990, 『한국사특강』, 서울대출판부. ; 신호철, 1996,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202~205쪽.

55 견훤의 광주 출자설은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이설의 하나로서 소개하였다. 견훤의 광주 출자설은 소수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김상기, 1966, 「견훤의 가향에 대하여」 『이병기송수기념논문집』. ; 박경자, 1982, 「견훤의 세력과 대왕건관계」 『속대사론』 11 · 12합집, 132~136쪽. ; 변동명, 2000, 「견훤의 출신지 재론」 『신단학보』 90.

주의 호족인 아자개의 아들이었다는 상주 출신설이 의심을 받게 된 데에는 왕건이 즉위하던 해 7월⁵⁶ 혹은 9월⁵⁷에 아자개가 고려 태조에게 귀부한 사건이 있었던 때문이다. 후백제의 왕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구태여 왕건에게 귀부했다는 사실은 어딘지 억지스럽다.⁵⁸ 만일 아자개가 견훤의 생부였다면 아들의 적인 고려의 왕건에게 귀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실은 고려에서 크게 이용되었을 법하다. 특히나 아자개가 왕건에게 귀부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918년 7월 혹은 9월로 왕건이 즉위한 6월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때 견훤은 무진주를 거점으로 삼아 892년 왕을 칭한 지 이미 26년이나 지난 무렵으로 전주로 천도하여 設官分職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한 다음 한창 세력을 떨치던 시기였다.⁵⁹ 그런 점에서 과연 견훤과 아자개가 부자관계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일연 역시도 견훤의 상주 출신설과 아자개와 부자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을 가졌던 듯하다. 그래서인지 일연은 견훤이 상주 출신이라는 설을 먼저 밝히면서도 이설의 하나로서 『고기』를 인용하여 견훤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후술하였다. 자신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서로 상반되는 자료들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⁶⁰ 그런 점에서 견훤의 상주 출자설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견훤의 어머니에 관한 구체적인 전설이 광주 지

56 『삼국사기』 12 신라본기12 경명왕 2년 7월.

57 『고려사』 1 태조 원년 9월 갑오.

58 김상기, 1966, 「견훤의 가향에 대하여」 『이병기송수기념논문집』, 198~199쪽.

59 변동명, 2000,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 90, 32쪽.

60 변동명은 일연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설을 소개하는 것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변동명, 2000,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 90, 37쪽.

역에 있었다는 것은 그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견훤이 상주 출신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혹은 『고기』에 인용된 정보를 견훤의 출생설이 아닌 견훤의 혼인과 연결된 설화로 주장하기도 한다. 즉 앞서 소개한 광주 북촌의 부자집 딸로 표현된 여성은 견훤의 어머니가 아닌 처에 해당하며 따라서 견훤의 광주 출생설은 부정하는 입장이다.⁶¹

견훤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무리를 모아 지역의 중심지인 광주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진주와 견훤이 일정한 연고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고 본다. 게다가 견훤의 주변 인물들 역시도 대부분 광주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은 견훤의 출자 기반이 광주와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을 보완해준다. 그런 점에서 견훤의 출생담에 보이는 자주색 옷을 입은 남성은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좋은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견훤의 부계는 자주색 옷을 입을 정도의 높은 신분을 가진 존재였고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여성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즉 견훤의 부모는 신라 하대에 등장한 광주 지역 호족 출신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⁶² 특히나 견훤의 출생담은 ‘夜來者’ 유형의 설화이다. 자주빛 옷을 입은 아래자와 북촌 부자집 딸의 결합은 일반적인 의미의 남녀 결합이 아닌 다름아닌 후백제의 건국주인 견훤이 탄생하는 설화이다.⁶³

후백제 건국주인 견훤의 출생담을 매개로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의 자

61 신호철 1996,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205-206쪽.

62 박경자, 1982, 「견훤의 세력과 대왕건관계」 『속대사론』 11·12합집, 135쪽.

63 韓美玉, 2003, 「百濟 建國神話의 系統과 傳承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0쪽.

최용신, 2006, 「아래자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쪽.

녀 양육과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많은 부분 여성의 몫이었다고 여겨진다. 견훤의 어머니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밥을 가져다 주던 당시 젓먹이였던 아이 견훤을 수풀 아래에 두었다. 가정에 따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구태여 젓먹이를 들에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다. 이는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남편에게 식사까지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실상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호랑이가 와서 견훤에게 젓을 먹여주었다는 것은 견훤의 비범함을 호랑이도 알 정도라는 점을 드러내주기 위한 장치이다. 무엇보다 고대 백성들의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은 남성이 주로 담당하지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몫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양육의 주체가 주로 여성이었음을 알게한다. 애석하게도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 방식이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덧붙여 고대 자녀의 출산 특히 장애아 출산을 당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⁶⁴ 를 짐작할만한 자료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헌덕왕 17년(825) 3월, 무진주의 마미지현에 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와 몸뚱이가 돌이고 팔이 넷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른바 삼쌍둥이의 출산 사례이다. 당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늘이 크게 천둥을 쳤다.⁶⁵ 무진주 마미지현은 『삼국사기』 잡지 지리지 신라편에서는 古馬彌知縣

64 한국 고대 특이한 출산 사례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최일례, 2019, 「한국 古代의 특이한 출산 사례와 當代의 반응 - 多胎兒와 삼쌍둥이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9 참조.

65 『삼국사기』 10 신라본기10 헌덕왕 17년, “三月 武珍州馬彌知縣女人産兒 二頭二身四臂 産時天大雷”.

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이 통합된 이후 백제 당시에는 마미지현이었던 지명에 ‘古’를 추가하여 고마미지현으로 명칭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미지현의 위치는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으로 비정되며 당시 무진주 관할하에 있던 분차군(현재 순천 낙안 지역)에 소속되어 있던 현이었다.

‘하늘이 천둥을 쳤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나쁜 행위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를 나타내는 것⁶⁶으로 본다. 문무왕 2년 조에 사찬 여동이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우레가 울리고 비가 퍼붓는 가운데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⁶⁷ 죽은 여동의 몸 위에 ‘湏罌堂’⁶⁸의 세 글자가 씌어 있었다. ‘罌’의 자형은 알 수 없는 글자로 세 글자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머니를 때린 아들을 향해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퍼붓는 가운데 벼락을 맞아 죽게 하였다면 분명 좋지 않은 의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진주 마미지현의 여인과 몸뚱이가 돌이고 팔이 넷인 아이를 낳자 하늘에서 천둥이 친 사건은 좋지 않은 일 혹은 장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늘의 경고 혹은 반응 정도로 여겨진다. 이상의 기록과 반응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고대 무진주의 관할 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장애아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66 삼쌍둥이의 출생을 천재지변, 즉 임금의 덕을 잃어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하늘의 재앙이 내린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정창권, 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149쪽.

67 『三國史記』6 新羅本紀6 문무왕 2년, “沙滄如冬打母 天雷雨震死 身上題須罌堂【罌字未詳】三字”.

68 원문은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g&levelId=sg_006_0020_0300&types=o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11.14).

2.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농경이 본격화되고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고도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남성의 노동력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충북 괴산 지역에서 발견된 농경무늬 청동기를 참고하면 남성은 땅을 파서 밭고랑을 만들고 여성들은 열매를 따서 용기에 담아두는 듯한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 농사에서 여성과 남성의 노동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었던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력을 사용하는 강도가 더 낮은 정도의 노동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력은 가내에서 자녀 양육, 음식 조리, 옷감 짜기와 같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광주 지역 여성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관한 더 직접적인 자료는 최소한 철기 문화가 전래된 이후 시기에 본격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광주 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운남동 옹관묘, 수문 유적, 오룡동 유적, 신창동 유적 등이 있다. 이중 신창동 유적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철기시대 말기에서 삼국시대 초기 당대인의 생산과 생활 그리고 무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대한 복합 농경 유적이다.⁶⁹

69 신창동 유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국립광주박물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7, 『2005 광주-장성간 도로확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光州 新昌洞遺蹟』,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007, 『광주 신창동 유적 - 2005년 15 grid 남서 지점』,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2010, 『신창동 유적의 의미와 보존 - 도작농경과 유적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광주광역시, 2012, 『光州 新昌洞 遺蹟 - C5, D4, D5 grid(584번지 일원)』,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 조현중, 2012, 『신창동유적의 木器와 漆器』, 『2012 光州 新昌洞遺蹟 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엄 자료집』. ; 오영찬, 2012, 『樂浪古墳 출토 漆器의 조사와 연구』 『2012 光州 新昌洞遺蹟 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엄 자료집』. ; 山口讓治, 2012, 『日本木製農具の系譜』 『2012 光州 新昌洞遺蹟 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엄 자료집』. ; 국립광주박물관, 2014,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VII - 木器 追加報告』, 국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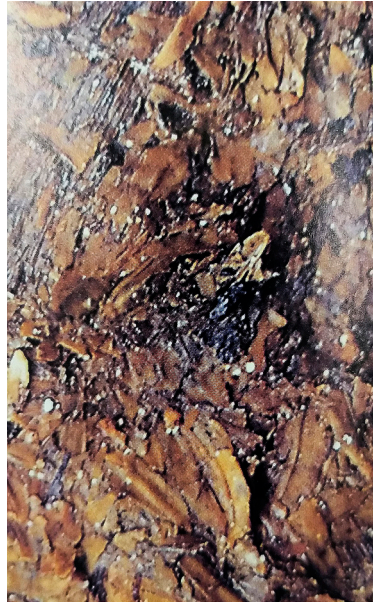
특히 신창동 유적에서는 여성들의 일상과 생산활동을 보여주는 여러 물질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신창동 유적은 영산강변에 낮게 솟은 삼각산(해발 98.1m)에서 영산강의 서안을 따라 남동쪽으로 내린 구릉의 끝자락 일대에 해당한다. 지정면적 3만 8436㎡에 해당하며 광주에서 서북쪽 장성 지역으로 가는 국도 1호선 및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의 구릉 대지에 있다. 유적의 지형은 크게 해발 30m 정도인 4개의 잔구성 구릉대지와 그 사이 3개의 작은 곡간지대 그리고 영산강변에 인접하여 형성된 곡간충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서쪽의 구릉에서는 옹관묘, 두 번째 구릉에서는 토기가마, 도랑, 밭,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릉 사이에는 저습지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네 번째 구릉의 동쪽은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며 영산강과 만나는데, 이곳에서 도랑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구릉에는 송국리형 주거지와 뒤이은 마한계 방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와 네 번째 구릉을 따라 도랑과 함께 주거 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는 토기가마와 밭, 곡간과 충적지대에는 저습지와 논이 분포하고 있는 구조이다.

몇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발화구를 비롯하여 문짝, 신발골, 목검과 칼집, 낫자루, 팽이, 절구공이 등의 목기류와 목태, 칠기류 그리고 샷자리, 그물망, 새끼, 빗자루와 같은 우리 주변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민속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농기구의 출토를 통해 당시 농사 도구의 제작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창동 유적에서 발

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2016,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Ⅷ - 신창동 528·590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국립광주박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6,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 下』, 도서출판 심미안.

견된 벼껍질층은 세계 최대 농경유적인 중국의 하모도 유적의 70cm보다 더 두꺼운 150cm에 달한다.⁷⁰ 당시 신창동에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기타 곡물 자료로 밀, 보리, 호밀 등과 발작물인 오이, 참외, 산머루의 씨앗도 발견되었다. 이 밖에 구릉부의 화분 분석 결과 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등 온대수림이 유적 주변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슬기, 우렁이, 재첩, 메기뼈 등 민물 어패류가 발견되었다.



벼껍질 압착층

신창동 주민들은 발달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영산강 수로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유적에서 출토된 참돔, 가오리, 송어, 넙치와 같은 바다어류는 해안 지역과 물길을 통해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동화살촉과 낙랑계 토기는 당시 낙랑의 철기문화가 남부 지역까지 파급되었거나 지역간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이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점은 중국 한나라와 낙랑의 문물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까지 파급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신창동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사회적 위상이 상당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⁷⁰ 벼껍질 압착층 도판,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28쪽.

신창동에서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신창동 사람들의 계절별 식량자원과 일상을 정리하면, 봄에는 고사리와 버찌, 오디 등의 열매를 수확하여 먹고 때론 복숭아 같은 과일을 맛보았을 것이다.⁷¹ 초여름에서 가을에는 가물치, 다슬기, 우렁이, 말조개, 재첩 등을 물가에서 채취하여 식생활을 영위하였다. 그것들을 채집하는 과정

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노동력이 주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여성들은 봄에 수확한 밀과 보리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여름 농사로 들깨, 조, 오이, 박 등을 가꾸고 수확하여 반찬을 만들어 역시 가족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시기에는 벼를 수확하여 저장한다. 그 과정은 상당한 근력을 필요로 하므로 남성들이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가을에 여성들은 머루, 도토리, 가래, 밤 등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신창동의 누군가는 해안 지역으로 가서 신창동에서 수확한 것들과 참돔, 굴 등을 교역하여 들여왔을 것이다.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시기에는 역시 신창동 지역에서 수확하거나 만든 옷감이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해안가로 가서 가오리, 넙치, 송어 등과 같은 생선들과 교역하여 왔을 것이다.



71 계절별 식량자원 도판은 국립광주박물관 신창동 유적의 설명자료이다(2019. 9. 10).

신창동 유적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인해 주는 몇 가지 자료가 나왔다. 1997년 발굴조사에서 베틀부속구인 바디, 실감개, 빗, 수레부속구 등과 함께 칠용기 및 칠마연용 천과 천조각이 출토되었다. 1998년 조사에서는 가락바퀴, 실감개, 바디와 같은 직조 관련 도구와 천조각, 삼씨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베틀부속구(베를 짤 때 위쪽에서 밀어서 당기는 도구)인 바디는 베를 촘촘하게 짜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의 재료인 원사를 꼬아 만드는데 사용한 가락바퀴와 실감개 그리고 실물 자료인 천조각이 함께 출토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베틀부속구인 바디는 선사, 고대 유물 중 유일한 것으로 이 시기 베틀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는 고대 신창동 여성들이 직접 천을 생산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로 국내 최초로 직조 생산 도구와 원시적인 베틀의 존재가 신창동에서 확인된 것이다. 즉 신창동에서 발굴된 직물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신창동 유적에서 직접 누에고치나 삼에서 실을 뽑아 베틀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직물을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⁷²



바디 (초기 철기, 길이 77cm, 광주 신창동)

⁷² 바디는 1998년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것으로 고대 신창동 사람들이 베를 직접 생산하였음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베틀은 가운데 바디가 들어간 모습을 복원한 것이다. 바디와 베틀 복원품은 현재 국립 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베틀(가운데 바디가 들어간 모습)

『후한서』 한전, 『삼국지』 한전 등에는 삼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유추할 만한 기록이 다수 보인다. 아래는 관련한 기록이다.

- D-1 : 마한 사람들은 농사와 양잠을 할 줄 알며, 길쌈하여 옷감을 짠다.⁷³
- D-2 : (마한의) 그 백성은 토착생활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꾸는 법을 알고 길쌈하여 옷감을 만들었다.⁷⁴

위의 기록은 마한 사람들이 농경과 양잠을 하였던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길쌈과 옷감을 짜는 일에는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하게 사용되었

⁷³ 『후한서』 85 동이열전75 한, “馬韓人知田蠶 作絲布”.

⁷⁴ 『삼국지』 30 동이전30 한, “其民土著 種植知蠶桑 作綿布”.

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유리왕 9년(기원후 32년)에 6부의 여성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왕녀 두 사람을 각각의 대표로 하여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길쌈을 하여 그 많고 적음을 따져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게 하였다.⁷⁵ 당시 길쌈에 참석하였던 6부의 여인들은 1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밤이 늦어서야 일을 마치는 집단 노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된 결과물은 왕녀가 각각의 지휘를 맡아 진행하였던 국가적인 행사로 마련되어졌다는 점에서 왕실이나 관청의 필요에 충당되었을 것이다. 길쌈 과정에 동원된 여성들이 국가적인 역을 담당하는 주체였다는 것 역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사례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사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이상을 참고하면, 고대 광주 지역 여성은 옷감 재료인 삼을 심고 가꾸고 그것을 실로 만들어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드는 것으로까지 이어졌고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러 견사를 만들고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2점의 직물 조각과 삼씨 등이 출토되었다.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2점의 직물 조각은 하나는 삼베 조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단 조각이다. 삼베 조각은 길이가 약 7.5cm이고 비단 조각은 길이가 약 3.5cm 정도이다. 이들 천 조각은 현재까지 확인된 비단과 마직물 중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라고 한다. 특히 비단 천 조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직물은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생산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비단임을 확인하였다. 발굴된 비단 천 조각은 비단

75 『삼국사기』 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9년, “王既定六部 中分為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 績麻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是時 負家一女子 起舞嘆曰 會蘇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名會蘇曲”.

중에서도 곡(穀)으로 판명되었다. 곡은 실의 수축과 오그라짐을 이용하여 짜여지는데, 만들어진 천은 얇고 고우며 표면이 깔깔하고 신축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곡 종류의 비단으로 한반도에서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⁷⁶ 그런데 신창동 유적에서 비단 천 조각이 발굴되었고, 기원전 1세기경의 산물이라고 하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비단보다 대략 7백 년이나 앞선 셈이다. 한국 직물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의 획기적인 발굴이라고 할 만하다.

삼베가 붙은 토기는 칠을 문히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삼베가 바닥에 붙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삼베 역시도 삼씨의 발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대 신창동 사람들이 삼을 재배하여 삼실을 뽑아, 베틀을 이용하여 직접 삼베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직조활동은 고대 신창동 여성들이 담당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대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직조활동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판은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비단 천 조각, 삼씨, 삼베가 묻어 있는 토기이다.⁷⁷

⁷⁶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157쪽.

⁷⁷ 비단 천 조각, 삼씨, 삼베 묻은 토기는 1998년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것으로 해당 유물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옷감(布)은 오직 자급자족 또는 역을 충당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삼국지』 한전에 소개된 염사착의 고사를 참고하면 옷감이 교환수단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한의 우거수 염사착이 낙랑으로 망명하러 가는 도중에 진한에 억류되어 있던 중국 한나라 사람의 무리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낙랑에 망명하였다. 호래로 대표되는 한인 무리들은 원래 1,500여 명이었는데, 억류되어 일하는 과정에서 5백 명이 죽었다. 진한에서는 낙랑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한사람 5천 명과 변한포 1만 5천 필을 보상으로 내놓았다.⁷⁸ 이때 제공된 변한포는 변한에서 생산된 포를 의미하며 보상의 대

78 『삼국지』 30 동이전30 한, “至王莽地皇時 廉斯鑑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 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鑑曰 我當降漢 樂浪 汝欲去不 戶來曰可 鑑因將戶來 出詣含資縣 …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鑑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가로서 지급된 점을 주목하면 교역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백제 베(布)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주서』에는 백제에서 세금으로 베, 명주, 삼베 및 쌀 등을 그해의 풍흉에 따라 차등있게 바쳤음⁷⁹ 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 『북사』 백제전⁸⁰ 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베(布)가 국가의 중요한 과세 대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길쌈이라고 하는 직조 활동은 여성의 전담이었고, 국가에서도 장려하였다. 신라의 알영은 농업과 양잠을 독려하였다. 또한 신라의 선도산 성모는 하늘의 선녀들에게 비단을 짜게 하고 붉은 물감을 들여 관복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다고 한다. 길쌈과 옷짓기를 관장한 여신의 모습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분야와 그에 대한 장려를 엿볼 수 있다. 여성의 직조 노동에 대한 사례는 고구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08년경에 제작된 고구려의 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름 자체로서 ‘牽牛’는 밭을 갈고 ‘織女’는 베를 짜는 임무를 담고 있다. 견우와 직녀라는 이름 속에는 남녀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쌍영총 벽화에는 베틀이 그려져 있는데, 조선시대의 베틀과 비슷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바디와 직물 조각들을 통해 아주 이른시기부터 광주 지역 여성들이 직조 활동을 통해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작지 개간은 남성이 주도하였지만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여러 가지 일과 거두어들인 곡식을 빻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은 여성의 일

79 『주서』 49 이역열전41 백제,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豐儉 差等輸之”.

80 『북사』 94 열전82 백제,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豐儉 差等輸之”.

었다. 농사일과 여성 고유의 역할인 출산과 육아 외에도 토기 제작, 직조 등은 여성의 몫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져야 했던 사회적 부담은 적지 않았다. 그 중 고대 여성의 일상적인 노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음식만들기일 것이다. 관련하여 고대 광주의 생활유적에서는 부뚜막, 아궁이, 조리에 사용된 일상용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만들기와 여성의 노동력 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안악3호분에 그려진 도상이 있다. 아래는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이다.⁸¹



흙으로 만든 식기

신창동 유적에서는 조리 도구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신석기시대에 성립된 바리모양 토기는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웅, 항아리, 굽다리접시 등으로 기능분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분화는 도작농경의 전파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더욱이 초기 철기시대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추가된다.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식기는 토기와 목기, 칠기로

⁸¹ 토기는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것으로 현재 국립 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구분된다. 토기로는 굽다리접시, 검은간토기, 바리, 대접, 컵형토기, 접시 등이 있다. 목기로는 굽다리접시, 원통모양철기, 칸막이고배, 사각용기, 완, 접시, 굽다리항아리가 있다. 이러한 기종 구성은 이후의 시기에 변화없이 지속된다. 따라서 신창동 유적이 형성된 시기에 이미 오늘날의 식탁 위의 식기의 전 기종이 완성되었다⁸² 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식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조리법도 가능하게 하였다. 철기의 등장과 함께 시루, 솥, 국자와 같은 취사도구와 취사설비의 개량과 보급으로 조리법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시루는 찌는데 사용하고, 옹형토기는 주로 삶거나 끓이는데 사용되었다.⁸³ 다른 조리도구로 밥과 같은 음식을 옮기는 국자가 있다. 조리 도구가 다양하게 구비된 부엌에서 고대 신창동 지역의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루와 조리 방식

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발굴된 조리 도구들을 통해 고대 신창동 여성들은 재료의 씻기, 벗기기, 삶기, 끓이기, 데치기, 찌기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에는 주로 날것으로 먹거나 구워 먹는 방법이였으나, 토기가 등장하면서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조리

⁸²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90쪽.

⁸³ 시루 자료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전시물이다.

법도 가능하게 되었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논 어로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식물성 식량은 채집과 농경을 통해 확보하는 것임에 비해 동물성 식량은 사냥과 어로, 가축 사육을 통해 확보되었다. 신창동 저습지 유적에서는 잉어, 가물치, 송어, 참돔, 가오리류와 넙치류 등의 어류와 재첩, 작은 말조개, 굴 등의 패류가 확인되었다. 논은 벼농사를 위한 생산지이지만, 예전 우리의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논 물고기 잡이도 이루어졌다. 통발과 가리, 자들구, 토제 그물추가 달린 어망을 이용하여 논의 용수로나 방죽에서 붕어와 잉어 등 민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논 어로를 통해 잡는 어류는 논농사의 시작과 함께 논 환경에 적응하여 특징적인 생활 양식을 갖게 된 어류이다. 이와 함께 재첩, 우렁이, 다슬기 등 민물 어패류 등의 채취도 논외의 관개시설, 즉, 수로와 방죽, 보 등지에서 행해졌다. 대체로 농사기간 중 여가를 이용하여 행해진 어로 작업은 농민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창동 여성들 역시도 논 어로의 과정에서 민물 어패류와 같은 것들을 잡아 조리하여 가족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제철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역시도 고대 신창동 여성이 담당하였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신창동 유적의 사람들이 살던 시기의 집은 크게 움집과 고상가옥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움집은 땅을 파낸 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의 틀을 만든 다음 풀로 지붕을 완성한 것이다. 『삼국지』 한전에 “풀로 덮은 지붕이 무덤처럼 생긴 흙집을 만들어 산다”는 기록과 같은 형태의 집으로 볼 수 있다. 움집은 일상적인 거주 공간으로 이곳에서 먹고 자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반면 고상가옥은

기둥을 세우고 바닥면을 지면보다 높게 만들어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마치 원두막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로 창고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⁸⁴



곡식창고 외관



곡식창고 내부

고상 가옥

84 신창동 유적에서 문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편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문짝들을 사용하여 곡식 보관 창고로서 사용되었던 고상가옥 형태를 복원한 것이다. 고상가옥은 현재 국립 광주박물관에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94쪽.

신창동 유적에서는 다양한 생활용구가 출토되었다. 불을 피우는데 사용한 발화구, 청소와 정리에 사용하던 빗자루, 물건을 담아 나르는데 사용된 삼태기와 소쿠리, 벧짚이나 삼으로 만든 끈 등 다양한 생활용구가 출토되었다. 발화구는 발화막대, 발화막대집, 발화대로 구성되며 회전시켜 생기는 마찰열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는 도구이다.⁸⁵ 또 불과 관련된 것으로 관솔이 있다. 송진이 많이 함유된 관솔은 불이 잘 붙고 오래 타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불의 보관과 이동, 등불 등으로 이용되었다. 빗자루는 나뭇가지를 묶어 만든 것으로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싸리나무로 만든 빗자루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 고대 신창동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구 중 일부는 현대 농촌에서 사용하거나 근래 민속품에 보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당시 생활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대 신창동 사람들은 외모를 단정히 하고 꾸미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머리빗, 부채자루, 유리구슬, 귀장식품, 신발 끈, 고깔 등 몸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사용된 생활용품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 모자와 관련된 실물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부채살 모양으로 다듬어진 목제품이 고깔모양의 모자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갈모와 비슷하다.⁸⁶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삼각형 모양의 나무로 만든 모자는 『삼국지』 한전에 삼한 사람들이 고깔 모양의 모자를 쓴다는 자료와도 통하는 부분이다. 부채는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흑칠 부채와 유사하나 부채살이 끼워지는 구멍이 없는 미완성품이며 칠은 바르지 않았다. 빗은 날의 형태상 가늘고 촘촘한 참빗과

85 발화구 자료는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176쪽.

86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108쪽.

성긴 열레빗으로 구분되는데, 신창동에서 출토된 빗은 21~38개의 빗살을 새겨 만든 열레빗에 해당된다.⁸⁷

귀 장식품은 흙, 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신석기시대 동삼동패총의 출토품이나 일본 죠몽의 귀 장식품과 비슷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귀 장식품을 사용하고 있다.⁸⁸ 귀 장식품과 함께 장신구로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기록에 보이는 것처럼 유리구슬은 목걸이를 하거나 옷에 장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 한전에는 삼한인들이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금은과 비단, 수놓은 것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리구슬을 귀하게 여겼던 삼한 사람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귀 장식품



에티오피아 슈마족의 귀 장식품 착용 모습

⁸⁷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108~112쪽.

⁸⁸ 에티오피아 슈마족의 귀 장식품 착용 모습은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114쪽에서 이미지 인용.

영산강에 인접한 고대 신창동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교역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영산강은 수운 교통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강 유역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물산과 강으로 유입되는 선진문물에 의해 일찍부터 교역의 중심지로서 발달해왔다. 신창동 유적이 형성되던 시기 서북한 지역에는 낙랑군이 설치되었다. 또한 서남해안 지역 유적에서는 중국 및 낙랑, 그리고 왜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신창동에서 출토된 철경부동축은 낙랑계 토기와 함께 낙랑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옥으로 만든 제품들로는 해남 군곡리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유리제 관옥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낙랑계 토기, 일본 야요이계 토기가 광주 신창동과 해남 군곡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연대추정이 가능한 중국의 진(秦), 한(漢) 시기의 반량전과 오수전, 신(新)의 화천과 같은 동전이 서남해안 지역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신창동 유적의 사람들은 서남해안 지역과 낙랑 및 중국 그리고 왜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문화적인 발전을 이뤘음을 알 수 있다.

IV 소결

지금까지 선사·고대시대 광주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이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를 유물 및 기록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해당 시기 광주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여성의 삶을 살핀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관련 선행 연구 역시 거의 없었으니 연구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막막할 지경이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량이지만 남겨진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 고대시기 광주 지역에서 살았던 여성의 일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선사와 고대시기 광주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네들의 일상이 어떠했을까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선사시대의 광주 여성은 생존을 위해 어떤 생활을 영위해 나갔을까를 남겨진 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 고대시대에는 여성의 성과 혼인생활, 자녀 양육과 같은 가정생활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여성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선사시대 여성들은 주로 식물을 채집하거나 열매를 따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력을 덜 필요로 하는 종류의 활동을 통해 식량을 마련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갔을 것으로 보았다.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는 대체적으로 남녀간 성별 분업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청동기시대에는 남성의 노동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보좌하는 주변적인 위치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대시기 일반 백성으로서 광주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고 농사일을 하는 남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 혼인의 주체로서 여성은 일상에서 정절을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해 나갔으며 또한 가부장제적인 혼인생활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백제에서는 기혼 여성이 간통죄를 범하면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남편 사망시 부모의 상과 마찬가지로 3년의 상복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가부장제적인 질서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백제의 풍습과 밀접하다. 그런데 무진주의 벼슬아치였던 안길은 그의 처첩을 문무왕의 동생인 거득공과 동침하게 하였다. 안길의 공처 사례는 정절을 강조하였던 백제의 풍습과는 상반되는 사례로 고대사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처첩까지도 뇌물로서 제공하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보여준다. 또한 남성의 지위와 재력에 따라 일부 다처가 가능했던 당시의 혼인 풍습도 보여준다. 특히나 안길의 처첩 중 2명은 남편과 종신토록 해로하지 못하더라도 외간 남성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거절하였는데, 여성의 정절이 강제되었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부여에서는 간통을 한 남녀 모두를 죽였는데 백제에서는 여성을 남편 집의 종으로 삼게했던 점을 참고하면 고대 백제사회에서의 정절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강제된 덕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대시대 광주 지역은 철기의 유입으로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연스레 고도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남성의 노동력이 우선

적으로 적용되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력을 사용하는 강도가 더 낮은 정도의 노동에 투입되었다. 여성은 자녀 양육, 음식 조리, 옷감 짜기와 같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나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베틀부속구인 바디와 실감개, 칠마연용 천, 천조각 등이 출토되었다. 바디는 선사, 고대 유물 중 유일한 것으로 신창동에서 직접 천을 생산했음을 알려준다. 여성 경제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옷감은 자급자족을 위해 또는 역을 충당하거나 교환수단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이렇듯 고대 광주의 여성은 양잠, 직조활동과 관련한 가내 수공업 분야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당연한 고대사회의 일원으로 역할하였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많지 않은 자료이지만 그것들을 토대로 선사, 고대시기 광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선사 및 고대시기까지 광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규명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연구가 이제 막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아직은 선사 및 고대시기 광주 지역의 여성의 삶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추후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더 세련되고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사, 고대시기 광주 여성의 역사를 밝혀 줄 자료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글을 마친다.



■ 제3장

고려시대의 광주 여성

I. 고려시대의 광주

II. 고려시대 기록을 통해 본 광주 여성

III.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

IV.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V. 소결

I 고려시대의 광주

광주는 신라 말 무주(武州) 또는 광주로 불리다가 940년(태조 23)에 광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무주로 불리었던 것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9주 가운데 하나였던 무진주를 무주로 개칭하였으며, 그 치소가 현재의 광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광주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해양현(海陽縣)은 본래 백제의 무진주(武珍州)【노지(奴只)라고도 한다.】로, 신라가 백제를 차지하고 도독을 두었다. 경덕왕 16년(757)에 무주(武州)로 고쳤다. …… 태조 23년(940)에 광주(光州)라고 불렀다. 성종 14년(995)에 자사(刺史)로 강등하였다가, 뒤에 또 해양현령관(海陽縣令官)으로 강등하였다. 고종 46년(1259)에 김인준(金仁俊)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지익주사(知翼州事)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승격시켜 광주목(光州牧)이 되었다.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강등시켜 화평부(化平府)가 되었다. 공민왕 11년(1362)에 무진부(茂珍府)로 고쳤다가【혜종(惠宗)의 이름을 피하여 무(武)를 무(茂)로 고쳤다.】, <공민왕> 22년(1373)에 다시 광주목이 되었다. 별호(別號)는 광산(光山)이며, 또 익양(翼陽)으로 부르기도 한다.⁰¹

01 『高麗史』 권 57, 志 11, 地理 2, 전라도, 해양현.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광주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광주-해양현-익주-광주목-화평부-무진부-광주목으로 바뀌었으며, 광산 또는 익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광주는 백제 때부터 해양현으로 명칭이 바뀔 때까지 주(州)였다. 따라서 995년(성종 14)에 지방제도를 정비할 때 광주에는 자사가 파견되었다. 주는 신라 때부터 군사적인 요충지에 설치한 행정단위였는데, 995년에 파견한 지방관을 보면, 그 등급에 따라 도호부사·절도사·방어사·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광주에 자사가 파견되었던 사실로 보아 광주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983년(성종 2) 12목을 설치할 때 이미 나주나 승주에 비해 그 등급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다. 나주와 승주에 목이 설치된 반면 광주는 주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995년에는 10도제를 실시하였는데,⁰² 이 때 광주는 해양도에 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성종 14년(995)에 전주(瀛州)·순주(淳州)·마주(馬州) 등의 주현(州縣)을 강남도(江南道)로, 나주(羅州)·광주(光州)·정주(靜州)·승주(昇州)·패주(貝州)·담주(潭州)·낭주(朗州) 등의 주현을 해양도(海陽道)로 삼았다. 현종(顯宗) 9년(1018)에 두 도를 합하여 전라도(全羅道)가 되었다. 관할하는 목(領牧)이 2개, 부(府)가 2개, 군(郡)이 18개, 현(縣)이 82개이다.⁰³

02 전국을 關內道·中原道·河南道·江南道·嶺南道·山南道·嶺東道·海陽道·朔方道·溟西道 등 10도로 나눈 것이었다. 물론 이 때의 도는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고 감찰 내지 순찰 구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研究』(韓國研究院, 1977), 42쪽.; 金甲童,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신편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151쪽에서 재인용).

03 『高麗史』 권 57, 志 11, 地理 2, 전라도 연혁.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광주가 나주 등과 함께 해양도에 속했음을 알려준다. 광주의 명칭이 해양으로 바뀐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에 파견된 자사 등이 폐지된 시기는 1005년(목종 8)이었다.⁰⁴ 그러므로 광주의 명칭이 해양으로 바뀐 시기는 전국에 10도제가 시행된 때와 관련이 있겠지만, 광주에 현령관이 파견된 것은 1005년 이후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 지리지 해양현의 연혁에서도 “995년(성종 14)에 자사(刺史)로 강등하였다가, 뒤에 또 해양현령관(海陽縣令官)으로 강등하였다.”라고 하였다.

광주에 현령관이 파견된 시기를 1005년 이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 1018년(현종 9)의 지방제도 개편 때 광주는 현령관이 파견된 해양현으로 나주목에 영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양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으로 읍격의 고하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정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광주의 지위는 1259년(고종 46)에 김인준(金仁俊)의 외향으로서 지익주사(知翼州事)로 승격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259년 익주로 승격된 광주는 그 이후 다시 승격되어 목사를 두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는 화평부로 강등되었다. 강등된 사유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후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이름을 바꿔 무진부(茂珍府)라고 했는데 ‘무(武)’자를 피한 것은 혜종의 휘가 ‘무(武)’자였기 때문이다. 무진부는 1373년(공민왕 22)에는 다시 광주목이 되었다. 광주의 읍호가 바뀔 때마다 행정단위에 변화가 있었고, 그때마다 외관의 지위 또한 현령·지주사·부사·목사 등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광주의 명칭과 읍격의 변화는 지

04 목종 때 지방 관제를 정비하면서 관찰사·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을 폐지하였다.

방 행정 제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고, 때로는 그 명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Ⅱ 고려시대 기록을 통해 본 광주 여성

고려시대 광주 지역에 거주한 성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토성(土姓)과 촌성(村姓),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본현성(本縣姓)과 촌성(村姓)이 광주의 토착적인 성씨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13개의 토성과 1개의 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토성은 탁(卓)·이(李)·김(金)·채(蔡)·노(盧)·장(張)·정(鄭)·박(朴)·진(陳)·허(許)·번(蕃)·성(成)·승(承)씨이고 촌성은 유(庾)씨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2개의 본현성과 1개의 촌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성에서 장(張)씨만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광주지역의 여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헌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는 묘지명(墓誌銘)이다. 묘지명은 일반적으로 한 인물의 이름과 가계, 행적 등을 적어서 무덤에 함께 매장하는 금석문(金石文)을 말한다. 기록하는 재료나 방법은 묘지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기록의 대부분은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생을 밝혀주는 전기적 자료가 된다. 또한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염경애 묘지명⁰⁵

따라서 묘지명을 통해 소수의 광주지역 여성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광산 김씨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더구나 묘지명을 남긴 인물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정치적으로 영달하여 수도인 개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묘지명을 통해 찾아낸 광주지역 여성들도 실제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묘지명을 보면 ‘광주인’, ‘해양인’, ‘광산인’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향을 떠나 개경 등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광주 출신임을 명기하고 있었다. 고려 말에 작성된 「광산현제영시서(光山縣題詠詩序)」등을 보더라도, 이미 본향을 떠나 개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인들도 이 지역 친족집단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⁰⁶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본향출신 인물들을 그 지역 인물로 간주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광주지역을 떠나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

⁰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편인 고려 중기 문신 최루백이 부인 염경애를 기리며 지은 묘지명이다

⁰⁶ 김용섭, 「고려 충렬왕조의 <광산현제영시서>의 분석 -신라 김씨가 관향의 광산지역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72(역사학회, 2001), 58-63쪽.

는 김주정과 김수, 김태현과 그의 자손들이 광주지역의 고려시대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묘지명이나 다른 기록에 ‘광주인’, ‘해양인’ 등으로 기록된 여성들을 통해 광주지역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에서도 광주지역 여성들을 찾을 수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물조, 『고려사』의 열전 등에 일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귀족 가문 출신의 여성들, 남편이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던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광산 김씨와 관련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자료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광산 김씨가 고려 후기에 세족 가문으로 크게 번성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고려시대 광주지역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광주지역과의 관련성을 명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물론 대부분이 귀족 가문의 여성들이고, 광산 김씨와 관련된 여성들이란 면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과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역사 서술을 보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 묘지명을 남긴 여성과 광산 김씨 가문의 여성들

가. 묘지명을 남긴 여성

(1) 익양군부인 김씨⁰⁷

익양군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이부상서 문덕전학사 지제고를 지낸 김상우(金尙佑)⁰⁸와 창원군부인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의 집안은 이름난 가문으로 조부 김품선(金品先)은 우복야에 추증되었으며, 증조부 김연보(金延保)는 현종 때 좌사원외랑에 임명되었고 거란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⁰⁹

익양군부인 김씨와 남매간인 김구부(金龜符)는 문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함문지후와 진주통판, 감찰어사 등을 거쳐 5품인 시형부원외랑이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익양군부인 김씨에게는 김구부 외에 언니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유충 묘지명에 김상우의 둘째 딸이 한유충과 결혼하여 4남 4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한유충의 부인은 김구부의 손위누이로 추정된다. 한유충은 숙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중서시랑문하평장사 태자소사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그는

⁰⁷ '익양군부인 김씨'는 「김상우의 딸 김씨부인 묘지명」(김용선, 『(속)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6), 118-121쪽)과 「김구부 묘지명」(김용선, 앞 책, 45-55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김구부는 부인과 친남매간으로 아버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과 그들이 역임한 관직이 일치한다. 김구부는 1088년(선종 5년)에 태어났고 익양군부인 김씨는 1094년(선종 11년)에 태어났으므로, 부인은 김구부의 누이동생이다(김용선, 「김상우의 딸 김씨부인 묘지명」 해제, 앞 책, 120-121쪽).

⁰⁸ 고려사에는 金尙祐로 기록되어 있다(『高麗史』 권 12, 睿宗 2年 12월 정미일).

⁰⁹ 『高麗史』 권 4, 顯宗 元年 9월.

1144년(인종 22)에는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익양군부인 김씨의 외가도 이름난 가문이었다. 익양군부인의 어머니는 문하시랑 최석(崔奭)의 딸로 창원군부인으로 봉해졌으며, 고려 중기에 활약한 최유청(崔惟淸)과는 남매지간이었다. 외조부 최석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문종 때부터 관직에 진출하여, 벼슬이 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판이·예부사에 이르렀다.¹⁰ 최석은 문종과 선종 때 3차례에 걸쳐 지공거로 과거를 주관하였다. 최유청은 예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는데, 명종 때 수사공 집현전태학사 판예부사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익양군부인 김씨는 사람 됨됨이가 온유하고 침중(沉重)하며 너그려웠다. 사물을 가엾게 여기는 여진 마음과 도리를 지켜 자색과 덕행이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부인은 친숙, 자녀와 손자들을 대할 때 한 번도 귀여워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부인은 1156년(의종 10년) 경성에 있는 경복사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나이가 64세였다.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부인은 1093년에 태어난 셈이다. 익양군부인 김씨는 64세까지 살았고 묘지명에도 ‘친숙아손’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을 하여 자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묘지명에는 남편이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다른 여성들의 묘지명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나. 광산 김씨 가문의 여성들

고려시대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에서 가장 많은 관리를 배출

¹⁰ 『高麗史』 권 99, 列傳 12, 崔惟淸.

한 것은 광산 김씨였다. 광산 김씨는 신라말 신무왕의 왕자로 알려진 흥광(興光)이 무주에 와서 정착한 이후 몇 차례의 부침을 겪었으며, 중간에 금산(나주)과 광양 등지로 이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광산 지역으로 돌아와 광산을 본관으로 일가를 이루었다.¹¹ 광산 김씨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귀족 가문으로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광산 김씨인 김주정의 자손들이 인주 이씨인 이자연의 자손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원 간섭기에는 김태현과 김심 등이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세족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광산 김씨 출신으로 묘지명을 남긴 여성이 해양군대부인 김씨(박윤문의 처), 삼한국대부인 김씨(홍규의 처) 등 2명이 있으며, 광산 김씨 남성과 혼인한 여성으로 묘지명을 남긴 인물이 김원의(金元義)의 처 인씨, 옥구군대부인 고씨(김수의 처), 개성군대부인 왕씨(김태현의 처) 등 3명이 있다. 그리고 김주정의 묘지명과 김태현의 묘지명, 김심의 묘지명 등을 통해 광산 김씨 여성들과 또 광산 김씨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광산 김씨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을 광주지역 여성에 포함시켜 서술해도 되는지 염려스럽다. 하지만 그녀들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광주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소략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므로 함께 살펴보겠다.

(1) 광산 김씨 출신 여성

가) 진□단의 처 김씨(김주정의 큰 딸)¹²

¹¹ 김용섭, 앞 논문, 118쪽.

¹² '진□단의 처 김씨'는 『고려사』의 김주정전(『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과 김주정 묘지명(김용

김씨 부인은 김주정(金周鼎)과 장씨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 김씨 부인의 아버지 김주정은 광주 사람으로 처음에는 문음에 의해 부성 현위가 되었으나,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동지밀직사사와 지도첨의사에 이르렀던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김씨 부인의 조부 김경량은 금오위대장군을 역임하였으며, 증조부 김광세는 상서우복야로 추증되었다. 김씨 부인의 어머니 장씨는 장득구(張得球)의 딸이었다. 장득구는 장덕현(전라북도 고창의 옛 지명) 사호(司戶)를 지냈으며, 정현대부 군부판서 응양군상장군으로 추증되었다. 김씨 부인은 낭장 진□단(陳□端)과 혼인했는데,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나) 윤길손¹³ 처 김씨(김주정의 둘째 딸)¹⁴

김씨 부인은 김주정과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었다. 김씨 부인의 부모와 선조에 대해서는 앞의 '진□단의 처 김씨'에서 서술하였다. 김씨 부인은 장군 윤길손(尹吉孫)과 혼인하였다. 윤길손의 아버지 윤수(尹秀)는 벼슬이 군부판서 응양군 상호군에 이르렀는데, 칠월 유씨가 세족 가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즉 윤수가 충렬왕 때

선, 「김주정 묘지명」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 652-656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김주정 묘지명」은 현재 『光山金氏族譜』(광주, 1934)에 기재되어 있는데 묘지의 발견 장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며, 결락(缺落)된 부분이 많다(김용선, 「新資料 高麗 墓誌銘 17點」 『역사학보』 117, 1988, 144쪽). 김주정의 큰 사위 이름도 가운데 글자가 빠져있어 부득이 '진□단'이라고 하였다.

¹³ 김주정의 묘지명에는 윤□손이라고 되어 있다(김용선, 「김주정 묘지명」, 앞 책, 655쪽). 윤□손은 윤수의 아들인데, 『고려사』에서 윤수의 아들이 윤길손과 윤길보라고 하였다(『高麗史』 권 124, 列傳 37, 嬖幸 2, 尹秀). 따라서 김씨 부인의 남편은 윤길손이라고 생각된다.

¹⁴ '윤길손의 처 김씨'는 『고려사』의 김주정전(앞 책)과 윤수전(앞 책), 김주정 묘지명(앞 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에 응방사로 활동하면서 국왕의 측근세력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의 손자 윤환(尹桓)¹⁵이 공민왕 때에 시중을 역임하면서 세족 가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⁶ 윤길손의 조부 윤양삼(尹養三)은 막된 행동을 하다가 강도(江都)의 저자거리에서 처형당하였고, 그 지역은 양삼기(養三歧)라고 불렀다 한다.

다) 익양군부인 김씨¹⁷ (안목 처 김씨, 김태현의 큰 딸)¹⁸

익양군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김태현과 개성군대부인 왕씨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¹⁹ 부인의 아버지 김태현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이 첨의중찬 수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판전리사사에 이르렀다. 조부 김수는 벼슬이 참지정사 집현전태학사 판예부사에 이르렀으며 후일 문하시중으로 추증되었다. 증조부 김경량은 금오위대장군을 역임하고 문하평장사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효은태자의 후손인 왕정조의 딸이었다.

익양군부인 김씨는 안목(安牧)과 혼인하였는데, 그는 순흥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이 밀직부사에 이르렀고 공민왕 때에 순흥군

15 윤환은 윤길손의 동생인 윤길보의 아들이다. 윤수와 윤길보의 열전이 폐행(嬖幸)에 실려 있는 것과 달리 윤환은 재신(諸臣)에 실려 있다(『高麗史』 권 114, 列傳 27, 尹桓).

16 金光哲,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신편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73쪽.

17 김태현의 큰 딸로 안목과 혼인하였는데, 익양군부인으로 봉해졌다(김용선, 「김태현 묘지명」, 앞 책, 802쪽). 김상우의 딸 김씨도 익양군부인으로 봉해졌는데, 익양은 광주의 별호이다.

18 '익양군부인 김씨'는 「김태현 묘지명」(김용선, 앞 책, 793-803쪽)과 「김광재 묘지명」(김용선, 같은 책, 981-988쪽), 『고려사』의 안목전(『高麗史』 권 105, 列傳 18, 安珮 附 安牧)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9 익양군부인 김씨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는 이 글의 '3)광산 김씨 가문으로 시집온 여성 라) 김태현의 처'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겠다.

에 책봉되었다. 안목은 충혜왕의 비 덕녕공주(德寧公主)가 1348년(충목왕 4)에 안목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모든 업무를 처리할²⁰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안목의 아버지 안우기(安于器)는 충렬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밀직부사 겸 대사헌 등을 거쳐 검교찬성사에 이르렀던 인물이다.²¹ 조부 안향(安珦)은 유학을 중흥시킨 공으로 공자묘에 배향되었으며, 문성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증조부 안부(安孚)는 밀직부사로 물러났는데, 후에 문하시중으로 추증되었다. 안부는 흥주(興州)의 아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밀직부사에 이르렀고, 안향과 안우기, 안목까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세족 가문으로 성장하였다.²²

익양군부인 김씨는 안목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안원승은 군부판서 진현관이 되었으며, 딸은 봉익대부 우상시 민유(閔楡)와 혼인하였다.

라) 해양군대부인 김씨(박윤문 처, 김태현의 둘째 딸)²³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김태현과 개성군대부인 왕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대부인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니 익양군부인에서 서술하였다.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박윤문(朴允文)과 혼인하였다. 박윤문은 기거

20 『高麗史』 권 37, 忠穆王 4년 10월 계유일.

21 『高麗史』 권 105, 列傳 18, 安珦 附 安于器; 김용선, 「안우기 묘지명」, 앞 책, 782-784쪽.

22 魏恩淑, 「농장의 성립과 구조」 『신편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249쪽.

23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박윤문 처 김씨 묘지명」(김용선, 앞 책, 1022-1025쪽)과 「김태현 묘지명」(김용선, 앞 책, 793-803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박윤문의 처 김씨 묘지명은 있지만 남편인 박윤문의 묘지명은 찾지 못하였다.

랑과 밀직사우대언 좌사의대부 등을 역임하였다. 만기보에 의하면 박윤문의 아버지 박원(朴元)은 관직이 판전교사에 이르렀고 밀성군에 봉해졌다. 조부 박성진(朴成進)은 정용장군을 역임하였으며, 증조부는 박척(朴陟)이었다.

해양군대부인 김씨와 박윤문은 다섯 아들을 두었다. 대부인 김씨는 1374년(공민왕 23)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큰 아들 박밀양(朴密陽)은 봉순대부 판전교시사이고, 둘째 아들 박대양(朴大陽)은 봉익대부 전법판서 보문각제학 상호군이였다. 셋째 아들 박소양(朴紹陽)은 성균시에 합격한 후 원에 유학갔는데, 운남에 사신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넷째 아들 박삼양(朴三陽)은 정언에 임명되었다가 계림의 수령으로 나갔다. 다섯째 아들 박계양(朴啓陽)은 증정대부 비서감을 역임하였다.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천성이 온순하고 정숙하였으며, 박윤문과 혼인한 이후에도 부도를 닦아서 세족의 귀한 몸으로써 털끝만큼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남편 박윤문의 가문이 대부인 김씨의 집안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남편 박윤문도 예를 좋아하는 군자였으므로 평소에도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듯 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표현은 부부가 서로 공경했다는 의미 외에 서로 손님처럼 거리감이 있었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대부인 김씨는 1361년(공민왕 10)에 흥건적이 쳐들어 왔을 때 남편 박윤문과 함께 밀성(경상남도 밀양시의 옛 지명)으로 피란갔다가, 밀성에서 1374년(공민왕 23)에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73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렸으며, 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해마

다 국가로부터 녹을 받았다.²⁴

마) 오침(吳瞻) 처 김씨(김심의 큰 딸)²⁵

김씨 부인은 김심(金深)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심은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충렬왕 때 독로화(禿魯花, 툴루게)로서 원에 들어가서 낭장이 되었으며, 밀직부사, 찬성사 등을 역임하고 화평부원군에 봉해졌다. 부인의 조부 김주정은 벼슬이 동지밀직사사와 지도첨의사 등에 이르렀으며, 증조부 김경량은 금오위 대장군을 역임하였다. 김씨 부인의 어머니는 변한국부인 왕씨이다.

김씨 부인은 오침과 혼인하였는데, 오침은 선수 현정장군 전라도진 변만호 정순대부 판통례문사(宣授 顯正將軍 全羅道鎭邊萬戶 正順大夫 判通禮門事)를 역임하였다. 김씨 부인과 오침의 자녀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바) 원 인종의 달마실리(達麻實里, 다마시리) 황후(김심의 둘째 딸)²⁶

24 「김광재 묘지명」(김용선, 앞 책, 983쪽)에서 “공의 형제 세 명이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대부인(개성군 대부인 왕씨)이 나라에서 주는 녹을 평생 받았는데, 박씨의 아들 네 명과 안씨의 손자 세 명이 모두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고 하였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김태현의 처로 김광재의 어머니이며, 박씨의 아들 네 명은 해양군대부인과 박윤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한다. 그리고 안씨의 손자 세 명은 익양군부인 김씨와 안목의 손자들이다.

25 ‘오침의 처 김씨’는 김심의 열전(『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 附 金深)과 「김심 묘지명」(김용선, 앞 책, 849-855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6 ‘원 인종의 달마실리 황후’는 김심의 열전(『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 附 金深)과 「김심 묘지명」(김용선, 앞 책, 849-855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달마실리 황후는 김심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앞의 오침과 혼인한 김씨 부인의 동생이다. 달마실리 황후는 처음에 공녀로 원(元)에 가서 인종의 비가 되었으며 태정제 때에 황후로 봉해졌다.²⁷ 이는 고려사에

낭장 이자성(李自成)이 원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황제께서 우리 화평군(化平君) 김심(金深)의 딸 달마실리(達麻實里)를 황후로 책봉하셨다.”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김심의 딸은 원 인종황제의 편비(偏妃)가 되었다.²⁸

라고 하여, 충숙왕 15년 4월에 낭장 이자성이 원에서 돌아와 김심의 딸이 황후로 책봉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1275년(충렬왕 원)에 원의 세조가 고려의 여자를 요구한 이후 공민왕 초기 까지 약 80년 동안 수많은 여자를 원(元)으로 보내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원으로 보낸 처녀진공사의 왕래회수가 50회를 넘는다. 공녀는 고려가 몽고로부터 받은 가장 치욕적인 일 중의 하나로서, 종실을 위시한 지배층으로부터 일반 양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이 원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다. 지배층 출신의 공녀들은 후비 및 고급관인의 배우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심의 딸인 달마실리 황후이다.

달마실리 황후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남겨진 기록을 찾지 못했지만, 김심 일가가 세력을 확대하는 데는 그녀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高柄翊, 「元과의 關係의 變遷」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434쪽.

28 『高麗史』 권 35, 忠肅王 15년 4월 무술일.

사) 단양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²⁹의 비 복안옹주(김심의 셋째 딸)³⁰

복안옹주(福安翁主)는 김심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김심의 묘지명에서 복안옹주는 종실인 단양부원군 왕후와 혼인하였다고 했는데, 왕후는 단양부원대군이나 단양대군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³¹ 1310년(충선왕 2)에 “왕후(王瑀)를 단양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으로 임명했다.”³² 라는 기사가 있고, 1316년(충숙왕 3)에도 “왕후(王瑀)를 단양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으로 임명했다.”³³ 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320년(충숙왕 7)에 “단양대군 왕후를 원으로 파견하여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였다.”³⁴ 라는 기사가 있다. 따라서 왕후는 단양부원군이 아니라 단양부원대군, 또는 단양대군이라고 해야 한다.

단양부원대군 왕후의 아버지는 강양공(江陽公) 왕자(王滋)이다. 강양공 왕자는 충렬왕과 정신부주(貞信府主) 사이에서 태어났다. 강양공은 충렬왕의 장자였으나 원나라 세조의 친딸인 제국공주에게서 태어난 동생 충선왕에게 고려국왕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물이다.³⁵

29 「김심 묘지명」(김용선, 앞 책, 853쪽)에서는 단양부원군이라고 되어 있으나 단양부원대군이라고 해야 한다. 그 까닭은 본문에서 서술하겠다.

30 ‘단양부원대군의 비 복안옹주’는 김심의 열전(『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 附 金深)과 「김심 묘지명」(김용선, 앞 책, 849-855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31 단양부원군은 우현보이다(『高麗史』 권 115, 列傳 28, 禹賢寶).

32 『高麗史』 권 33, 忠宣王 2년 9월 을유일.

33 『高麗史』 권 34, 忠肅王 3년 4월 정해일.

34 『高麗史』 권 35, 忠肅王 7년 6월 기사일.

35 장동익·김구진, 앞 논문, 311쪽.

고려사에 의하면 “강양공 왕자(王滋)가 장남이었지만 공주 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자로 세울 수 없었다. 1279년(충렬왕 5)에 왕자를 충청도 아주(牙州)의 동심사(東深寺)에 보내어 세자 책봉을 피하게 하였다. 1283년(충렬왕 9)에 불러들여 공주가 옷을 하사하였다. 뒤에 공(公)으로 봉해주고, 부(府)를 열어 관속을 두게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죽었고, 아들은 왕후(王珣)·왕호(王勳)·왕훈(王墳)이 있다.”³⁶ 라고 하였다. 강양공 왕자의 어머니는 종실인 시안공(始安公) 왕인(王綱)의 딸이었다.³⁷

복안옹주와 단양부원대군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고려사에 “왕후의 아들은 양원군(陽原君)에 봉해졌지만, 사서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고, 원에서 벼슬하여 어사(御史)가 되었다.”³⁸ 라는 기록이 있지만 복안옹주의 소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 안동(安董)의 처 경녕택주(敬寧宅主)(김심의 넷째 딸)³⁹

경녕택주는 김심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다. 경녕택주는 안동과 혼인하였는데, 안동은 대도유수(大都留守)를 지낸 인물이다. 안동은 원의 수도인 대도에서 유수를 역임한 것으로 보이거나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36 『高麗史』 권 91, 列傳 4, 宗室, 忠烈王 王子 江陽公 王滋.

37 『高麗史』 권 89, 列傳 2, 后妃, 忠烈王 后妃 貞信府主.

38 『高麗史』 권 91, 列傳 4, 宗室, 忠烈王 王子 江陽公 王滋 附 丹陽府院大君 王珣.

39 ‘안동의 처 경녕택주’는 김심의 열전(『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 附 金深)과 『김심 묘지명』(김용선, 앞 책, 849-855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자) 최한(崔漢)의 처 김씨(김심의 딸)⁴⁰

김씨 부인은 김심의 딸인데 어머니는 분명하지 않다. 김심의 묘지명에 “이에 앞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사재주부(司宰注簿) 최한에게 시집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씨 부인과 최한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차) 삼한국대부인 김씨(홍규 처)⁴¹

삼한국대부인⁴²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참지정사 김련(金鍊)⁴³ 과 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대장군 김평(金坪)이었으며, 증조부는 참지정사 김원의(金元義)였다. 어머니 유씨는 추밀원좌부승지 유흥(庾弘)의 딸이었다.

삼한국대부인 김씨는 홍규(洪奎)와 혼인하였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다. 홍규는 처음 권무로 벼슬을 시작하여 건릉행수와 어사중승 등

40 ‘최한의 처 김씨’는 김심의 열전(『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 附 金深)과 「김심 묘지명」(김용선, 앞 책, 849-855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41 ‘삼한국대부인 김씨’는 「홍규 처 김씨 묘지명」(김용선, 앞 책, 860-861쪽), 「홍규 묘지명」(김용선, 같은 책, 713-719쪽)과 고려사의 김지숙전(『高麗史』 권 108, 列傳 21, 金之淑, 홍규전(『高麗史』 권 106, 列傳 19, 洪奎)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김지숙은 삼한국대부인 김씨와 형제간이다.

42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남편인 홍규의 묘지명에는 ‘광주군대부인(光州郡大夫夫人) 김씨’로 기록되어 있다(김용선, 「홍규 묘지명」, 앞 책, 717쪽). 김태현 묘지명에 그의 어머니 옥주군대부인 고씨가 102세로 작고하자 특별히 변한국대부인으로 추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김용선, 「김태현 묘지명」, 같은 책, 799쪽). 따라서 삼한국대부인 김씨도 남편인 홍규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광주군대부인이었으나 그 후에 삼한국대부인으로 추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3 광주 김씨는 경량(鏡亮)과 련(鍊)의 가계가 세족이 되었다(金光哲, 앞 논문, 74쪽)라고 했는데, 광주 김씨는 광산 김씨이다.

을 거쳐 추밀원부사로 승진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 때 나이가 40세도 되기 전이었다. 충선왕이 즉위한 1308년에는 익성군에 봉해졌고, 1314년(충숙왕 1)에는 추성진력안정공신 삼중대광 남양부원군으로 봉해진 인물이다. 충선왕의 후비인 순화원비 홍씨와 충숙왕비 명덕태후 홍씨가 홍규의 딸이며, 명덕태후 홍씨는 충혜왕과 공민왕의 어머니이다.

홍규는 1316년(충숙왕 3) 7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양부(침의부와 밀직사)가 역마를 달려 장례일을 알리고 왕명을 얻어 장례를 치렀으며, 시호를 광정공(匡定公)이라고 추증하였다.

홍규의 아버지 홍진(洪縉)은 동지추밀원사 형부상서 한림학사를 지냈고, 조부 홍사윤(洪斯胤)은 벼슬이 추밀원사 공부상서에 이르렀다. 그의 증조부 홍원중(洪源中)은 성불도감판관을 역임하였다. 어머니는 창원군부인 최씨였다. 홍규의 친가와 외가는 묘지명에서 ‘의관갑족’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름난 가문이었다.

삼한국대부인 김씨와 홍규는 1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큰 아들 홍용은 무덕장군 전라진변만호 대광 삼사사를 역임하였으며, 나유(羅裕)⁴⁴의 딸과 혼인하였다.⁴⁵ 대부인의 큰 딸은 원의 좌승상 아흘대(阿忽台)⁴⁶에게 시집갔는데, 충렬왕 때 제국공주의 미움을 받아 혼인하게

44 나유는 용한(勇悍)이 뛰어나서 일본정벌에서 공을 세우고, 함포 만호부의 만호로서 출진(出鎭)하는 과정에서 출세하여 재상이 되고, 가문을 크게 일으킨 인물이다(민현구, 「高麗後期の 權門世族」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74), 26쪽).

45 홍용의 배우자는 홍규의 묘지명이나 홍규의 처 김씨 묘지명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홍언박신도비」에 나유의 딸이라고 되어 있다(『韓國文集叢刊』3, (民族文化推進會 編, 1990). 「홍언박신도비」는 백문보(白文寶)의 문집 『담암일집(淡庵逸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백문보가 작성했으나, 작성 연대는 미상이다. 또한 내용도 극히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다.

46 「홍규 묘지명」(김용선, 같은 책, 717쪽)에는 ‘중국 좌승상 아고알(阿高歹)’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규의 딸은 충렬왕 때 원의 황제에게 바칠 처녀로 선발되었는데, 홍규는 뇌물을 바치고 딸을 빼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홍규가 딸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만들었다. 제국 공주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홍규와 그 딸을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으며, 재산을 적몰한 후 홍규를 해도로 유배하였다.⁴⁷ 당시 김방경과 홍자번 등의 요청으로 홍규는 겨우 가산을 돌려받고, 해를 넘겨서야 유배지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제국공주가 홍규의 딸을 원 사신 아홀대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혼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 대부인의 큰 딸과 아홀대는 2남의 자녀를 두었는데, 별리기보화는 어사대부가 되었고, 자당은 동지휘정원사가 되어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둘째 딸 홍씨는 정해(鄭璫)와 혼인하였다. 셋째 딸은 충선왕과 혼인한 현비 즉 순화원비 홍씨이다.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넷째 딸 홍씨는 원충(元忠)과 혼인하여 3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대부인의 사위 원충은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원의 수도에서 충선왕을 모셨으며, 예빈내급사와 밀직사 첨의평리, 찬성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추성좌리공신의 칭호를 받았다.⁴⁸

아고대(阿古大, 『高麗史』 권 30, 충렬왕 15년 3월 경인일; 『高麗史節要』 권 21, 충렬왕 15년 3월)와 아홀대(阿忽台, 『高麗史』 권 32, 충렬왕 32년 11월; 『高麗史』 권 33, 충선왕 즉위년 8월 임신일; 『高麗史』 권 125, 列傳 38, 姦臣, 王惟紹)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홍규 처 김씨 묘지명」(김용선, 앞 책, 861쪽)에 의거하여 아홀대로 하겠다.

47 홍규가 해도로 귀양간 것은 충렬왕 14년 11월이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충렬왕 14년 11월에 “전 추밀원부사 홍문계를 섬으로 유배 보내었다. …(중략)… 중찬으로 치사한 김방경 역시 병을 무릅쓰고 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고 끝내 그를 유배 보내었다. 이후 며칠 동안 홍자번이 힘써 간청하였으므로 가산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여 후에 몽고의 아고대가 오자 그의 딸을 아고대에게 하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高麗史節要』 권 21, 충렬왕 14년 11월).

48 김용선, 「원충 묘지명」, 앞 책, 836-841쪽; 『高麗史』 권 107, 列傳 20, 元傳 附 元忠; 김용선, 「원부 묘지명」, 앞 책, 647-651쪽; 『高麗史』 권 107, 列傳 20, 元傳.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다섯째 딸은 충숙왕과 혼인한 덕비 즉 명덕태후 홍씨로 충혜왕과 공민왕을 낳았다. 명덕태후 홍씨는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났으며, 단정하고 신중한 성품이었다. 궁궐에서도 행동이 예법을 따르므로 충숙왕이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1315년(충숙왕 2)에 아들 왕정(王禎)을 낳으니 백관이 하례하였는데 이가 충혜왕(忠惠王)이고, 또 공민왕(恭愍王)도 낳았다.⁴⁹

삼한국대부인 김씨는 1339년(충숙왕 복위 8)에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선량하고 현명하였으며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하고 몸가짐이 예의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아내로서의 도리를 갖추었고 어머니의 법도를 잘 지켜, 가법을 논하는 자들이 으뜸이라고 칭찬하였다 한다. 대부인 김씨는 처음에 광주군대부인으로 봉해져 있었으나, 삼한국대부인으로 봉작이 바뀌었다. 남편인 홍규가 세상을 떠난 1316년(충숙왕 3)에는 광주군대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인의 묘지명에는 삼한국대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광산 김씨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

가) 김원의(金元義) 처 인씨

인씨 부인은 인영보(印榮寶)⁵⁰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인영보는 좌우위대장군을 역임하였는데, 그 외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인씨 부인은 김원의와 혼인하였는데, 김원의는 광주 사람으로 김위(金位)와

49 『高麗史』 권 89, 列傳 2, 后妃, 忠肅王 后妃 明德太后 洪氏.

50 『김원의 묘지명』(김용선, 앞 책, 634쪽 주1)에는 '英寶'라고 되어 있다.

유씨(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관직이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상장군 판병부사에 이르렀으며, 아버지 김위는 수사공 좌복야로 추증되었다.⁵¹ 그의 어머니는 김원의가 재상의 지위에 이른 후에 승화군 대부인(承化郡大夫人)에 봉해졌다고 한다.

인씨 부인과 김원의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김공수(金公粹)는 진사에 급제하여 내시 감문위녹사참군사 겸 직한림원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무반이 되어 숙위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딸은 감문위상장군을 지낸 유창서(劉昌緒)와 혼인하였는데, 자녀로는 중서문하평장사 상장군을 역임하였던 채정(蔡楨)과 혼인한 딸이 기록에 남아있다.⁵²

나) 김주정의 처

1) 상질현대부인 장씨⁵³

상질현대부인 장씨는 상질현(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의 옛 지명) 사람으로 정현대부 군부판서 응양군상장군에 추증된 장득구의 딸이다. 장득구는 장덕현(전라북도 고창의 옛 지명) 사호(司戶)를 지냈으며, 정현대부 군부판서 응양군상장군으로 추증되었던 인물이다. 대부인 장씨는 김주정과 혼인하였는데, 김주정에 대해서는 앞의 '광산 김씨 출신

⁵¹ 김원의는 이의민 제거 직후 장군으로서 급사중을 겸임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최충헌의 이의민 제거에 협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위가 역임한 실질적인 관직은 알 수 없지만, 수사공좌복야에 추증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상당한 관직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金塘澤,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신편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52쪽).

⁵² 김용선, 「채인규 묘지명」, 앞 책, 680-681쪽.

⁵³ '상질현대부인 장씨'는 「김주정 묘지명」(김용선, 앞 책, 652-656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여성'에서 살펴보았다.

상질현대부인 장씨와 김주정은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김심은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밀직부사와 찬성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화평부원군에 봉해졌다. 대부인 장씨는 아들인 김심이 귀하게 되자 상질현대부인에 봉해졌다고 한다.⁵⁴ 대부인 장씨의 큰 딸이 낭장 진□단과, 둘째 딸이 윤길손과 혼인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2) 김주정의 처 김씨⁵⁵

김씨 부인은 찬성사 김련(金璉)의 딸로 태어나 김주정과 혼인하였다. 부인과 김주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가(金珮)는 □녹사⁵⁶를 역임하였다.

3) 김주정의 처 이씨⁵⁷

이씨 부인은 판함문사 이신손(李信孫)의 딸로 태어나 김주정과 혼인하였다. 이씨 부인의 아버지 이신손은 상서좌승과 좌우승선, 판함문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부 이순목(李淳牧)은 함주의 향리 출신으로 글을 잘 지어 한때 명성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이순목은 과거에 급제하여 금성관기와 직한림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최이(崔怡)가 그 재주를 아끼어 보문각대제와 판비서성사 등을 제수하였던 인물이다. 또 최항(崔沆)이 집

⁵⁴ 김용선, 「김심 묘지명」, 앞 책, 849-850쪽.

⁵⁵ '김주정의 처 김씨'는 「김주정 묘지명」(김용선, 앞 책, 652-656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⁵⁶ 김가의 관직은 「김주정 묘지명」에 앞부분이 빠져있어 '□녹사'라고 하였다. 「김주정 묘지명」이 결락(缺落)된 부분이 많다(김용선, 「新資料 高麗 墓誌銘 17點」 『역사학보』117, 1988, 144쪽)는 사실은 앞의 '진□단의 처 김씨(김주정의 큰 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⁵⁷ '김주정의 처 이씨'는 「김주정 묘지명」(김용선, 앞 책, 652-656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정이 되어 스승이었던 이순목을 상서좌복야로 발탁하였는데,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다.⁵⁸ 그동안 이순목은 무신집권기에 향리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대표적인 문신으로 이해되어 왔던 인물이다. 이씨 부인과 김주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 옥구군대부인 고씨(김수의 처)⁵⁹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1226년(고종 13) 조청대부 예빈경으로 은퇴한 고정(高倜)과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동궁시강학사 예빈경 지제고를 지낸 고영중이었으며, 증조부는 문림랑 감찰어사를 역임한 고세재⁶⁰였다. 어머니 조씨는 우간의대부 국자감대사성 한림시강학사 지제고를 지낸 조통의 딸이었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김수와 혼인하였다. 김수는 해양군(광주광역시)의 고려시대 지명) 사람으로 벼슬이 참지정사 집현전태학사 판예부사에 이르렀다. 김수의 아버지 김경량은 조청대부 금오위대장군을 역임하였고, 조부 김광세는 상서우복야에 증조부 김위는 상서령에 추증되었다.⁶¹

옥구군대부인 고씨에게는 김태일과 김태현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

58 『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淳牧.

59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김수 처 고씨 묘지명」(김용선, 앞 책, 775-778쪽)과 「김태현 묘지명」(김용선, 앞 책, 793-803쪽)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60 옥구군대부인 고씨의 조부인 「고영중 묘지명」(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 455쪽)에는 고돈검으로 되어 있다.

61 김수의 부와 조부, 증조부에 관한 기록은 김수의 동생인 「김주정 묘지명」(김용선, 앞 책, 652쪽)을 참고하였다. 김수의 처인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현재 묘지명이 남아 있으나, 남편 김수의 묘지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들 김태일은 관직이 신호위녹사참군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 김태현은 1327년(충숙 14) 벽상삼한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관 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판전리사사로 은퇴하였는데, 이 때 옥구군 대부인이 102세로 돌아가시니 특별히 변한국대부인을 추증하였다.

옥구군대부인 고씨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325년(충숙 12)에는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하여 국가로부터 해마다 30석의 곡식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 100세를 넘겨 살았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대부인은 눈도 밝고 귀도 밝았으며 건강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았다고 한다. 이제현은 묘지명에서 “대부인이 「홍범」의 오복(五福) 중에서 세 가지나 누렸다.”라고 표현하였다. 「홍범」은 『서경』의 한편으로, 오복은 장수(壽)와 부(富), 건강(康寧), 덕을 좋아함(攸好德), 천명을 누리고 죽는 것(考終命)을 뜻하는데, 부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아니라 오복을 다 누렸다고 해도 될 듯하다.

라) 김태현(金台鉉)의 처

1) 김태현의 처 김씨⁶²

김태현의 첫 번째 부인인 김씨는 좌우위낭장 김의(金儀)⁶³의 딸이었

⁶² '김태현의 처 김씨'는 「김태현 묘지명」(김용선, 앞 책, 793-803쪽)과 「김광재 묘지명」(김용선, 앞 책, 981-988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⁶³ 김태현의 묘지명에는 '좌우위낭장'으로, 김태현의 아들인 김광재의 묘지명에는 '행수낭장'이라고 되어 있다. 낭장은 고려시대 정6품 무관직이다. 행수는 하급 부대 지휘관의 호칭으로 낭장(郎長)·별장(別將)·산원(散員) 등의 무장들이 주로 이에 보임되었는데, 대체로 중금(中禁)·견룡(牽籠) 등의 금군(禁軍)에 배속되었다. 특히 견룡군 소속의 행수는 직위는 낮지만 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으므로 권세가의 자제들이 갈망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좌우위낭장이었던 김의가 김광재의 묘지명을 작성할 때 행수에 보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김의는 1152년(의종 6)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부인의 남편인 김태현은 광산(광주광역시)의 고려시대 지명) 사람으로 1261년(원종 2)에 김수와 옥구군대부인 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태현은 15세에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276년(충렬 2)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1327년(충숙 14)에 첨의중찬 수문관 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판전리사사로 물러났다. 김태현의 아버지 김수는 벼슬이 참지정사 집현전대학사 판예부사에 이르렀으며 후일 문하시중으로 추증되었다. 조부인 김경량은 금오위대장군을 역임하고 문하평장사에 추증되었으며, 증조부 김광세는 신호위중랑장을 역임하고 상서좌복야로 추증되었다.

김씨 부인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부인이 낳은 큰 아들 김광식은 1294년(충렬 20)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이 총부의랑⁶⁴에 이르렀으나, 일찍 사망하여 슬하에 자식은 없다.

2) 개성군대부인 왕씨⁶⁵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1266년(원종 7)에 추밀원사 호부상서 한림학

64 김광재 묘지명에는 선부의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 후기의 관부의 개편과 관련이 있다.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병부(尙書兵部)를 군부사(軍簿司)로 고쳤다가 뒤에 병조로 고쳤으며, 1308년에 다시 병조와 전조(鎗曹)·의조(儀曹)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로 하였고, 충선왕 때 선부에서 병조가 분리되어 총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관원으로는 상서(尙書)를 두고 그 아래 의랑(議郎)·직랑(直郎)·산랑(散郎)을 두었다.

65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김태현 처 왕씨 묘지명」(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과 「김태현 묘지명」(김용선, 앞 책, 793-803쪽)과 「김광재 묘지명」(김용선, 앞 책, 981-988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묘지명에서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김태현 처 왕씨 묘지명」을 따랐다.

사승지로 추증된 왕정조(王丁朝)⁶⁶ 와 금마군부인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부 왕근(王覲)은 태조의 11세손⁶⁷ 으로 조청대부 예빈경을 역임 하였던 인물이다. 어머니 금마군부인 이씨는 좌사간 지제고를 지낸 이 서춘(李瑞春)의 딸이었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14세에 김태현과 혼인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다. 김태현의 첫 번째 부인인 김씨가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김태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개성군대부인 왕씨와 김태현은 3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인 김광철(金光轍)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후 밀직사로 화평군에 봉해졌다. 김광철은 첨의찬성사 원관(元瓘)⁶⁸ 의 딸과 혼인하였다. 둘째 아들 김광재(金光載)⁶⁹ 는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삼사우사 겸 전리판서로 물러났다. 김광재는 증서평장사 김승택(金承澤)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김승택은 안동 사람으로 벼슬이 증서평장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양간(良簡)이다. 셋째 아들 광로는 급제한 후 벼슬이 가안부 녹사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어 자녀가 없다. 정당문학 예문관대제학을

66 개성군대부인 왕씨의 딸로 박윤문과 결혼한 해양군대부인 김씨의 묘지명에는 '왕정조'로, 남편인 김태현의 묘지명과 아들 김광재의 묘지명에는 '왕정단(王丁旦)'으로 되어 있다.

67 김광재의 묘지명과 해양군대부인 김씨의 묘지명에는 효은태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다.

68 「김광철 묘지명」(김용선, 『(속)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6), 232-240쪽)에는 '元瓘'으로 되어 있지만, 원관 묘지명에는 '元瓘'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묘지명을 따르겠다.

69 김광재는 효심이 지극했던 것 같다. 고려사에 "김광재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예를 다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여묘살이로 상제(喪制)를 마쳤으며 제사를 지낼 때 마다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상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어 타이르며 말하기를, 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만나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김광재는 그때 병들어 있었는데 부축을 받고 들어가 말현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이와 얼굴은 심하게 노쇠하지 않았는데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탄식하고 애석해 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그가 사는 곳에 정표(旌表)를 세워 '영창방 효자리(靈昌坊孝子里)'라고 하고, 그 마을의 약간 호(戶)의 조세를 면제하여 그를 봉양하게 하였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高麗史』 권 110, 列傳 23, 金台鉉 附 金光載).

지낸 안목(安牧)과 혼인한 대부인의 큰 딸과 밀직사우대언 좌사의대부를 역임한 박윤문(朴允文)과 혼인한 둘째 딸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1356년(공민왕 5)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해마다 곡식을 받았으며, 자손들이 번창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마) 김광철의 처 원씨

원씨 부인은 찬성사 원관의 딸로 평원군(平原郡)에 봉해졌으며, 김광철과의 사이에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다. 원씨 부인의 아버지 원관은 원주 사람으로 처음에는 문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첨의찬성사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원씨 부인의 조부 원부는 충렬왕 때의 정승으로 첨의중찬이었으며, 증조부 원진은 추밀원부사로 추증되었다.

원씨 부인의 큰 아들 김승조는 천우위 해령별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김회조는 성균시에 합격하여 충용위 호분별장이 되었다. 큰 딸은 개성 소윤 최충손(崔冲孫)⁷⁰ 과 혼인하였으며, 둘째 딸은 함포만호 현성군 권용(權鏞)과 혼인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권용은 함포진변만호와 밀직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충숙왕비 수비(壽妃)와는 형제간이었다. 셋째 딸은 병부원외랑 유혜부(柳蕙符)⁷¹ 와 혼인하였으며, 넷째 딸은 승

⁷⁰ 「김광철 묘지명」에는 '資瞻副使 崔仲孫'으로, 「김태현 처 왕씨 묘지명」에는 '開城少尹 崔冲孫'으로 되어 있다.

⁷¹ 「김광철 묘지명」에는 유사손(柳思孫)으로 되어 있고 「김태현 처 왕씨 묘지명」에는 유혜부로 되어 있다.

복도감판관 홍인철(洪仁喆)⁷² 과 혼인하였다.

바) 김광재의 처 김씨

김씨 부인은 김승택의 딸로 김광재와 혼인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김씨 부인의 아버지 김승택은 안동 사람으로 벼슬이 증서평장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양간이다. 김씨 부인의 조부 김선은 관직이 부지밀직사사에 이르렀다. 증조부인 김방경은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고 원의 일본 원정에 참여했던 장군이다. 그는 삼중대광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로 치사하였으며, 뒤에 충렬공의 시호를 받았다. 즉 김씨 부인의 친가는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세족 가문이었다.⁷³ 김씨 부인의 큰 아들 김흥조는 좌우위 보승낭장과 수원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딸은 내부부령 박문수와 혼인하였다.

사) 김심의 처

김심은 여러 부인을 맞이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변한국부인 왕씨 이외에도 장남 김승석을 낳은 첫 번째 부인,⁷⁴ 진강군부인(鎭江郡夫人) 노

⁷² 「김광철 묘지명」에는 '中郎將 洪仁喆', 「김태현 처 왕씨 묘지명」에는 '崇福都監判官 洪仁喆'로 되어 있다.

⁷³ 『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方慶.

⁷⁴ 김심의 첫 부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김심의 묘지명에서도 큰 아들 김승석은 어머니를 밝히지 않고 큰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의 기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1284년(충렬왕 10)에 충렬왕의 비 제국대장공주가 김주정을 불러서 말하기를, “경의 아들 김심(金深)이 처를 핍박하여 목매어 죽게 하였는데, 아버로서 어찌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가?”라고 하자, 김주정은 “호랑이도 제 새끼는 먹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高麗史』 권 104, 列傳 17, 金周鼎; 김용선, 「김심 묘지명」, 앞 책, 853쪽, 주) 22).

씨, 영가군부인(永嘉郡夫人) 김씨 등과 혼인하였다. 또 김심이 임조(臨洮)에 유배되었을 때 1남 1녀의 자녀를 낳은 부인이 있었으며, 최한과 혼인한 딸을 낳은 부인이 있었다. 즉 김심은 6명의 부인이 있었던 셈이다.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던 고려 사회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으로 여러 부인을 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었다. 원이 고려사회의 풍속에 변화를 초래한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 김회조의 처 윤씨⁷⁵

윤씨 부인은 윤해(尹孩)와 최씨 부인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나 김회조와 혼인하였다. 윤해는 윤관의 후손으로 벼슬이 전법판서에 이르렀으며 파평군에 봉해진 인물이었다.⁷⁶ 윤씨 부인의 조부는 소부윤을 지낸 윤암(尹諱)이고, 증조부는 영평부원군 윤보(尹瑠)이다. 윤씨 부인의 어머니는 최용(崔甬)의 딸이었다. 김회조는 김태현과 개성군대부인 왕씨의 친손자이다. 김회조의 선조에 대해서는 위의 ‘김태현의 처 개성군대부인 왕씨’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⁷⁵ '김회조의 처 윤씨'는 「윤해 묘지명」(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1084-1090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⁷⁶ 김용선, 「윤해 묘지명」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 1084쪽.

2. 『고려사』 열녀전에 오른 여성

우리 역사에서 ‘열녀’라는 용어는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열녀가 본격적으로 장려되고 제도화하는 것은 조선시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고려사』 열녀전에 수록된 여성들 대부분이 고려 말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⁷⁷ 그리고 『고려사』에 열녀전이 수록된 것은 『고려사』를 편찬하던 조선 초기의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조선은 건국이후 성리학을 통치 이념 및 생활윤리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세종 때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보급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고려사』 열녀전에 수록된 광주 여성은 강호문의 처 문씨와 김언경의 처 김씨 두 사람이다.

가. 강호문의 처 문씨⁷⁸

문씨 부인은 광주 갑향(甲鄕) 사람으로 강호문(康好文)과 혼인하였다. 강호문은 1362년(공민왕 1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교시판사에 이르렀으며, 시문(詩文)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다.

1388년(우왕 14) 광주에 왜구가 쳐들어 왔을 때 문씨 부인은 큰 아이와 젓먹이를 데리고 달아나 숨으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적에게 붙잡혔다. 부인은 자결하려고 했으나 적들이 목에 밧줄을 묶어 앞장서게

⁷⁷ 권순형, 「고려시대 절부에 대한 고찰」 『여성과 역사』 27, (한국여성사학회, 2017), 168-169쪽.

⁷⁸ ‘강호문의 처 문씨’는 고려사 열녀(『高麗史』 권 121, 列傳 34, 烈女, 강호문의 처 문씨)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하였으며, 문씨 부인에게 업고 있던 젓먹이를 버리라고 핍박하였다. 부인은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젓먹이를 싸서 나무 그늘에 놓아두고 큰 아이에게 동생과 함께 있으라고 하였지만, 큰 아이는 억지로 따라 왔다. 부인은 몽불산(夢佛山) 극락암(極樂菴) 근처에 접어들었을 때 높이가 족히 1,000여 척이 넘는 낭떠러지가 나타나자, 같이 잡혀온 이웃 여자에게, “도적에게 몸을 더럽히고 사느니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죽겠다.”라고 하며 아래로 몸을 던졌다. 왜구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은 후 아이를 죽이고 가버렸다. 마침 절벽 아래에는 칩냉쿨과 부들이 백백이 우거져 있어서 문씨 부인은 오른팔만 부러진 채 목숨을 건져 한참 뒤에야 깨어났다. 앞서 절벽의 동굴에 피난 와 있던 마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죽을 먹이고 보살폈다. 사흘 뒤 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한다.

문씨 부인의 사례는 왜구가 내륙지역인 광주에까지 횡행하여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었던 고려 말의 상황을 잘 알려준다. 또한 이 시기에 부인의 정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이미 여성들에게 보급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나. 김언경의 처 김씨⁷⁹

김씨 부인은 서운정(書雲正)을 역임한 김언경(金彦卿)의 아내이다. 1387년(우왕 13)에 김씨 부인과 김언경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왜구가 쳐들어와 집으로 들이닥치자 집안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

⁷⁹ ‘김언경의 처 김씨’는 고려사 열전(『高麗史』 권 121, 列傳 34, 烈女, 김언경의 처 김씨)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렸다. 김씨 부인과 김언경은 수풀사이로 달아나 숨었는데, 김씨 부인이 발각되어, 적들이 목에다 줄을 매어 끌고 가려고 하자, 부인은 땅에 엎드려 적들에게 “이놈들아, 빨리 나를 죽여라! 나는 욕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꾸짖었다. 이에 성난 왜구들이 김씨 부인을 죽였다고 한다. 김씨 부인과 김언경에 대해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Ⅲ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⁸⁰

1. 솔서혼(率婿婚)과 가족 구성

가족은 혼인과 출생에 의해 구성되므로 당시의 혼인풍속은 가족구성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려의 혼인풍속은 남귀여가(男歸女家), 서류부가(婿留婦家) 등으로 표현되는 솔서혼(率婿婚)이었다. 즉 고려시대의 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소가족인데, 주로 남성이 처가로 이동해 장인과 사위가 동거하는 형태였다. 솔서혼에서는 혼인 초기에 처가에서의 생활이 끝난 후에는 일단 분가를 하는데, 계속 처가(妻家)쪽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부가(夫家)쪽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솔서혼은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019년(현종 10)에 제정된 “새로 급제한 이들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법을 정하였는데, 부모가 없는 자는 양부모(養父母)나 처(妻)의 부모로 대신하게 하고, 모두 없으면 백부모(伯父母)나 숙부모(叔父母)로 대신하게 하였다.”⁸¹ 라는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이러한 고려의 현실에 대해 “장가를

80 『가족제도』(노명호, 『신편 한국사』15, 1995.)와 「가족, 친족 그리고 신분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이종서, 『고려시대사』2, 2017.)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술하였다.

81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科目2, 崇獎之典, 현종 10년 정월.

가서 처가에 있으면서 내 몸에 쓰이는 것을 처가에 의지했으니,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부모
와 딸, 사위와 처부모, 외조부모와 외손 간의 친밀감이 매우 높았다. 이
러한 고려에서 외손의 탄생은 큰 경사였다. 고려 후기의 문신인 금의
(琴儀)는 외손이 태어나자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규보는 “외
성(外姓)으로 훌륭한 사위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손자로 특별한 아이를
어찌 보았을까”라는 축시를 선물했었다.

고려시대의 가족은 단혼적(單婚的)인 부부와 미혼 자녀들로 이루어
진 소가족이 기본 단위였지만, 때로는 노부모나 생활 능력이 없는 가
까운 미성년 친척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가족 구성도 흔하게 나타난
다. 방계 친족과의 동거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분가한 후
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공수(李公遂)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
고 매부인 전공의(全公義)의 집에서 자랐으며, 현달한 이후 전공의를
아버지같이 누이를 어머니같이 섬겼다고 한다. 이러한 동거와 부양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앞에서 살펴 본 광주지역 여성들 가운데
김원의(金元義)의 처 인씨, 김수(金須)의 처 옥구군대부인 고씨, 김태
현(金台鉉)의 처 개성군대부인 왕씨 등은 시가 즉 부가(夫家)에 들어가
서 살고 있었다.

김원의의 처 인씨는 “부인은 본가에 있을 때부터 부모를 매우 독실하
게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매우 화목하였다. 혼인한 후에도 부
모 섬기듯이 시부모를 섬겼는데 예의범절로 더욱 공경하였으며, 남편
의 형제가 우애를 돈독하게 하여 집안이 더욱 화목해지도록 하였다.”
라고 하였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는 엄숙하고
공경하며 곧고 베풀기를 잘하였으며 말을 가리거나 게으른 얼굴빛을

보이지 않았다.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섬기는 것도 또한 그러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고씨의 며느리인 개성군대부인 왕씨도 “성품이 자애롭고도 엄하였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어, 여러 친족들에게 은혜롭게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다. 시어머니인 옥구군대부인 고씨가 이른 나이에 홀로 되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하여 백살이 넘도록 장수하였는데, 대부인은 이러한 시어머니를 더욱 부지런히 모셨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려의 가족 구성은 소가족단위의 구성이 일반적이지만, 확대된 범위의 친속 간에 부양과 동거 관계가 이루어지는 대가족 형태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부계적인 대가족이 아니라 양측적 친속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가족이었다. 그리고 혼인 후 사위가 처가에서 계속 처의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경우가 있지만, 친가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사례도 적지 않았음은 광주지역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분가하여 처가나 친가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까운 친족이 살고 있는 연고지나 전혀 연고가 없는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거주형태는 당시의 재산상속과 관련이 있었다. 즉 자녀에게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가 있는 쪽으로 이주하여 거주함으로써 다양한 거주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혼인은 사회계층적 측면에서는 강한 계급내혼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배층으로부터 향촌 사회의 주민에 이르기까지 고려사회에는 계급내혼적 단위들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 전기와 중기에 대대로 중앙의 고관을 배출하고 있었던 귀족들은 왕실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고

위 향리층은 지방에서 상층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이루면서 중앙의 하위 품관층과도 통혼하였다. 계급내혼을 벗어난 상하층간의 혼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급내혼은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양측적 친속조직이 계급내혼과 결합되어 친족관계망을 형성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신분적 권리, 사회적 지위 등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기록을 통해 본 광주 여성들’의 혼인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고려 후기 가장 대표적인 세족 가문이었던 남양 홍씨와 광산 김씨, 즉 홍규와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자손들을 통해 고려 사회의 계급내혼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홍규와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자녀는 모두 이름난 가문의 자녀들과 혼인하였고 왕비도 2명이나 있었다. 대부인의 아들, 손자와 외손자, 증손과 외증손도 대부분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묘지명에서 “가문의 성함이 고금에 비길 바가 없었다.”라고 평할 정도였다. 대부인 김씨의 자손은 홍용의 아들인 홍언박을 필두로 현손과 외현손까지 합하면 40여 명이 기록에 남아있다. 이들 중 고려사 열전에 올라 있는 인물이 20명, 묘지명이 남아있는 인물도 8명이나 된다. 아래 표는 삼한국대부인 김씨와 관련된 인물로 열전에 올라있거나 묘지명이 남아있는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삼한국대부인 김씨 관련 인물의 열전과 묘지명

이름	열전	묘지명	부인과의 관계	전거
김련(金連)	○		아버지	김련전
삼한국대부인 김씨 (三韓國大夫人 金氏)		○		
홍규(洪奎)	○	○	남편	홍규전
홍용(洪戎)	○		아들	홍규 부
김지숙(金之淑)	○		오빠	김지숙전
김인연(金仁沆)	○		조카	김지숙 부
라유(羅裕)	○		사돈	나유전
정해(鄭)	○		사위	정해전
원충(元忠)	○	○	사위	원부 부
충선왕(忠宣王)			사위	
충숙왕(忠肅王)			사위	
홍언박(洪彦博)	○	홍언박신도비	친손자	홍언박전
권준(權準)	○	○	사돈	권단 부
정(鄭)		○	외손자	
정이(鄭怡)			외손자	
경사만(慶斯萬)			외손녀 사위	
원호(元顥)	○		외손자	원부 부
원익(元翊)			외손자	
원의(元)			외손자	
김광리(金光利)			외손녀 사위	
홍유(洪瑜)			외손녀 사위	
나영걸(羅英傑)			외손녀 사위	
왕서(王)			외손녀 사위	
홍사보(洪師普)			증손자	
홍사범(洪師範)			증손자	
홍사우(洪師禹)	○		증손자	홍언박 부
홍사원(洪師瑗)			증손자	
류연(柳淵)	○		증손녀 사위	홍언박 부
정오(鄭)	○		외증손자	정해 부
정포(鄭)	○	○	외증손자	정해 부

이름	열전	묘지명	부인과의 관계	전거
경복흥(慶復興)	○		외증손자	경복흥전
한공의(韓公義)		○	외증손녀 사위	
왕완(王緩)			외증손	
왕집(王緝)			외증손	
홍관(洪寬)			현손	
홍이(洪彝)			현손	
홍륜(洪倫)	○		현손	반역전
정공권(鄭公權)	○		외현손	정해 부
한수(韓脩)	○	○	외현손	한강 부
한리(韓理)			외현손	
한제(韓齊)			외현손	
김사겸(金士謙)			외현손녀 사위	
리창로(李彰路)			외현손녀 사위	
렴흥방(廉興邦)	○		외현손녀 사위	염흥방전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세족 가문이었던 남양 홍씨 홍규는 광산 김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아들 홍용은 나주 나씨 나유의 딸과 혼인하였고, 대부인 김씨의 손자 홍언박은 안동 권씨 권준의 딸과 혼인하였다. 대부인 김씨의 큰 딸은 원의 승상과 혼인하였고, 둘째 딸은 청주 정씨 정해와 혼인하였다. 대부인 김씨의 외손녀 정씨는 청주 경씨 경사만과 혼인하였으며, 그 딸 즉 대부인 김씨의 외증손녀 경씨는 청주 한씨 한공의와 혼인하였다. 대부인 김씨의 셋째 딸은 충선왕의 후비가 되었고, 넷째 딸은 원주 원씨 원충과 혼인하였다. 대부인 김씨의 외손녀 원씨는 나주 나씨 나영걸과 혼인하였고, 또 한명은 종친 왕서와 혼인하였다. 대부인 김씨의 다섯째 딸은 충숙왕의 왕비가 되어 충혜왕과 공민왕을 낳았다. 즉 충선왕과 충숙왕은 대부인 김씨의 사위였고, 충혜왕과 공민

왕은 외손자였다. 홍규와 삼한국대부인 김씨 부인의 자손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들의 통혼권은 왕실을 시작으로 남양 홍씨·광산 김씨·나주 나씨·안동 권씨·청주 정씨·청주 경씨·청주 한씨·원주 원씨 등의 세족 가문⁸²이 포함되어 있었다.⁸³ 이들은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결속을 강화하고 세력을 넓혀갔다. 예를 들면 홍언박의 고종 사촌인 경복홍은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부원수로 병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안주에 주둔하였는데, 적을 두려워하여 진격하지 못하였다. 왕이 노하여 군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홍언박이 “장략(將略)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등용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두둔하여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 사회는 양측적 친속조직이 계급내혼과 결합되어 친족관계망을 형성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2. 수평적 부처(夫妻)관계

고려시대의 혼인형태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일부일처가 일반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국왕이나 지배층이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법제화된 것은 아니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광주 여성들의 사례를 살펴보다라도

82 고려 후기 세족과 관료 배출 현황표 참조(金光哲, 앞 논문, 76쪽).

83 남양 홍씨의 통혼권은 당시 세족 가문을 망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광주 김씨·청주 정씨·원주 원씨·청주 한씨·안동 권씨·진주 유씨·죽산 박씨·연양 김씨·서원 염씨·파평 윤씨·해평 윤씨·평양 조씨·공암 허씨·문화 유씨·고성 이씨·철원 최씨·성주 이씨·나주 나씨 등 18개의 세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金光哲, 앞 논문, 78쪽).

일부일처가 일반적이었다. 개성군대부인 왕씨의 남편인 김태현은 첫 번째 부인인 김씨 부인이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개성군대부인 왕씨와 재혼하였다. 고려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재혼이 별다른 제약 없이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김태현의 경우처럼 사별 등으로 재혼한 것은 동시에 여러 명의 처를 두는 일부다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광주지역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일부일처가 일반적이었지만, 김주정과 김심처럼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 후기에 다처제를 비롯한 원의 풍속이 전해져 일부 지배층이 여러 명의 처를 두는 다처명축(多妻竝畜)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김주정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다. 상질현대부인 장씨와 찬성사 김련의 딸 김씨 부인, 그리고 판함문사 이신손의 딸 이씨 부인이다. 물론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를 다시 맞이하는 재혼의 경우는 여러 명의 처를 두는 '다처(多妻)'와는 다르다. 그런데 김주정의 경우 세 사람의 처를 맞이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주정의 아들인 김심도 여러 부인을 맞이했는데, 변한국부인 왕씨 이외에도 장남 김승석을 낳은 첫 번째 부인, 진강군부인(鎭江郡夫人) 노씨, 영가군부인(永嘉郡夫人) 김씨 등과 혼인하였다. 또 김심이 임조(臨洮)에 유배되었을 때 1남 1녀를 낳은 부인, 최한과 혼인한 딸을 낳은 부인이 있었다. 묘지명의 기록에 의하면 김심에게는 6명의 부인이 있었던 셈이다.

김주정이나 김심의 경우처럼 여러 명의 처를 둔 대표적인 경우는 국왕이다. 고려 국왕들은 대부분 여러 명의 후비를 두고 있어 다처제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국왕의 사례는 후사확보와 관련된 특수한 것으

로 당시의 일반적인 혼인 형태로 보기 어렵다. 지배층의 경우 고려 후기에 여러 명의 처를 두는 다처병축(多妻並畜)이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다처제를 비롯한 원(元)의 풍속이 고려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충렬왕 때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법제의 제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박유(朴裕)가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존비(尊卑)에 상관없이 모두 처(妻) 1명을 두는 데 그치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도 감히 첩(妾)을 두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제한 없이 아내를 두므로 인재들이 모두 원(元)으로 흘러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대소신료(大小臣僚)는 여러 명의 처를 두게 하되, 관품에 따라서 수를 줄여 서인(庶人)에 이르면 처 1명과 첩 1명을 두게 하며, 여러 처가 낳은 아들도 적자(嫡子)와 같이 벼슬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만일 이렇게 하면 원망을 품은 자들도 없어지고 호구(戶口)도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마침 연등회 날 저녁에 박유가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며 지나가는데, 어떤 한 노파가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여러 명의 처를 두자고 청한 자가 저 빌어먹을 노인네란다.”라고 하니, 듣는 자가 서로 손가락질하자 저자의 도로에 붉은 손가락이 한 무더기가 되었다. 당시 재상 중에는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논의를 그만두어 실행되지 못하였다.⁸⁴

84 『高麗史』 권 106, 列傳 19, 朴裕.

박유의 상소는 고려 후기에 일부 지배층이 여러 명의 처를 두는 사회 분위기에서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법제정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연등회 때 어가를 호종했던 박유에 대한 여성들의 거센 비판과 아내를 두려워하는 재상들 때문에 중단되었다. 이를 통해서도 당시 고려 사회의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무리지어 박유를 비판하고 재상인 남편을 통해 일부다처의 법제정을 중지시킨 고려 여성들의 적극적인 측면도 짐작할 수 있다.

솔서혼과 자녀 균분상속, 일부일처가 일반적이었던 고려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과 수평적인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양측적 친속의 형태로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친족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성별로 한정하지 않은 모든 내외의 계보를 포괄하여 ‘~씨의 족’ 또는 ‘~씨의 종’으로 지칭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다. 여말선초에 만들어진 『해주오씨족도(海州吳氏族圖)』를 보면, 수록된 212명의 인물들 중에서 해주 오씨는 2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계보들의 ‘외손’ 즉 타성(他姓)들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나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등을 비롯한 조선전기의 ‘~씨’ 족보들에서도 수록된 인물 중 많은 수가 성별로 계보를 한정하지 않은 다양한 계보들의 ‘외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의 친족조직이 조선 후기에 남성으로 이어지는 부계적인 계보를 기본으로 하는 친족조직⁸⁵ 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지위와 권리를 행

85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에도 모계 계보를 기록한 『양문양공외예보(梁文襄公外裔譜)』라는 족보가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양문양공’은 세조 때의 문양공 양성지이고 ‘외예’는 외손 계열의 후손을 말한다.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이 족보는 양성지의 외예 30명을 세대·관직별로 정리하고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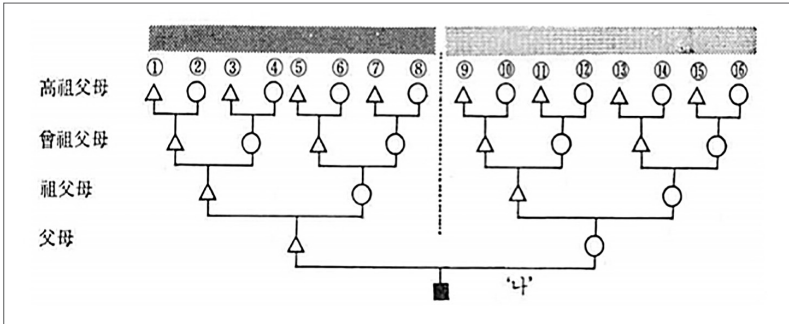
사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시대 성씨의 전승에서 모(외조)의 성, 조모의 성 등 다양한 계보를 따른 예외가 적지 않게 나타난 이유도 고려사회의 바탕에 존재한 이러한 친족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려사회의 특성은 호적에도 잘 나타난다. 고려의 호적 기재양식은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였으나, 8조호구식(八祖戶口式)이나 4조호구식(四祖戶口式) 모두 중국의 호적 기재양식과는 다른 고려의 독특한 제도였다. 8조호구식과 비슷한 계보관계는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 아래 그림의 8고조도(八高祖圖)라는 형태의 계보도로 나타났는데, 8고조부모나 외고조부모 등의 친족호칭은 중국에 없는 고려 고유의 친족호칭이었다. 또한 고려에서는 이러한 양측적 친속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부변은 아래 그림의 16계의 계보들 중에서 ①~⑧에 해당하는 아버지 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계보들을 포괄한다. 마찬가지로 모변은 아래 그림의 16계의 계보들 중에서 ⑨~⑯에 해당하는 어머니 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계보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부계 또는 모계의 계보⁸⁶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부측’ 또는 ‘모측’의 계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려사회의 친족조직은 이러한 부변과 모변을 모두 포괄하므로 양측적 친속이라고 표현한다.

지를 1세로 해서 16세까지 모계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정조는 양성지의 식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문집을 편찬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규장각을 거쳐 간 관원 중 30명이 양성지의 외예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791년 양성지의 문집인『눌재집』을 간행하면서 『양문양공외예보』라는 족보도 함께 편찬한 것이다. (김범, 『조선의 길』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서울, 민음사, 2014), 212~213쪽.)

86 부계의 계보는 그림에서 ①의 계보만, 모계의 계보는 그림에서 ⑯의 계보만 해당한다.

8고조도의 계보⁸⁷



그런데 고려시대의 묘지명에는 대부분 부계는 부와 조부, 증조부만 기록하였다. 또 모계는 외조부만 기록하고 있어 양측적 친속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중국 당·송의 제도 내지는 유교적 예제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수평적인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이것은 옥구군대부인 고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남편이 서해도 금미장을 감독할 때 어떤 사람이 뇌물로 술을 가져왔는데 “남편은 의로운 것이 아니면 일찍이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일이 없는데, 하물며 감독하는 임무를 띠고 와서 그러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고 받지 않았다. 삼별초의 난 때 남편이 영광군수로서 군사를 이끌고 탐라를 지키러 갔는데, 겨울이 되자 부인은 옷을 보내려고

⁸⁷ 노명호, 앞 글, 115쪽의<그림2>참조.

하였다. 이에 동료가 백금을 보내어 비용에 보태라고 두세 번 권하였으나, 부인은 끝내 받지 않았다.

한편 우왕 때 “전 개성윤(開城尹) 홍수로(洪壽老)의 처가 투기로 인해 목판을 들고 홍수로를 구타하여 허리를 부러뜨려 죽게 하였다. 전법사(典法司)에서 그 처를 잡아 국문하였는데, 옥중에서 죽었다.”⁸⁸ 라는 기록이 있다. 또 “최운해의 처 권씨는 성격이 투기가 심하고 사나웠다. 광주에 있을 때 최운해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으며 옷을 찢고 좋은 활을 부러뜨렸다. 또 칼을 뽑아 말을 찌르고 개를 때려 죽였다. 또한 최운해를 쫓아가 치고자 하였는데, 최운해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고는 즉시 쫓아버렸다.”⁸⁹ 라고 한다. 홍수로는 개성윤을 역임하였고, 최운해는 우왕 때 충주병마사와 순흥부사(順興府使) 등을 역임한 무장으로 왜구 격퇴에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물론 홍수로와 최운해의 경우는 당시 드문 일이었으므로 역사서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위 지배층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 관계의 수평성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고려 사회는 수평적인 부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재혼도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국왕들이 과부나 이혼녀와 혼인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성종은 광종의 딸로 흥덕원군과 혼인했던 문덕왕후 유씨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충선왕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3남 4녀를 낳은 순비 허씨를 왕비로 받아들였다. 최고위 지배층에서도 딸의 재혼 사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는데, 친손과 외손을 가리지 않고 기재한 『안동권씨성화보』(1476)에는 모두

88 『高麗史』 권 135, 列傳 48, 禰王 10년 4월.

89 『高麗史』 권 114, 列傳 27, 崔雲海.

17건의 '후부(後夫)'가 표시되어 있다.

고려 사회에서는 이혼도 쉽게 이루어졌다.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은 재물이나 관직을 얻고자 혹은 위협을 모면하고자 이혼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남편 홍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한국대부인 김씨는 홍규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홍규의 첫 번째 부인은 임연의 딸로 임유무의 손위 누이였다. 평범한 가문에서 출세한 임연이 홍규에게 간절하게 청하여 사위가 되었다 한다. 임유무는 임연의 뒤를 이어 집권한 후 일이 있을 때마다 자부인 홍규, 송송례(宋松禮)와 의논하였다. 홍규와 송송례는 겉으로는 임유무에게 따르는 척 하였지만, 원종의 밀명에 의해 임유무를 제거함으로써 무신정권에 종지부를 찍게 한 인물들이다. 홍규는 무신란 이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여 온 남양 홍씨 일족이었으므로, 임연은 명문가의 자제인 홍규를 사위로 맞이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⁹⁰ 삼한국대부인 김씨가 홍규와 혼인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일 것이다. 홍규가 처남인 임유무를 제거한 후에도 그의 누이와 계속 혼인 생활을 지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에는 솔서혼과 일부일처제, 재산의 자녀 균분 상속과 양측적 친속으로 구성된 친족조직 등을 기반으로 수평적인 부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 후기 사회와 비교할 때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고려시대에도 국가에서 절부(節婦)를 표창하거나, 이를 어긴 여성들을 처벌하는 등 유교적 사회윤리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⁹⁰ 정수아, 「무신정권의 붕괴와 그 역사적 성격」 『신편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119쪽.

3. 부모 봉양과 남편에 대한 내조

고려시대 여성들은 혼인하기 전에는 딸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혼인한 뒤에는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효도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유교와 불교 모두에서 요구되는 덕목이었다.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의 영향으로 살아서 착한 일을 못한 사람이라도 죽은 뒤 자손들을 비롯한 타인의 선행에 의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가 죽은 뒤 우란분재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부모의 명복을 비는 것을 중요시했다. 또 사경(寫經) 및 불사(佛事)에 시주하여 살아있는 부모와 죽은 부모를 위해 기원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절에서 승려가 재를 주관하고 가족들은 비용만 내면 됐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재를 베푸는 윤회 봉사가 가능하였다.

고려시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었음은 광주지역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원익의 처 인씨 부인은 “본가에 있을 때부터 부모를 매우 독실하게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매우 화목하였다. 혼인한 후에도 부모 섬기듯이 시부모를 섬겼는데 예의범절로 더욱 공경하였으며, 남편의 형제가 우애를 돈독하게 하여 집안이 더욱 화목해지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도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는 엄숙하고 공경하며 곧고 베풀기를 잘하였으며 말을 가리거나 게으른 얼굴빛을 보이지 않았다.⁹¹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섬기는 것도 또한 그러하였다.”라

91 '말을 가리거나 게으른 얼굴빛을 보이지 않았다.[無擇言惰容]'는 것은 말이 법과 도를 좇아서 하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효경(孝經)》 경대부장(卿大夫章)에 “입에는 가릴 말이 없고, 몸에는 가릴 행실이 없으면,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도 잘못된 말이 없을 것이고, 행실이 천하에 가득하여도

고 하여 마찬가지로 부모 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도 “시어머니인 옥구군대부인 고씨가 이른 나이에 홀로 되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하여 백살이 넘도록 장수하였는데, 대부분은 이러한 시어머니를 더욱 부지런히 모셨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고,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모 봉양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덕목이 ‘아내의 도리’였다. 고려시대 여성들의 묘지명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염경애의 묘지명⁹²에 잘 나타나 있다. 남편 최루백이 직접 서술한 염경애의 묘지명을 보면,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시집온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어른의 뜻을 먼저 알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효성으로 봉양하였고, 안팎 친척의 좋은 일과 언짢은 일,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에는 다 그 마음을 함께 하였으니, 이로써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여, 아내의 도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최루백이 서술한 내용은 “내가 패주와 중원의 원으로 나갔을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꺼리지 않고 함께 천 리 길을 가고, 내가 군사 관계에 종사하는 동안 가난하고 추운 규방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군복을 지어 보내 주었다. 혹은 내시(內侍)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하였으니, 무릇 나를 좇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의 일들은 다 적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

원망과 증오가 없을 것이다.[口無擇言, 身無擇行, 言滿天下, 無口過; 行滿天下, 無怨惡.]”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註釋)에 의하면 “말과 행실을 모두 선왕의 법과 도를 좇아서 하기 때문에 가릴 바가 없는 것이다.[言行皆遵法道, 所以無可擇也.]”라고 하였다.)

92 김용선, 『최루백 처 염경애 묘지명』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 134-137쪽.

다. 즉 아내의 도리는 남편이 임지에 부임할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함께 동행하고, 남편의 군복을 지어 보내고, 남편의 동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광주지역 여성들의 묘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원의의 처 인씨 부인은 “무반인 남편이 정벌을 떠나거나 국경을 지키러 갈 때, 장비를 준비하거나 잔치하는 비용이 번잡하고 사소하지 않았지만 손수 정밀하게 마련하였고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라고 하여, 염경애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 헌신하였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도 “남편이 영광 군수로서 군사를 이끌고 탐라를 지키러 갔는데, 겨울이 되자 부인은 옷을 해서 보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아내로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매우 성했으므로 남편의 질병 치유와 수명 연장, 정토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불사에 참여하거나 불공을 드리는 것도 내조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남편 김태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화엄경 삼본(三本)』을 사경하였으며, 『법화경』 이백여 권을 이루어 함과 돛자리에 서적이 가득 찼다고 한다. 또 남편의 기일에는 반드시 불경을 읽고 공양을 바쳤다. 김원의의 처 인씨도 만년에 부처를 더욱 정성스럽게 받들고 항상 『금강경』을 읽었으며, 해양군대부인 김씨도 밤에는 불경을 외우고 낮에는 길쌈을 하였는데 나이가 들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정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편을 위해 군복을 짓고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등 남편이 관리로서 잘 복무하도록 헌신적인 내조를 해야 했다. 물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불사에 참여하거나 불공을 드리

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와 오늘날 여성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시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반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여성들의 묘지명을 서술한 이는 모두 남성들이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기록들은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부모를 봉양하고 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관계없이 생물학적인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여성들이 남겨놓은 자료를 통해 그들이 추구한 삶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4. 자녀 교육과 가정 관리

고려시대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자녀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김원익의 처 인씨는 집이 원래 부유하였지만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자손들이 말려서 그만 두라고 하자 부인은 “길쌈하고 누에를 치는 일은 여자의 직책이다. 너희들의 글과 책, 붓과 벼루와 같은 것이니 어찌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식들에게 하루라도 글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도 아들인 「김태현 묘지명」에 의하면,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데리고 영광에서 서울로 돌아와 법도에 맞게 가르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부인 고씨의 묘지명을 지은 이제현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유학에 통달한 명재상이 되게 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던 사실은 개성군대부인 왕씨와 해양군대부인 김씨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양군대부인 김씨 묘지명에 의하면 “대부인 왕씨가 세 아들이 급제하였으므로 은혜로이 군대부인에 봉해져서 해마다 국가의 녹을 받았는데, 부인 역시 네 아들이 급제하여 어머니 왕씨와 같은 은전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고려에서는 세 아들이 급제한 경우 그 어머니에게 쌀을 하사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려사 선거지에 의하면, “숙종(肅宗) 2년(1097) 9월 왕이 새로 급제한 임원통(林元通) 등을 불러 접견하고 술과 음식, 의복을 하사하였다. 이 해에 김부철(金富轍)의 어머니에게 쌀 40석(石)을 하사하였다. 옛 제도에 아들 3명이 등과(登科)하면 해마다 그 어머니에게 대창(大倉)의 쌀 30석을 지급하였는데, 김부철의 형제 4명이 등과하였으므로, 10석을 더하여 하사하고, 드디어 사례로 삼도록 하였다.”⁹³ 라는 기사가 있다. 개성군대부인 왕씨와 해양군대부인 김씨가 국가로부터 녹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제도가 상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자녀 교육이 고려시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국가에서도 이것을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여겨 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여성은 근검절약하면서 길쌈하고 누에를 치는 등 가정 경영에도 힘을 기울여야 했다. 김원익의 처 인씨는 집이 원래 부유하였지만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실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인씨는 남편이 재상의 지위에 이른 뒤에야 그 일을 아랫사람들에게 맡길 정도였다. 해양군대부인 김씨도 “밤에는 불경을 외우고 낮에는 길쌈을 하였는데, 나이가 들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복

93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科目2, 崇獎之典, 숙종 2년 9월.

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풍족함과 검소함이 절도에 맞았다.”라고 하여 성실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실하게 아내로서의 일을 잘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가정을 잘 경영하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임무였음을 알려준다.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고 집안에서 노비 등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김원의의 처 인씨 부인은 “남편의 형제가 우애를 돈독하게 하여 집안이 더욱 화목해지도록 하였다. 노비와 첩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너그로우면서도 무게가 있었고 가혹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아랫사람들이 무서워하였지만 싫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어, 여러 친족들에게 은혜롭게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다.”라고 한다.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평생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순종하였으며, 자손들에게 공평하고 비복들에게는 자애로웠다.”하여 칭송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고려시대에는 형제간에 우애를 지키고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여성들의 자녀 교육과 가정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앞의 부모봉양과 남편에 대한 내조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대적인 배경만 다를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IV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⁹⁴

1. 자녀 간 균분 상속

고려에서는 재산을 딸과 아들에게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상속 방식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상속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몇 건의 사례가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종 때 경상도 안찰부사로 부임한 손변이 해결한 송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손변이 경상도 안찰부사로 부임했을 때 남매가 서로 송사를 벌였는데, 동생이 말하기를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누이만 홀로 부모의 재산을 갖고 동생에게는 그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누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임종 때 가산(家産)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 너에게 준 것은 치의(緇衣) 한 벌, 치관(緇冠) 하나, 미투리 한 켤레, 양지(兩紙) 한 묶음뿐이었다. 문계(文契)가 갖춰져 있는데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⁹⁵

94 'IV. 고려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은 「고려시대 여성의 규범과 생활」(권순형, 『우리여성의 역사』, 1999.)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술하였다.

95 『高麗史』권 102, 列傳 15, 孫抃.

손변은 부모가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누이가 동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것을 걱정한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마침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 손변의 판결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고려 사회의 관행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재산의 균분상속은 나익희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익희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독서할 겨를이 없었으나 성품이 강직하여 절의를 숭모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모친이 한번은 재산을 나누면서 따로 노비 40명을 주려하자, 사양하며 말하기를, “1남 5녀의 사이에 있으면서 어찌 구차스럽게 더 많이 받아 자식을 고르게 기르시는 부모의 사랑[鳴鳩之仁]에 누를 끼치겠습니까?”라고 하니 모친이 의롭게 여기면서 이를 따랐다.⁹⁶

나익희가 어머니에게 “어찌 구차스럽게 더 많이 받아 자식을 고르게 기르시는 부모의 사랑에 누를 끼치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아들에게 더 많은 노비를 상속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 사례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이 자녀에게 균분되고 있었음도 알게 해준다.

나익희는 나주 나씨로 나유(羅裕)와 조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들에게 40명의 노비를 더 주려고 했던 그의 어머니는 동지추밀원사 병부상서 상장군을 지낸 조문주의 딸이었다. 조씨 부인이 자녀들에게 상속해 준 노비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녀의 재산이었을 것이다. 자녀에게 균분된 재산은 혼인 후에도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관

96 『高麗史』권 104, 列傳 17, 羅裕 附 羅益禧.

행이었기 때문이다.

손변의 판결과 나익희의 사례를 통해 고려 사회의 재산 균분상속 관행을 살펴보았다. 고려 사회에서는 이러한 균분상속이 솔서혼 관습과 결합하여 부계·모계를 거의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재산이 자녀에게 균분상속 되었으므로, 부모는 결혼한 딸과 아들 중 어느 쪽과도 동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도 부가(夫家)나 처가(妻家) 모두로부터 상속 기회가 주어져 있었으므로 양쪽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국가의 작호 수여와 여성의 지위

고려 사회에서는 여러 제도와 포상을 통해 유교 이념을 장려하였다. 유교 정치 이념이 정립된 성종 때부터 역대 왕들은 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을 표창하였는데, 먼저 국가에서 작호를 수여한 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작호 수여는 왕비나 공주 등 왕실 여성들이 일차적인 대상이었지만 일반 여성들도 남편이나 자식의 공에 따라 작위에 봉해졌다. 여성들의 봉작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초에는 아직 정해진 제도가 없어서, 후비(后妃) 이하는 모(某) 원부인(院夫人), 모 궁부인(宮夫人)으로 칭호를 삼았다. 현종(顯宗) 때에 상궁(尙宮)·상침(尙寢)·상식(尙食)·상침(尙針)의 직이 있었고, 또한 귀비(貴妃)와 숙비(淑妃) 등의 칭호가 있었으며, 정종(靖宗) 이후에는 혹은 원주(院主)와

원비(院妃)로 부르거나 혹은 궁주(宮主)라고 불렀다. 문종(文宗) 때에 관제를 정하였는데, 귀비·숙비·덕비(德妃)·현비(賢妃)를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외명부(外命婦)로 공주(公主)와 대장공주(大長公主)는 정1품, 국대부인(國大夫人)은 정3품, 군대부인(郡大夫人)과 군군(郡君)은 정4품, 현군(縣君)은 정6품으로 하였다.】 충선왕(忠宣王) 때에 궁주를 옹주(翁主)로 고쳤다. 충혜왕(忠惠王) 이후에는 후궁의 여직(女職)에 존비(尊卑)의 등급이 없어져 사비(私婢)나 관기(官妓)도 또한 옹주나 택주(宅主)로 봉하여졌다.⁹⁷

왕족과 혼인한 여성들은 고려 초기에 원부인과 궁부인 등으로 불리다가, 현종 때 귀비와 숙비 등의 칭호로 불렸다. 정종 이후에는 원주와 원비 또는 궁주, 문종 때에는 귀비·숙비·덕비(德妃)·현비(賢妃) 등으로 칭하였으나, 충선왕 때 궁주를 옹주로 개칭하였다. 귀족들과 혼인한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작호는 국대부인·군대부인·군군·현군 등이었다.

광산 김씨 여성들에서 살펴본 김태현의 큰 딸은 안목과 혼인하여 익양군부인에 봉해졌는데, 남편 안목은 벼슬이 밀직부사에 이르렀으며 공민왕 때에 순흥군에 책봉되었다. 또 아들 안원승은 군부판서 진현관에 올랐다. 해양군대부인에 봉해졌던 김태현의 둘째 딸은 남편 박윤문이 기거랑과 밀직사우대언 좌사의대부 등을 역임하였으며, 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해마다 국가로부터 녹을 받았다. 단양부원대군 왕후와 혼인한 김심의 딸은 복안옹주로 봉해졌다. 복안옹주의 동생은 대도유수(大都留守) 안동과 혼인하여 경녕택주로 봉해졌다. 홍규의 김씨 부인은 삼한국대부인으로 봉해졌는데, 남편인 홍규의 묘지명에는 ‘광주군대부인(光州郡大夫人)’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태현 묘지명

97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內職.

에 그의 어머니 옥구군대부인 고씨가 102세로 작고하자 특별히 변한국대부인으로 추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삼한국대부인 김씨도 남편인 홍규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광주군대부인이었으나 그 후에 삼한국대부인으로 추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주정의 처 장씨는 아들인 김심이 귀하게 되어 상질현대부인으로 봉해졌다. 김수의 처 고씨는 옥구군대부인으로 봉해졌으나, 나중에 변한국대부인으로 추증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김태현의 처 왕씨는 개성군대부인에 봉해졌으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해마다 국가로부터 곡식을 받았다. 김상우의 딸 김씨도 익양군부인으로 봉해졌으나 묘지명에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는 포상과 봉작을 통해 여성들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잘 기르도록 장려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 여성에 대한 봉작은 조선시대와 달랐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남편의 관직에 상응하는 작위를 남편의 관직 임명장과 동시에 받았던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특수한 경우 또는 왕의 즉위나 순행 때 고위 관료의 처나 부모에게 포상하는 의미로 봉작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들의 정치적 출세, 또는 자식들의 과거 급제 등으로 작호가 수여된 사실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소결

지금까지 묘지명과 『고려사』열녀전을 통해 고려시대 광주여성의 가정생활과 경제·사회 생활 등을 살펴보았다. 광주여성은 고려시대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솔서혼과 자녀 균분 상속, 일부일처제 등을 바탕으로 남편과 거의 대등한 지위의 수평적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을 경영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작업은 당시 이 지역 여성들의 생활을 제대로 복원했다고는 할 수 없다.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⁹⁸ 더구나 지금 남아있는 기록의 대부분이 묘지명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은 남성의 시각에서 쓰여졌고, 또 남편이나 자식이 정치적으로 출세한 귀족 가문의 부인들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작업은 고려시대 광주여성사로서 미흡하지만, 당시 이 지역의 여성들을 찾아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물론 필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크지만, 자료의 제약에서 오는 한계로 말미암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묘지명이 남아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광산 김씨와 관련된 인물이었다. 고려시대 광산 김씨가 귀족 가문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고려 후기에 김주정과 김심, 김태현 등이

⁹⁸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근현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광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했는데, 기록의 한계 때문인 것 같다.

정치적으로 영달하면서 그 가문이 번성하였다. 따라서 묘지명을 남긴 광산 김씨 여성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남편을 따라 이미 광주를 떠나 개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남편과 부인의 묘지명에서 해양인, 광산인, 또는 광주인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광산 김씨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작호를 받을 때도 해양군대부인, 익양군부인, 광주군대부인 등으로 출신지역의 읍호가 주어졌다. 그리고 고려 말에 작성된 「광산현제영시서(光山縣題詠詩序)」를 보더라도, 이미 본향을 떠나 개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인들도 이 지역 친족집단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들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본향출신 인물들을 그 지역 인물로 간주하였다. 중앙 정부의 관리로 개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주정과 김태현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광산현의 인물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전통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광산 김씨 여성들 이외에 광산 김씨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을 광주 지역 여성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이들을 광주지역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남편이나 자녀들이 ‘광주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소략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묘지명이 남아있지만, 남편인 박윤문의 묘지명은 찾지 못했다. 여성들의 묘지명은 주로 아들이나 친가의 오빠, 남동생 등의 요청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남편의 묘지명을 찾을 수 없었으나 부인의 묘지명만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고려사회가 양측적 친속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시대의 여성들은 정성껏 부모를 봉양하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편을 위해 헌신적인 내조를 하는 등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다. 물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불사에 참여하거나 불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작호를 받고 해마다 곡식을 하사받았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와 오늘날 여성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시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반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남겨진 소략한 기록으로 그들의 삶을 복원해보고자 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려시대 여성들이 남겨놓은 자료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제4장

조선시대의 광주 여성

I. 조선시대의 광주

II. 조선시대 유교이념 확산을 통해 본 광주 여성

III. 조선시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

IV. 조선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V. 소결

I 조선시대의 광주

조선이 건국되자 광주는 목급(牧級)의 도시로서 농업지대에 위치한 거읍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 행정적으로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1373년(공민왕 22) 이후 광주목이었으나, 조선 1430년(세종 12) 읍민인 노흥준(盧興俊)이 목사 신보안(辛保安)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여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된 것이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문종 때 다시 복구되었으나, 1489년(성종 20)에 다시 판간 우윤공(禹允功)이 빗나갈 화살을 맞은 사건으로 광산현(光山縣)으로 강등되었다. 이후 1501년(연산군 7)에 복구되었으며, 1624년(인조 2)에 또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0년 후인 1634년(인조 12)에 다시 복구되는 등의 행정체계상의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군현의 영역 등은 별다른 변화 없이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다.

이처럼 광주는 전남지방의 한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여 왔지만, 나주의 역할에 비해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 지역출신 인사가 중앙정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 경우도 드물었다. 다만 임진왜란 당시 이 지역의 고경명·김덕령 등의 의병들이 두드러지게 활약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광주지역에 거주한 여성들의 일상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다. 사회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던 한양이나 양반들의 위세가 확고했던 지역의 여성들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 지역 각 가문의 문집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전국적으로 위세 있는 양반 가문을 찾기 어려운 광주 지역의 가문에 소장된 문서의 양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행적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광주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대 여성들의 역사는 거의 남성들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거나 아니면 배제되었다. 이전 시대의 역사가 대부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기에 모든 기록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사료적 한계 속에서 조선시대 광주 지역 여성에 대한 연구는 사료에 접근할 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편지나 구술, 일기, 회화, 발굴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여성의 생활을 탐구하거나 기존의 관찬사료와 각 가문의 자료들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유추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의 지방이었던 광주에서의 여성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양반세가 강하거나 한양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광주지역이 유교적 교화를 소홀히 하거나 향촌의 질서마저 없는 지역은 아니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약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보급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도 가하는 등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시행해 나갔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은 광주 지역 여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여성들에게 어떠한 규범으로 작동하였는지를 지역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삶의 모습도 들여다 보고자 한다.⁰¹

01 '제4장 조선시대의 광주여성'은 집필진 중 박미선이 I, II와 III의 3, IV의 2 부분을, 박경이 III의 1과 2, IV의 1과 3 부분 등을 공동집필하였다.

Ⅱ 조선시대 유교이념 확산을 통해 본 광주 여성

1. 유교적 여성관의 확산과 여훈서의 보급

조선은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는 조선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일상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리학은 신유학으로 중국 송의 학자 주희가 새롭게 재해석해 집대성한 유학이었다. 신유학에서 여성들은 유교의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보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여성 차별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유교문화 속에서 광주 지역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여성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유교의 여성관

유교의 여성관은 ‘음양론’, ‘남녀유별’, ‘내외관념’, ‘여화론(女禍論)’, ‘여군자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⁰² 첫째, ‘음양론’은 『주역』에 따르면 “부부간의 위치가 음양의 나누어짐으로 인해 정해지며, 부부의 도는 음양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상호의존

⁰² 김연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형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적인 공존의 원리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의 원리로 작동하였다. 차별의 원리로 읽히는 것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건곤(乾坤), 존비(尊卑), 귀천(貴賤), 동정(動靜), 강유(剛柔)라는 상반된 개념으로 짝지어 설명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로써 음양은 존비, 귀천, 강유 등의 사회적 신분 가치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건도는 남자, 곤도는 여자가 되어 양과 음이 남녀를 은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卑), 천(賤), 정(靜), 유(柔)는 여성성의 주요 코드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은 낮고 약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로 만들고 ‘삼종지도(三從之道)’와 ‘불경이부(不更二夫)’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유교는 남녀의 결합을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보았고, 모든 예는 ‘남녀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남녀유별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다. 『예기』 내칙편에 실린 이 말은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며, 함께 먹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남녀의 분리는 남녀의 직접 접촉 금지, 거주 활동 공간의 분리, 역할 분담으로 이어져 남녀의 삶을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셋째, ‘내외관념’은 남녀의 공간을 구별하는 논리였다. 『예기』에 따르면 “예는 부부 사이를 삼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집을 짓되 안과 밖을 구분하여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한다”고 하였다. 남성은 여성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여성 역시 남성의 영역을 넘보지 말아야 하며, 상호 접촉과 교류 및 간섭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삶을 집 안으로 한정시켰고 남성은 집 밖 세상으로 삶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넷째, 유교의 부정적 여성관인 ‘여화론(女禍論)’은 남녀의 불균형을 더욱 강화하고 고착시켰다. 전한(前漢) 유향(劉向, 기원전 77~6)은 악녀의 사례를 모아 『열녀전』 「얼페전(孽嬖傳)」에 소개함으로써 부정적 여성관을 정리하였는데, 이때 『시경』과 『서경』에 수록된 부정적 여성담론을 인용해 여화론을 완성하였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목서(牧誓)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유는 새벽에 울어 시각을 알려주는 것은 수탉인데, 암탉이 새벽에 운다는 것은 수탉의 역할을 침해한 것으로 수탉 중심의 질서를 깨트리는 불온하고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성이 남성의 영역인 정치에 관여하거나 남성을 유혹하여 가정과 사회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화론은 여성의 재능을 내조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성적 매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다섯째, 이상적인 여성상이자 최고의 여성은 ‘여군자’로 명명되었다. 군자가 유교적 교양과 덕을 완성한 인간형으로 조선 사회 남성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모델이었다면 여성에 대한 가장 높은 찬사도 ‘여군자’, ‘여사’, ‘여처사’라고 하였다. 여성이면서 군자라는 찬사는 당시 여성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가치였으며 존경의 의미로 일부 여성들은 여군자가 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나. 여훈서의 보급

이상에서 살펴본 유교적 여성관은 여성교훈서를 통해서 확산되었다. 조선 초 정치이념이나 제도의 측면에서 나타난 유교적 의식은 조선 중기 이후 실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유교적 윤리

규범이 서술된 교육 서적의 편찬과 보급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도 성리학적 질서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만들기 위해 부덕 함양 교육과 기본적인 문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여성교훈서들이 편찬되었는데,⁰³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가에서 편찬했다면 후기로 갈수록 문중에서 개인이 교훈서를 편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체로 여자로서의 올바른 몸가짐에 대해 가르치는 수신서와 생활실용서였다.

여성들을 위한 교훈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녀전』이었다. 유향의 『열녀전』을 수정 보완한 『고금열녀전』이 1404년(태종 4)에 도입된 사실을 볼 때, 지배 집단에서는 유교적 여성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열녀전을 들여왔지만 ‘열녀’는 이후 조선 여성들에게 더욱 강조되었다. 1434년(세종 16)에는 충신, 효자, 열녀의 사례를 모은 『삼강행실도』가 편찬되고,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여성에게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 가르치라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열녀 이데올로기가 확산될 수 있었다. 이후 『언문삼강행실열녀도』(1481), 『속삼강행실도』(1514)가 추가로 간행되었다. 또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도 「열녀」조를 두어 효녀나 정절을 지킨 여성들의 행적을 수록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를 발간해 임진왜란 시기 열녀들의 행적을 크게 부각했다. 특히 매 편마다 그림을 넣어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여백에 한글로 내용을 요약해 놓아 한자를 잘 모르는 서민층과 부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03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 교육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82. 김연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형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삼강행실도』에는 광주지역의 여성은 아니지만, 영암지역의 여성이 소개되어 있다. ‘최씨분매’는 영암에서 태어난 최씨에 대한 기록이다. 그녀는 경상도 진주로 시집갔는데 1389년 왜구가 진주를 약탈할 때 당시 왜구들이 칼로 위협하며 욕보이려 하자 “도적들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호통을 치다가 숨졌다고 전해진다.

또한 조선 성종대에는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 한씨가 지은 『내훈』이 확산되었다. 『내훈』은 『소학』, 『열녀』,

『여교』, 『명감』 등 네 권의 책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뽑아서 만들었다. 1권은 「언행」, 「효친」, 「혼례」, 2권은 「부부」, 3권은 「모의(母儀)」, 「돈목(敦睦)」, 「염검(廉儉)」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부부」는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는 곧 부부간의 도리 즉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소학』도 여성들이 널리 읽도록 권장되었다. 특히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인용되어 있으며, 여성의 개가에 대해서도 “굶어 죽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절개를 잃어버리는 일은 지극히 큰일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절개를 강조하는 담론이 기술되어 있다.⁰⁴ 이로써 여성의 정절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담론이 조선사회에서 지속적



『삼강행실도』 최씨분매

04 『소학』 「가언」.

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도 여성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이어져 영조는 이덕수에게 『여사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여성 교훈서를 저술했다. 조선중기 이후로는 이화의 『규중요람』을 비롯해 선비들이 자신의 소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교훈서를 집필했는데, 후기로 가면서 가문의식이 강조되고 문중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남성들은 그들 자신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만들기 위한 교훈서를 저술하였다. 대표적으로 송시열의 『우암선생계녀서』, 한원진의 『한씨부훈』, 이덕무의 『사소절』, 박문호의 『여소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성 교훈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은 순종과 의존성을 의미하는 삼종지도와 언행과 솜씨를 의미하는 4행(四行)으로 요약된다. 삼종지도는 어려서 자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것으로 여자의 한평생은 남자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4행은 부덕(절개를 지키며 순종,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르게 행동하는 것), 부언(할 말을 분별하여 하는 것), 부용(몸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 부공(웃고 노는 것을 즐기지 않고 오직 길쌈에 전념, 가족과 손님 대접을 잘하는 솜씨를 지니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러한 여성교훈서가 유통되었다. 여성들이 직접 여훈서를 읽은 사실을 사료 상에서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근대 이전에 생산된 여훈서가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여훈서의 종류가 『소학』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남 지역의 각 가문에서도 『소학(小學)』, 『소학언해(小學諺解)』, 『해동속소학(海

『東續小學』, 『소학운어(小學韻語)』, 『소학증해(小學增解)』, 『사자소학(四子小學)』 등의 전적을 다음과 같이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지역 소장 여훈서 사례⁰⁵

코드번호	표지	내표지	간행 시기	수량/ 행자(行字)	규격(cm)	지역
02-홍근옥-027	소학(小學)	御製小學後序	1913년	5책6권 / 11행20자	20.5×31	여수
02-홍근옥-028	소학언해(小學諺解)	御製小學諺解序	1913년	4책6권 / 12행20자	20×31	여수
02-이상현-066	소학(小學)	小學諸集之六	무오년	1책	20.5×33	순천
02-모현관-043	소학언해(小學諺解)	內○則에○오○		2책6권 / 17자	22.2×34.8	담양
02-도동묘-155	소학(小學)	小學諸集註增解卷之六	병신년	1책 / 10행22자	21.2×30.2	곡성
02-도동묘-162	소학언해(小學諺解)	御어製데小小學諺언解序서	임인년	1책 / 10행16자	19.8×29	곡성
02-문승이-043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	海東續小學	1912년	1책6권	15×22	구례
02-죽림재-025	소학(小學)	小學諸家集註 卷之二		10책 / 10행17자	20.7×32	담양
02-김동홍-076	소학운어(小學韻語)	小學韻語?	1879년	1책	22×29.5	장흥
02-김동홍-077	소학증해(小學增解)	御製小學序	1800년	5책 / 10행22자	21×31	장흥
02-박은식-021	소학(小學)	小學諺解卷之三		1책2권 / 10행17자	21.5×31.5	영암
02-박현순-032	소학권5(小學卷五)	小學諸家集註 卷之六		1冊	20.1×22.9	함평
02-이진환-012	사자소학(四子小學)	父兮生我腹以懷我	병진년	1冊	19.3×31	장성
02-덕봉강당-075	소학(小學)	小學卷之二		4冊 / 10행19자	21×28.5	신안

⁰⁵ 위 표는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전라남도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에서 그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는 저서의 기입 방식을 따르되 저자 항목을 생략하고 지역 부분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성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의 지방관과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 사이에서 『소학』을 새롭게 편수한 저술에 대해서 논의를 한 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광주지역에서의 여성교훈서에 대한 지방관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주희의 『소학』을 본떠 『해동신편(海東新編)』을 편수코자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후학들이 이 책의 완성을 볼 수 있다면 또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한 가지 방도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중략) 대개 그 규모와 범례의 대강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첫 편인 「열녀전(烈女傳)」 이하를 곧 다른 말로 대신 채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입교(立教)」·「명륜(明倫)」·「경신(敬身)」 세 편의 본문을 예전대로 놔두고 「계고(稽古)」 이하를 비로소 동국의 사적에서 수집하여 바꾸려 하십니까? 앞처럼 하거나 뒤처럼 하거나 간에 제 생각으로는 모두 이루기 어려울 듯합니다.⁰⁶

기정진은 1843년 부임한 광주목사(光州牧使) 조철영(趙徹永)에게 위와 같은 답장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조철영이 『소학』을 새롭게 편제하고자 한 『해동신편』에 대해서 기정진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정진의 편지글로 봤을 때 조철영이 『해동신편』의 규모와 범례로 생각했던 바는 「열녀전」을 첫 편으로 하여 그 이하를

06 『노사집(蘆沙集)』 권6, 「조철영에게 보내는 편지[與趙光州徹永]」. “茲者伏承依倣文公小學，欲修海東新編，旨意甚盛。後生學者，獲見此書之成，亦發蒙之一端也。慰幸良多……蓋其規模凡例之大概，伏未消詳，自首篇列女傳以下，便當以他語填代耶。抑立明敬三篇本文依舊，而稽古以下，始欲裒粹東國事蹟以代之耶。由前由後，愚意皆恐難成。”

편제하거나, 혹은 본래 소학의 편제인 입교, 명륜, 경신을 그대로 두고 계고 이하를 우리나라의 사적에서 수집하여 정리하려고 하는 어느 지점이었던 것 같다. 기정진은 이러한 두 가지 편제 방식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제목도 『해동계고신편(海東稽古新編)』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편지에서 기정진의 구체적 의견은 차치해 두고 19세기 광주 지역 지방관이었던 조철영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광주 지역에서도 관 차원에서 『소학』을 새롭게 편제하기 위해 그 규모와 범례를 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를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지방관의 입장에서 『소학』에 대한 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에 대한 보급까지도 염두해 두었을 것인 만큼 광주 지역에서도 관 주도로 여성교훈서의 하나인 『소학』의 보급이 확산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또한 조철영이 제안하였던 편제 방식 가운데 첫 번째 편을 열녀전으로 배치하였다는 것도 주목된다. 물론 기정진은 이러한 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적어도 지방관이었던 조철영의 입장에서는 ‘열녀’의 유교 윤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철영은 이보다 앞서 1840년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에도 정유재란 때 추월산에서 순절한 김덕령의 아내 흥양 이씨를 추모하여 순절한 곳의 바위에 ‘김충장공덕령부인흥양이씨만력정유매담양추월산왜적순절처’라는 글을 새겨 ‘열녀’의 정신을 높이 샀다.

이상 조선시대 여성교훈서는 유교적인 여성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편찬·보급되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조선시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소학』 교재가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는 『소학』을 새롭게 편제하여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노

력이 있었으며, ‘열녀’의 윤리를 강조하였던 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2. 유교의 ‘이상적 여성’ 효녀 · 효부 · 열녀

가. ‘이상적 여성’을 만드는 법과 제도

‘음양론’, ‘남녀유별’ ‘내외관념’, ‘여화론(女禍論)’, ‘여군자론’ 등 유교의 여성관은 조선시대 여훈서에 수록되어 여성들에게 ‘열녀’, ‘효부’, ‘효녀’ 등이 되도록 내재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효’와 ‘열’을 행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법제도나 사회분위기도 조성되었다.

효와 열을 강조하는 풍속은 조선 초부터 시작되었다. 태조는 즉위하던 그 해에 대소신료에게 충신, 효자, 의부, 절부의 일은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하고 발탁, 등용하여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후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경국대전』 「예전」 장권(獎勸)의 ‘열녀정려법’과 『경국대전』 「예전」 제과(諸科)의 ‘재가녀 자손에 대한 금고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열녀정려법’에 따르면 “효성 · 우애 · 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를 해마다 연말에 예조에서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여 장권(獎勸)한다”고 하였다. 장권의 방법은 상으로 관직이나 물건을 주거나 또는 특히 뛰어난 자에 대하여는 정문을 세우거나 복호하는 것이었다. 정문(旌門)은 효자, 충신, 열녀를 배출한 가문 앞에 붉은색 문을 세워 그

행적을 표창하는 것이었고, 복호(復戶)는 요역을 면제하는 것으로 열녀나 그 후손에게 쌀이나 옷감 등 각종 물품으로 포상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열녀정려법이 조선 초기와 중기에 걸쳐 300여 년 간 수행된 결과 조선 후기에 가면 지방에서 열녀로 보고되는 숫자가 급증하게 된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각 군현에서 열녀로 추천, 보고된 여성들이 과연 표창할 만한 열녀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음에 열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개가하지 않는 여성을 가리켰으나 점차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거나 자결하는 여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죽은 남편을 좇아 자결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수절은 열녀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재가녀 자손 금고법’은 “재가한 자나 간음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가한 여성 본인이 아니라 그 자손이나 그들이 속한 가문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 법은 사실상 남편을 잃은 양반신분의 여성이 재가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양반관료사회에서 양반 가문은 가계(家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해야만 하는데,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재혼하면 가문의 지속을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가녀 자손 금고법’의 시행은 그 정책적 효과가 큰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여성의 재가가 ‘품위를 잃은 행위’ 정도로만 인식되어 재가는 물론이고 세 번 혼인하는 양반집 여성까지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재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여성은 정절과 일부종사(一夫從事)를 요구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쟁 이후 조선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은 뒤에 재혼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다른 여성과 차별되는 ‘열녀’를 보여주기 위해 목숨마저 내던지게 되었다. 국가는 열녀에 대해서 표창하고 출판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렸다. 국가 차원에서 정절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열녀를 조장한 것이다. 사대부들도 열녀전을 지어 열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열녀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방법이였기 때문에 조선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열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조선시대 열녀의 숫자는 늘어났다. 또한 양반 여성뿐만 아니라 양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조선 시대의 열녀 신분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시대별 열녀 가운데 양반 여성이 차지한 비중은 68% → 37% → 43% → 57%, 양인 이하 여성은 19% → 54% → 52% → 34%로 16세기 이후 증가했다.

나. 광주지역의 효녀 · 효부 · 열녀

조선시대 광주 지역의 효녀 · 효부 · 열녀 등 그 당시 이상적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읍지에서 확인된다. 1530년 편찬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예조정랑 권극중의 아내 민씨 1인이 열녀로 기록되어 있다.⁰⁷ 그리고 정조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목지(光州牧誌)』에는 효녀 1명, 열녀 15명이 수록되어 있다.⁰⁸ 1879년 간행된 『광

0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全羅道 光山縣.

08 1798년 2권1 책으로 간행되었다. 18세기 후반 관찬(官撰) 읍지와는 차이가 있으며, 수록 내용도 매우 상세하고 특히 인물과 시문의 비중이 큰 점이 특징이다. 이 지역 사족(士族)들이 기존의 읍지와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편찬한 사찬(私撰) 읍지로 추정된다.

주읍지』에도 다음과 같이 효녀와 열녀를 수록하고 있다.⁰⁹

1924년 『광주읍지』에 기록된 효녀·효부·열녀

구분	효녀(孝女)	열녀(烈女)
기타	3	-
본조(조선)	-	23
부록	-	1
신증	-	47
합계	3	71

이 읍지는 1699년에 만들어진 읍지와 1792년에 만들어진 구읍지에 의거하여 만들었다.¹⁰ 효녀와 열녀는 인물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물조는 문과·무과·재학(才學)·음사(蔭仕)·생원(生員)·진사(進士)·충(忠)·효(孝)·열(烈) 등 아홉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모두 구읍지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인물의 정보에 있어서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록(附錄)’해 두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인물을 ‘신증’이라고 표기하였다.¹¹ 이에 따르면 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에는 시대를 기재하지 않은 효녀 3명, 1792년 구 읍지에 수록된 열녀 23명, 증직 및 수직으로 변경된 인물 1명, 1792년부터 1879년까지 추가된 인물 47명이 기록되어 있다. 『광주읍지』에는 1699년 4월 윤범구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아 우리 고을의 풍속이 옛 것에 가까워 문질(文質)을 숭상하고 순각(純戇)에 힘써 명현(名賢)과 호걸

09 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는 1990년 광주직할시에서 광주고전국역총서로 번역되었다. 원문과 번역문은 『광주읍지』(광주직할시 기획담당관실, 광주직할시, 1990)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光州邑誌』序, 跋.

11 『光州邑誌』凡例.

의 선비와 충효와 독행의 선비가 전후로接踵(接踵)하고 부녀(婦女)의 절열(節烈)에 이르러서는 삼강(三綱)에 빛이 있었으니 어찌 다만 우리 고을의 지사(誌事)가 될 뿐이겠는가”라고 하여 부녀가 절의를 지켜 온 모습이 광주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귀감이 될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1924년 편찬된 『광주읍지』를 보면, 효녀·열녀 항목 이외에 효부 항목을 따로 분리하였으며 그 숫자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효부는 23명, 열녀는 120명이 추가되었다. 효부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부모에 대한 효의 윤리를 강조하였으며, 열녀의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열의 윤리가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4년 『광주읍지』에 기록된 효녀·효부·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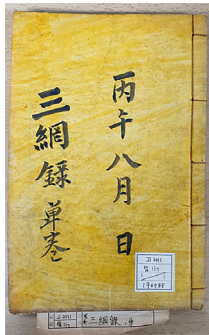
	효녀(孝女)	효부(孝婦)	열녀(烈女)
기타	3	-	-
본조		-	23
신증(1)	-	-	48
신증(2)	-	23	120
합계	3	23	191

이외에도 충·효·열 삼강을 행한 인물들만 따로 모은 『광주삼강록(光州三綱錄)』이 있다.¹³ 이 책은 앞서 살펴본 읍지와 달리 조선시대 효와 열을 행한 여성들을 각 왕조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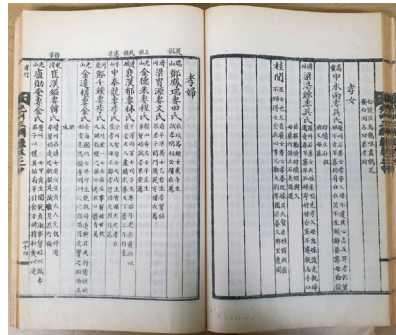
12 1924년판 광주읍지는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에서 국역하였으며, 권말에 원본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국역)光州邑誌』, 광주민속박물관, 2004).

13 金鎬永 輯, 『光州三綱錄』, 1966跋(전남대학교도서관 OC2H1 삼11R).

대별 효녀, 효부, 열녀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해 보았다.



『광주삼강록』
(전남대학교 도서관 자료제공, 필자 촬영)



『광주삼강록』
(전남대학교 도서관 자료제공,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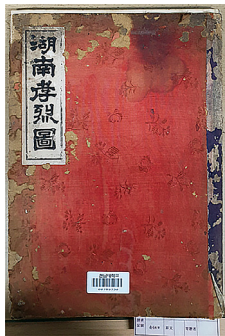
『광주삼강록』에 기록된 조선시대 효녀·효부·열녀

	효녀(孝女)	효부(孝婦)	열녀(烈女)	현원(賢媛)
기타	3	-	1	-
성종	-	-	1	-
중종	-	-	2	-
명종	-	-	5	-
선조	-	-	27	-
인조	-	-	1	-
효종	-	-	1	-
현종	-	-	-	2
숙종	-	-	3	1
영조	-	2	7	-
정조	-	1	7	1
순조	-	1	17	4
현종	-	1	18	4
철종	-	2	31	9
고종	-	12	100	56
합계	3	7	121	77

『광주삼강록』은 1966년 편찬되었는데, 신라시대부터 현대인물까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여기에서는 조선시대를 고종까지로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광주삼강록』은 『광주읍지』와 편찬자가 달라 수록된 인물도 다소 차이가 있다. 『광주삼강록』 중(中)에는 효녀, 효부가 수록되어 있고, 하(下)에는 열녀, 현원으로 여성이 나뉘어 수록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현원(賢媛)편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효녀, 효부, 열녀의 각 왕대별 수치는 위의 표와 같다. 임진왜란이 있었던 선조대 열녀는 27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19세기 초반 순조, 헌종대를 지나 철종, 고종대에는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원은 현종대 양자익(梁自翼)의 처 신부인(申夫人)부터 시작하여 고종대까지 77명을 수록하고 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호남효열도』가 있는데 호남지역 열녀와 효부의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수록된 각 인물의 구체적인 행적 내용은 없으나 범례를 통해 여묘(廬墓), 순절(殉節), 작지(斫指) 등의 행적과 명정(命旌), 증직(贈職), 입비(立碑)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열녀와 효부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름 대신 성씨와 ○○○妻로 기록되어 있다. 열녀는 75명, 효부는 22명이다.



『호남효열도』
(전남대학교 도서관 자료제공, 필자 촬영)



『호남효열도』
(전남대학교 도서관 자료제공, 필자 촬영)

이제 1879년 『광주읍지』에 기술된 효녀, 효부, 열녀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광주 지역에서 이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겠다.

먼저, 효녀는 정조이·김조이·계한 세 명이 소개되어 있다. 정조이와 김조이는 혼인한 여성이고 계한은 혼인 전 여성이다. 『광주읍지』의 편찬 체제 속에서는 효와 열의 윤리로 여성을 구분하였을 뿐 혼인유무로는 구분하지 않았다.

우선, 혼인 전의 효녀는 계한(桂閒)이 있다. 계한은 무녀(巫女)로 눈이 먼 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성질이 난폭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이에 계한은 아버지를 섬길 수 없음을 걱정하여 남편에게 다른 아내를 얻어 따로 살게 하고 홀로 살면서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이외에도 『광주목지』와 『일성록』의 기록을 보면 맹금(孟今)이라는 효녀도 확인된다.¹⁴ 아버지는 무부(巫夫) 박재명(朴再明)이었고, 그녀는 경양역(景陽驛)의 비(婢)였다. 그녀의 나이 겨우 16세에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몰래 왼쪽 넓적다리를 베어서 드림으로써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병을 낫게 하였다. 미천한 신분인 비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뛰어나자 국가에서 면천(免賤) 별단(別單)을 내려 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혼인 후 시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효부는 정조이(鄭召史)와 김조이(金召史)가 있다. 정조이는 김건태(金鵞太)의 아내로 집이 가난한 데도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밤낮으로 간호하였지만 괴롭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김조이는

14 『일성록』 정조 20년 12월 29일; 『광주목지』 효녀.

남편인 이해운(李海雲)이 일찍 죽은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한편 열녀는 수절과 정절을 지킨 여성인데 일상생활에서부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지에서 그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다음에서 『광주읍지』에 나타난 열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첫째, 유가적 장의를 시행한 여성이 있었다. 예조정랑 권극중의 아내 민씨는 남편이 죽자 3년을 여묘(廬墓)하는 등 본래 남편에 대한 예보다 과도한 슬픔을 드러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무덤 옆에서 살았다. 이렇게 남성에 대한 장의를 과잉으로 실천한 여성을 열녀로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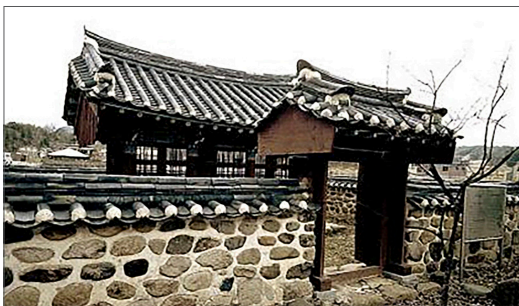
둘째, 유가적 제의의 상징물을 지켜내는 여성이 나타난다. 생원(生員) 김사충(金士忠)의 아내 전씨(全氏)는 나이 30세에 남편이 죽자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다. 그러던 중 집에 불이 나 불길이 사당(祠堂)에 뻗치자 전씨는 불길을 무릅쓰고 신주(神主)를 껴안고 나오다 머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가례』에 따르면 죽은 선조의 혼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신주에 의탁하게 되며, 시신을 최종적으로 매장하게 되면 혼이 신주에 깃든다고 한다. 남편의 조상신이 깃든 신주를 지켜낸 전씨를 열녀로 칭한 것을 봤을 때 부계중심의 가족 질서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유재란, 정묘호란 등 전쟁에서 적에게 저항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되는 등 순절(殉節)한 여성들이 있었다.

『광주읍지』 순절 여성

성씨	관계	순절 시기
정씨(鄭氏)	사인(士人) 고거후(高居厚)의 아내	정묘호란 때 순절
고씨(高氏)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의 딸, 사인(士人) 노상룡(盧尙龍)의 아내	정유재란 때 순절
이씨(李氏)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의 아내	정유재란 때 순절
이씨(李氏)	사인(士人) 활(活)의 딸	정유재란 때 순절
김씨(金氏)	사인(士人) 온침(蘊沈)의 아내	정유재란 때 순절
양씨(梁氏)	현감(縣監) 자징(子徵)의 딸, 사인(士人) 오급(吳岾)의 아내	정유재란 때 순절
고씨(高氏)	사인(士人) 안여인(安汝仁)의 아내	정유재란 때 순절
임씨(林氏)	첨정(僉正) 이원명(李原明)의 아내	정유재란 때 순절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의병장 김덕령의 아내 흥양 이씨는 정유재란 때 담양 추월산에서 추격해오는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이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부인 이씨의 순절과 의병장 김덕령, 그의 형 김덕홍 등의 충과 열을 기려 추증되었다. 또한 1789년(정조 13) 정조는 비석을 세워 서유린(徐有鄰)에게 그 뒷면에 공적을 기리는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정려비각은 1792년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1840년에는 담양부사 조철영이 흥양 이씨의 순절 지점을 확인하고 그 지점에 이를 알리는 글을 새기기도 하였다.



충효동 정려비각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다음으로 고경명 집안의 순절 여성들이 있다. 임진왜란 때 금산(錦山) 전투에서 순국한 의병장 고경명의 일가는 1충(忠), 3효(孝), 2열(烈), 1절의(節義)로 7명이 표장을 받았다. 1충은 고경명, 3효는 그의 장남 종후(從厚), 차남 인후(因厚), 손자 부금(傅金)이며, 2열은 그의 딸 노상룡(盧尙龍)의 처와 질부인 거후(居厚)의 처 광산정씨(光山鄭氏)이고, 1절은 그의 동생 경형(敬兄)이다. 1595년에 고경명과 경형, 종후, 인후가 정려되었으며, 1597년에는 노상룡의 처 고씨가 정려되었고, 1655년 부금이 정려되었으며, 1844년에 고거후의 처 광산정씨가 포함되었다. 노상룡의 처이자 고경명의 딸은 정유재란 때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또한 고거후(高居厚)의 아내 광산 정씨도 정묘호란 때 적이 핍박하자 분연히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흥양이씨순절비



고씨 삼강문,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길 66
(압촌동 산14)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넷째,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는 미래에 있을 수치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판관(判官) 김식의 아내 박씨(朴氏)는 정유재란 때 남편과 함께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왜적이 사방에서 수색을 하여 부녀를 옥보인 것을 보고, 스스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는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민중(敏中)의 딸 황씨(黃氏)는 허위 소문에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경우였다. 그녀는 대점(大岾) 효녀동(孝女洞)에 살았는데 출신은 한미하지만 효성이 지극했다. 어머니가 고질(痼疾)이 있자 길쌈을 하여 받은 돈으로 약값을 마련하고 지성으로 구호하여 마침내 병을 치료하였다. 그런데 그의 이웃에 나이 3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김유화(金惟華)라는 늙은 총각이 있었다. 그는 강제로 황씨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마을 사람 조위도(趙偉道)와 함께 거짓으로 자신과 황씨가 이미 사통(私通)을 하였다고 퍼뜨렸다. 또한 황씨의 필적을 모방하여 서로 왕래한 편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에 황씨가 밤낮으로 울면서 언문(諺文) 편지를 모두 불사르고는 “내가 이것 때문에 악명(惡名)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관청에 고하여 원통함을 풀어 달라 하였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자 황씨는 마침내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족과 작별하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조문하고 아울러 황씨의 평소 행실과 원통하게 죽은 시말(始末)을 듣고는 관청에 고하게 되었다. 목사 이윤(李倫)과 감사(監司) 이사명(李師命)이 김·조 두 사람을 잡아 엄하게 다스려 사실을 자백 받고 모두 장살(杖殺)하였다. 그리고 감사(監事)가 쌀과 포목을 황씨의 집에 주어 상장(喪葬)을 돕고 글을 지어 제사지냈다.

다섯째,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희생한 경우이다. 판결사(判決事) 고용후(高用厚)의 아내 기씨(奇氏)는 고용후가 정치적 사건에 연좌되어 3년을 옥에 갇히자 온갖 고생을 하며 구호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울면서 그 딸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네 아버지가 나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고는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오래지 않아 용후(用厚)가 은혜를 입어 석방되자 세상 사람들이 ‘지성감천(至誠感天)의 소치’라 하고 열부(烈婦)라 일컬었다.

여섯째, 남편을 따라 죽은 여성들이 있다. 먼저 억울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남편의 복수를 하고 따라 죽은 여성이 있었는데, 정언(正言) 빈(彬)의 딸이며 장사랑(將仕郎) 정시립(鄭時立)의 아내인 이씨(李氏)이다. 그녀는 양진강(梁進江)이 남편을 독살해 죽이자 법정(法庭)에 달려가 26일간 호소하여 마침내 남편의 복수를 하였다. 그리고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심지어 임신한 여성은 출산 후 남편을 따라 죽기도 하였다. 사인(士人) 유하식(柳夏植)의 아내이며 문경공 안국(安國)의 7대손 김씨(金氏)는 하식(夏植)이 일찍 죽자 통곡하다가 기절하였다. 그리고 직접 염(殮)과 습(襲)을 하고 장사를 예정대로 한 후, 만삭이 되자 본가로 돌아가 딸을 출산하였다. 김씨는 어머니에게 “지아비가 죽는 날 마땅히 자결을 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오직 배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을 하였으니 결단코 지하의 지아비를 따르겠습니다. 계집종을 택하여 유모(乳母)를 삼으소서” 하고는 음식을 끊었다. 그리고 즉시 시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고하고 7일 동안 단식하여 죽었다.

사인(士人) 윤업(尹業)의 아내 홍씨(洪氏)는 남편이 회시(會試)에 나

갔다. 두질(痘疾)에 걸려 객지에서 죽자 밤낮으로 통곡하고 단식 끝에 죽었다. 사인(士人) 기종조(奇宗趙)의 아내이며 박필욱(朴必郁)의 딸 박씨(朴氏)는 남편이 죽은 뒤 10여 차례나 자결을 하려다가 옆 사람에게 의하여 구제되자 끝내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사인 윤광훈의 아내 임씨(林氏)는 남편이 후사 없이 일찍 죽자 마음속으로 죽기를 맹세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3년 복을 마친 뒤 아버지와 작별하는 글을 짓고 문을 닫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임진왜란 때의 공신 김세근의 부인 청주한씨(1551~1592)는 남편 김세근이 금산 와평에서 순절하였다는 비보를 들었다. 시동생 김수근과 아들 김추남이 금산으로 가서 그 유해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초혼으로 선영 밑에 장사지냈다. 그리고 다음날 '시아비가 충으로써 죽고 아내는 열로서 죽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夫死忠婦死烈人之本)'라는 유고를 남기고 남편이 싸움터로 떠날 때 준 단검으로 자결하였다.

이덕호(李德浩)의 아내 유씨(柳氏)는 자신의 집에서 혼인을 마치고 미처 시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남편을 잃은 경우였다. 유씨는 머리털을 자른 뒤 아버지와 작별하고 상차(喪次)에 이르러 기절하였다. 이때 늙은 시아버지가 미움을 권하였지만, 몰래 옷솥에 쏟아 버리며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리고 7일이 지나 자진하여 죽었다.

일곱째, 허벅지 살을 베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시부모와 남편의 치료에 힘을 쏟은 여성들이다. 정덕린(鄭德麟)의 아내 강씨(姜氏)는 남편이 병에 걸리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였다. 또한 정호직(鄭浩直)의 아내 함풍 이씨는 남편이 병에 걸리자 다리를 베어 피를 받아서 남편의 입에 넣어 살리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 1830년 순조의 특명으로 정려(旌閭)하였는데, 정민영은 기문을 남겨 그녀의 순절을 기렸다.

아. 우리 가문에 효열부 이씨(李氏)는 즉 함평이씨 기성군(箕成君)의 후손으로 참봉벼슬을 한 희명(熙明)의 7대손 유학(幼學) 정호직(鄭浩直)의 아내이다. 그는 어버이를 섬기는데 노력을 다하였고 남편을 위해 죽었다. 조정으로부터 정려(旌閭)를 세우라는 특명이 있었으며, 그 효열(孝烈) 사례를 못 선비들의 글에서 유감없이 찬양하고 있으니 더 이상 찬양문은 필요하지 않다.

옛날 나의 아버지 효행(孝行)역시 선비들의 찬양하는 글이 한권의 책을 이루었으며 누차 조정에 천거도 하였건만 아직까지도 포양하라는 어명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자손들의 억울한 마음일 뿐이다. 이제 이 효열이 조상께서 남기신 얼을 자손이 계승하는 그 결과에 하늘의 보답이라는 이치를 어찌 알 것인가!

이와 같은 효열 사례에 나 같은 사람도 더욱 관심이 있는데 더구나 그 친 자질(子姪)들이야 언급할 것도 없다. 일찍 죽어간 이씨 두 아들이 상당한 학문과 지식이 있어 이부인(李夫人)의 효열 사례를 상세히 기록해 두었건만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으니 한탄하고 애석한 느낌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하여 늙고 옹졸한 내가 이 우(右)와 같이 전말(顛末)을 기록한다.

경인년(1830) 10월에 정민영 기록함.



함풍이씨 효열정려,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63-2번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서리(胥吏) 정봉서(鄭鳳瑞)의 아내 전조이(全召史)는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자신의 신체를 희생하며 치료하고자 하였다. 정봉서의 아내 추성전씨(秋城田氏)는 시부모를 지성으로 섬겨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고, 다시 시아버지가 병을 앓아 죽으려고 하자 다시 손가락을 잘라 수일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또한 남편이 병을 얻어 생명이 위독해지자 다섯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남편의 입에 넣어 희생하였다. 어사(御使)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칭찬하였으며 본도(本道)를 떠나는 날에 특별히 음식물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사 이승익(李承益)이 효자 정봉서와 열녀 추성전씨를 천거하여 1797년에 명정(命旌)이 건립되었다. 더구나 그 아들도 아버지 정봉서의 치료를 위해 그 손가락을 잘랐으므로 효를 계승한 집안이라고 일컬어졌다. 이수광(李守光)의 아내 서씨(徐氏)는 시부모가 질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봉양하고 대변을 맛보는 등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겼다.

이상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행위의 제약은 국가와 남성들의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훈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집을 보내는 여성 곧

딸과 결혼을 통해 들어온 여성 곧 며느리가 그 대상이었다. 교육의 내용은 여성의 자아실현보다는 남성가문에 종속된 존재로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행위 규범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속에서 '이상적인 여성'인 열녀의 행위는 개가를 거부하고 수절하거나 또는 유가적 의례를 과잉으로 실천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신체를 훼손하거나 자발적인 죽음 종사(從死)까지 이어졌다. 이상 일곱 가지 열녀의 유형에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교훈서를 통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내재화된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3. 부인의 봉호

조선시대 여성이 공식적으로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는 방식은 열녀나 효녀, 효부 등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행동으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봉호(封號)도 여성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보여 주는 방편이었다.

봉호는 외명부 제도의 봉증(封贈)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봉증제는 공신이나 일정한 직위에 오른 관료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 및 그 부모와 처에게 관직이나 작위, 외명부 등을 사여하는 제도이다. 봉증에서 '봉(封)'은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직이나 작위 등을 봉수(封授)하는 것이며 '증(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추증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국왕이 관료의 모와 처에게 외명부의 명호를 내린 것이다.

외명부 봉호는 총 10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1품에서 9품까지 품계를 구분하였다. 정경부인(1품), 정부인(2품), 숙부인(정 3품 당상관), 숙인(3품), 영인(4품), 공인(5품), 의인(6품), 안인(7품), 단인(8품), 유인(9품)이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봉호(「경국대전」, 「이전」, 외명부)

품계	1품	2품	정3품 당상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봉호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숙인	영인	공인	의인	안인	단인	유인

양반 여성이 봉호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생전에 남편의 관직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봉호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후 추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봉호를 받는 것이다. 추증은 사후이므로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으나 후손에게는 선조를 추모하고 집안을 빛내는 중요한 일이었다. 종친을 비롯해 문무관 가운데 실직 2품 이상에 임명되면 그의 3대 선조까지 관직 및 품계를 내렸다. 즉 아들이 관직에 출사하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받는 것이었다. 여성의 경우 어머니는 아들의 품계를 따르고 할머니와 증조모는 각각 1등급을 낮추었다. 그리고 추증이 될 경우 ‘증(贈)’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여성의 봉호는 묘지명이나 족보, 남편이나 아들의 행장 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호를 받은 광주 지역 여성의 사례로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부인함풍 이씨를 들 수 있다. 기대승의 부인은 충순위 보공장군 이임(李任)의 딸이다. 그녀는 기대승과 혼인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기대승의 행장을 살펴보면 그녀에 대한 기록은 “부인 숙

부인 이씨를 정부인에 추증하였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¹⁵ 이로 볼 때, 이씨의 생전 마지막 봉호가 ‘숙부인’이었고, 사후 ‘정부인’으로 추증 작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씨의 봉호는 기대승과 혼인하여 기대승의 생전 최고 관직에 따라 봉호를 받은 것이며, 사후 기대승이 추증됨에 따라 그녀도 추증된 것이었다. 기대승은 1572년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임명되었으며, 대사간·공조참의를 지내다가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던 중에 사망하였는데, 정 3품 당상의 공조참의 관직이었던 기대승의 관직에 따라 이씨도 생전에 외명부 ‘숙부인’의 봉호를 받았던 것이다. 아울러 기대승이 1577년 종계변무주청사가 되었을 때 중국 조정에 조선의 종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변무주문(辨誣奏文)을 지어 녹훈되어 1590년 수충익모광국공신정현대부이조판서겸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경연의금부성균관춘추관사덕원군에 추증되자, 숙부인 이씨도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김덕령의 부인 흥양 이씨도 1788년 남편의 추증으로 추증될 수 있었다. 김덕령은 1593년 담양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세력을 떨쳐서 선조로부터 형조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의 군호를 받았다. 그리고 1594년에는 익호장군(翼虎將軍)의 칭호를 받고, 선조로부터 다시 초승장군(超乘將軍)의 군호를 받았다. 그 뒤 충용군에 속하면서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았는데, 1596년 이몽학이 반란할 때 그와 내통했다는 무고로 체포되어 고문으로 옥사하였다. 1661년(현종 2) 신원되어 관직이 복구되고 1668년 병조참의에 추증, 1681년(숙종 7) 병조판서로 추증, 1788년(정조 12) 의정부좌참찬에 추증되자 흥양 이씨

¹⁵ 호남지방문화연구소,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도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양반 여성이 봉호를 받으려면 혼인은 필수 조건이었다. 남편이나 아들, 손자가 없이 여성 단독으로 그들의 업적에 의해 봉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여성이 서얼 출신이거나 재혼한 경우 봉호를 받을 수 없었다. 여성의 봉호는 혼인한 여성 중 적처 소생으로 재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Ⅲ 조선시대 광주 여성의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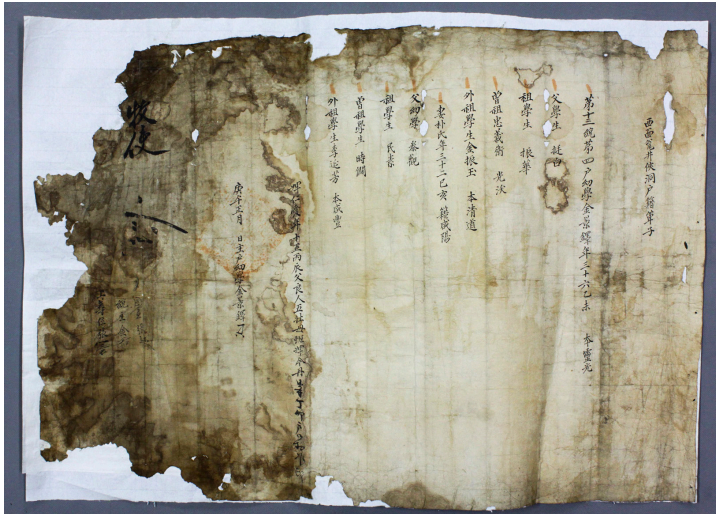
1. 가족 구성과 운영방식

가. 호구 자료의 호(戶) 기재 방식

조선시대 호구 자료에는 거주지, 호수와 그 처의 4조,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 현재 데리고 있는 노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호구 자료는 3년마다 관에서 작성한 호적 대장, 호적 대장을 작성할 때 각 호에서 작성하여 관에 바친 호구 자료인 호구 단자, 관에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호적 대장의 내용을 베껴 발급한 준호구가 있다.

이 호구 자료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호의 첫머리에 기재된 남성의 처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호에 소속된 여종은 주인의 소유 노비로서 파악되고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광주목에 제출되었던 호구 단자와 광주목에서 발급한 준호구 역시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음은 1750년(영조 26) 작성된 광주목 서면 옹정협동에 거주했던 단출한 어느 상산 김씨가 호의 호구 단자이다.¹⁶

¹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호남권역 자료센터, 호남의 호적, 인구 정보.



1750년 김경탁 호구 단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서면 오정협동 호적 단자

제 13통 제 4호 유학(幼學) 김경탁 나이 36세 을미년생 본(本) 영광

아버지 학생(學生) 건백

조부 학생 진화

증조부 총의위 광옥

외조부 학생 김진옥 본(本) 청도

처 박씨 나이 32세 기해년생 적(籍) 함양

아버지 유학 태관

조부 학생 민소

증조부 학생 시한

외조부 학생 이연방 본(本) 함풍

비(嬖) 인애 나이 15세 병진년생, 아버지 양인 오장, 어머니 반비(班婢) 금단 등

정묘년(1747, 영조 23) 호구와 서로 대조함. 끝.

경오년(1750, 영조 26) 정월 일 호(戶) 유학 김경탁 [착명]

풍 헌 (風 憲) 장 [착명]

통 주 (統 主) 김 [착명]

상존위(上尊位) 장 [착명]

목사 [착압]

호구 자료에서 호의 첫머리에 기록된 남성과 그 처는 한 호를 구성하는 주축이었다. 부부 각각의 이름이나 성씨, 직역(남편의 경우), 나이, 본적이 기재되었고, 각각 그들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 외조부, 즉 4조가 기재되었다. 남편과 처의 4조는 남편의 직역과 함께 이 부부의 신분을 알려준다. 이 호구 단자도 이러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식이 있으면 부부의 인적 사항과 4조에 대한 기록 뒤에 자식이 기재되고, 혼인한 자식이 이 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들, 딸과 함께 며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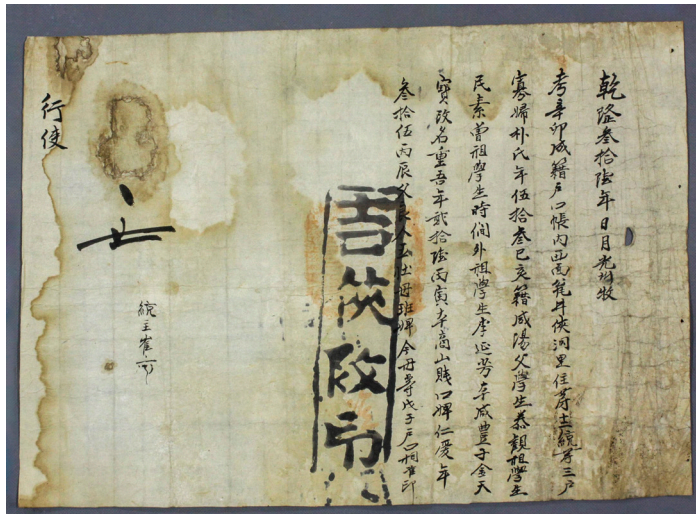
사위가 기재되게 된다. 만약 형제, 자매, 조카가 이 호의 구성원이라면 이들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750년(영조 26) 작성된 김경탁 호의 호구 단자에는 김경탁과 그의 처 박씨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자식과 동거하는 친족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부로만 이루어진 단출한 가족이었던 것이다.

동거 가족에 대한 기록 뒤에는 거느리고 있는 노비가 기재된다. 김경탁 호에는 인애라는 여종 1구만 기재되어 있다. ‘인애’라는 이름과 그의 나이가 기재된 후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신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애의 가족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애가 이 부부의 노비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천인이거나 아버지는 양인이지만 어머니는 천인인 경우 그 자식은 어머니 주인의 노비가 되었다. 따라서 인애의 어머니인 금단이 이 집안의 노비라면 인애는 이 집안의 노비가 되는 것이었다.

나. 여성이 호수(戶首)가 된 호구 자료

1750년(영조 26) 부부와 노비 1구로 구성되었던 이 집안의 가족 구성은 1771년(영조 47)에 광주목에서 발급한 준호구에서 변화했다.¹⁷ 이 문서는 준호구이므로 앞의 호구 단자와는 달리 항목 항목을 행을 달리해 구분해주지 않고 호구 사항을 연이어 기록했다.

¹⁷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호남권역 자료센터, 호남의 호적, 인구 정보.



1771년 과부 박씨 준호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건륭 36년(1771, 영조 47) 일 월 광주목

신묘년(1771, 영조 47)에 성적(成籍)한 호적 대장에서 고출(考出)했다.
 “서면 웅정협동리 거주 제12통 제3호 과부 박씨 나이 53세 기해년생 적(籍) 함양. 아버지 학생 태관, 조부 학생 민소, 증조부 학생 시한, 외조부 학생 이 연방 본(本) 함풍. 아들 김천보는 중으로 개명함. 나이 26세 병진년생 본(本) 상산. 천구(賤口) 비 인애 나이 35세 병진년생, 아버지 양인 오장, 어머니 반비 금단 등. 무자년(1768년, 영조 44) 호구와 서로 대조함. 끝.”

[주협개인(周挾改印)]

통주(統主) 최 [착명]

행 목사 [착입]

김경탁이 호수(戶首)였던 1750년(영조 26) 호구 단자가 작성된 지 21년이 지난 1771년(영조 47)의 준호구에는 53세가 된 과부 박씨가 이 호의 호수가 되었다. 남편 김경탁은 이미 사망했지만 박씨는 여전히 서면 응정협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박씨는 호수(戶首)가 되어 자신의 4조를 기록한 후 호구 단자를 올렸고, 이러한 내용이 호적 대장에 그대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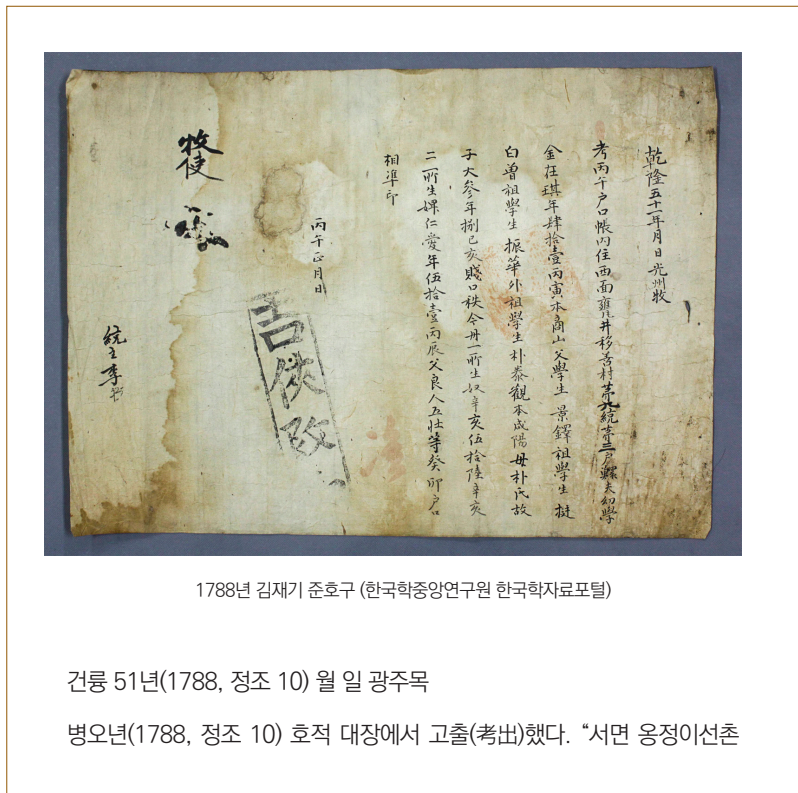
1771년(영조 47) 광주목 호적 대장을 베껴 발급한 이 준호구에는 박씨의 인적 사항과 4조가 기재되고, 그 뒤에 1750년(영조 26) 호구 단자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아들 김중오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준호구에서 김중오는 26세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병인년생, 즉 1748년(영조 22)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26세'는 '24세'의 오기로 판단된다. 김중오는 2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따로 호를 구성하거나 호수가 되지 않고,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김중오의 처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통해 볼 때 그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었던 듯 하다. 1771년(영조 47) 김중오의 나이가 24세라고 한다면 1750년(영조 26)에 그의 나이는 3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0년(영조 26) 호구 단자에는 누락되었는데, 당시에는 그가 어렸기 때문에 호구 단자를 작성할 때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가 양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상산 김씨가에는 1788년(정조 10) 광주목에서 발급한 박씨와 김경탁의 아들 김재기가 호수(戶首)가 된 다음의 준호구가 전해진다.¹⁸ 이 준호구에 의하면 1771년(영조 47) 과부로서 호수였던 박씨는 사망

¹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호남권역 자료센터, 호남의 호적, 인구 정보.

한 상태였다. 가족 구성원은 41세인 김재기와 8세인 그의 아들이고, 사내종인 신해와 여종인 인애 두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박씨와 김경탁의 아들이 1771년(영조 47) 준호구에 기재된 이름인 김중오가 아닌 김재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771년(영조 47)의 준호구에서 박씨의 아들 김중오는 병인년생이었다. 1788년(정조 10)에 발급된 이 준호구에서 김재기도 병인년생으로 기재된 것을 통해 판단할 때 이전에도 개명한 적 있었던 김중오는 이후 다시 이름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1788년 김재기 준호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건륭 51년(1788, 정조 10) 월 일 광주목

병오년(1788, 정조 10) 호적 대장에서 고출(考出)했다. “서면 웅정이선촌

제9통 제3호 홀아비 유학 김재기 나이 41세 병인년생 본(本) 상산. 아버지 학생 경탁, 조부 학생 건백, 증조부 학생 진화, 외조부 학생 박태관 본(本) 함양. 어머니 박씨 사망. 아들 대삼 나이 8세 기해년생. 친구 명단 금단 1소생 노 신해 56세 신해년생, 2소생 비 인애 나이 51세 병진년생. 아버지 양인 오장 등 계묘년생. 호구와 서로 대조함. 끝.”

병오년(1788, 정조 10) 정월 일

[주협개인(周挾改印)]

통주(統主) 이 [착명]

목사 [착업]

이 1788년(정조 10)의 준호구에서 김재기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홀아비 유학 김재기 나이 41세 병인년생 본(本) 상산’이라고 했다. 앞서의 준호구에서 어머니 박씨가 ‘과부 박씨’라고 기재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굳이 ‘홀아비’라는 사실을 기재했다. 김재기가 홀아비이기 때문에 처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김재기의 인적 사항과 4조에 대한 기록 뒤에는 ‘어머니 박씨 사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재기가 어머니 박씨를 봉양하며 살다가 이전 식년, 즉 3년 전 호적 대장 작성 이후 박씨가 사망했던 듯하다.

이렇게 박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호수 김경탁의 처로 기재되

었고, 남편 사망 후에는 아들이 24세 때까지도 자신을 호수로 하여 호구 단자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호적 대장에 호수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이후 박씨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호구 단자나 준호구가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호구 자료의 사례를 감안할 때 아들이 혼인한 후에는 아들의 봉양을 받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남편 사망 후 박씨가 호수가 되었을 때 ‘과부 박씨’라고 기록했는데, 1717년(숙종 43) 광주목에서 발급한 신정수 처 유씨가 호수인 준호구에는 ‘고(故) 학생 신정수 처 유씨’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⁹ 같은 광주목에서 발급한 준호구에 남편 사망 후 호수가 된 두 여성에 대한 기재 방식이 이렇게 다른 것은 준호구의 근거 자료인 호적 대장 작성시 각 호에서 제출했던 호구 단자의 기재 차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 사람은 자신을 ‘과부’로 다른 한 사람은 ‘사망한 남편의 처’로 위치지웠다는 사실 역시 흥미로운 지점이다.

2. 혼인한 여성의 친정, 시가와와의 관계

가. 형제와의 관계

조선 전기에는 혼인 후 오랜 기간 동안 처가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영위되었다.²⁰ 이에 관한 연구들은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병어리

19 『고문서집성 27-영광 영월신씨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42~345쪽.

20 김일미, 「朝鮮의 婚俗變遷과 그 社會의性格 :李朝前期를 中心으로」, 『이화사학연구』 4, 1969; 이순구,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3년'과 같은 말로 상징되는 혼인 후 처와 며느리로서의 삶이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처가 중심의 부부 생활이 시가 중심의 생활로 변하게 된 주요한 이유로 친영례(親迎禮)의 도입 과정이 주목받았다. 조선 건국 이후 위정자들은 『주자가례』의 혼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 절차 중 하이라이트가 친영례인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혼례를 치르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른 후 그날 밤 동침하고 다음 날 시부모를 뵈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른 후 신부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는 풍속이 있어 친영례가 정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6세기 말 이후에는 일부 사족 계층에서 반친영(半親迎)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친영례가 정착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에는 남편의 집이 가족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에서의 혼인 후 거주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 후기까지도 친영례가 정착되기 어려웠으며, 가관(假館) 친영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친영례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²¹ 가관 친영례는 임시로 신부집, 혹은 신랑의 집을 지정하여 혼례를 치르는 방식으로 만약 신부집 가까이에 임시로 신랑의 집을 지정하여 혼례를 치르거나 신부집을 신랑집이라고 치고 가까이에 임시로 신부집을 마련하여 혼례를 치르는 경우 처가에서의 거주 방식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조선 후기에 거주지가 시가로 바뀌는 현상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21 장병인,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新俗禮·半親迎·假館親迎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9, 2015.

따라서 조선 후기 여성과 친정 식구들과의 친밀한 관계 역시 혼인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신의 가에 전해지는 1746년(영조 22) 기태동이 32세로 사망한 누이 동생을 애도하며 지은 제문에서도 오누이간의 친밀한 정이 드러난다.

현존하는 이신의 가의 문서는 17세기 초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이신이가 처향인 호남 지역에 낙향한 후 그 장자인 이호가 처향인 광주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그 자손들이 광주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면서 생산되었다. 기태동이 누이의 영전에 전한 이 제문이 이 가문에 전해지는 것도 기씨가 이신의 가의 종손인 이운의 처이기 때문이다. 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1746년 기태동이 사망한 누이 동생을 애도한 제문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²² 이 제문은 정승혜 교수의 논문에서 소개한 바 있다(정승혜, 「儒學 奇泰東이 죽은 누이를 위해 쓴 한글제문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7, 2013).

유세차 병인년 5월 24일에 태동(泰東)이 사망한 누이 유인 행주 기씨 영전에 전합니다.

아! 슬프도다. 술 한 잔을 올리고 우는 것이 어찌 내 슬픔을 사하며, 두어 줄의 글이 어찌 다 누이의 덕행을 기록하겠는가.

아, 슬프도다. 누이의 나이 겨우 서른둘인데, 하늘이 어찌 우리 누이를 바삐 애타가셔서 이 노쇠한 동기의 물골이 더욱 마르고 심신이 다 스러지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이이거늘 내가 도리어 울고, 나를 장사지낼 사람이 누이이거늘 내가 도리어 장사지내니, 천리(天理)에 어긋나고 인사(人事)의 변(變)이로다.

내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이 명(命)이 있는 것이라고 비록 스스로 위로하고자 하나, 형제는 지정(至情)이라 다 이 부모의 유체(遺體)이니, 나는 살아 있고 누이는 죽었다는 설움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누이는 저승에 있고 나는 이승에 있다는 한스러움이 일을 따라 일어나는지라. 달이 밝으면 생각하고, 바람이 맑으면 생각하고, 꽃이 피어도 생각하고, 잎이 떨어져도 생각하고, 자다가 깨어도 생각하고, 길가다가 멈춰도 생각하고, 근심되어도 생각하고, 즐거워도 생각하고, 배불러도 생각하고, 따스해도 생각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으니, 비록 생각하지 않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다. 하늘이 높고 땅이 멀지만 이 한(恨)이 더불어 한가지로 길고, 바다와 강이 넓으니 이 회포도 더불어 한가지로 깊도다.

아, 슬프도다. 차마 말로 할 수 있겠는가. 계례를 올리지도 않았던 때부터 타고난 자품(天姿)이 부드럽고 고요하며[柔靜] 본성이 성실하고 사려 깊어[塞淵] 규의(閨儀)가 성숙하고, 효성스러움이 특별[異凡]했다. 부모님을 모시는 절차에 관계된 일에는 비복도 능히 못할 수고로움과 견디지 못할 괴로

움이라도 반드시 직접 감당하여 조금도 어려운 빛이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
께 병환이 들면 모진 추위와 혹독한 더위에도 반드시 죽을 드리고 약 시중
을 하는 수고로움을 스스로 감당하여 밤이 새고 날이 저물도록 게을리하지
않고 근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색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는 것도
매우 정성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머님께서 본시 오래된 병이 있어서 오직 술을 맛보시는지라, 능히 스스
로 술을 빚어 항상 바치고, 어머님이 병중에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비록 그
것이 나올 때가 아니라도 정성을 다하여 얻어 반드시 바친 후라야 그쳤다. 어
머님의 입에 맞는 음식을 맨손으로 능히 이리 했으니, 효도가 이미 지극하고
재주 또한 기이했다. 하늘이 낸 바탕이 아니면 능히 이 같을 수 있겠는가?

형제에게 우애가 이미 도탑고, 친척에게 돈목(敦睦)이 또 극진했으니, 나
머지 일 길쌈[女紅]은 갖추어져 넉넉함이 있고, 의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따
지는 것은 문득 의연한 한 장부라.

내 일찍이 이르되 어질고 효성스러운 유풍(遺風)을 누이가 홀로 되살리니
옛 숙녀(淑女)에 견주매 가히 짝이 될 것이다. 또 그 고족(高族)의 빈(蘋)을
받들매 능히 부모 섬기던 바로써 시부모[舅姑]에게 옮기되 마음가지기를 정
성으로써 법을 삼고 몸 다스리기를 유순(柔順)으로써 근본을 삼아 살아계시
는 시부모님을 섬기고 돌아가신 선조를 받드는 도가 일마다 마땅했다. 그리
하여 시부모께서 사랑하셔서 매양 일컬어매 반드시 말씀하시되 “내 어진 며
느리여, 내 어진 며느리여” 하시며 무릇 크고 작은 일에 위임하지 않음이 없
었다. 사람의 며느리 되어 능히 시부모님의 즐기시는 마음을 얻었으니, 부
인의 일을 다한지라. 이는 족히 평생 행실의 한 단안(斷案)이다.

아래 사람을 거느리는 방도는 은혜와 위엄을 함께 행했고, 이웃을 대접하

는 도리도 인후(仁厚)함이 극진한지라. 가까이 비복 부류와 멀리 마을 사이에 어진 부인으로 일컫지 않는 사람이 없어 운명하던 날에 이르러 모두 탄식하여 울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갑자기 이에 이르렀느냐” 하니 이는 평소 인덕(仁德)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말하리오.

아, 슬프도다. 누이가 한 몸이 감에, 시부모가 어진 며느리와 헤어지시고, 옥랑(玉郎)이 아름다운 배필을 잃고, 노형(老兄)이 그 어진 누이와 헤어지니, 사람의 이치에 참독(慘毒)함이 이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 하물며 두 딸이 겨우 무릎을 떠나고, 한 아들은 생발(生髮)이 마르지 않았으니 수척한 형상을 보매 내 마음이 꺾어지고,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내 창자가 미어지니, 죽는 자가 어찌 눈을 감으며 산 자가 어찌 가슴에 쌓이지 않으리오. 옷이 따스하지 못한들 누가 능히 근심하며, 밥이 배부르지 못한들 누가 다시 염려하리오.

아, 슬프도다. 누이 황천의 아래에 돌아감에 반드시 부모님을 뵈는 것이라.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고, 동정(動靜)에 서로 따른다면 슬하의 지극한 즐거움이 저승과 이승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평소 매우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즐거움을 삼으려니와 그욕이 없으려 생각하니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장차 나무라며 말하되 “나이라도 들지 않아 어찌 내 외로운 의지할 곳 없는 몸을 버려두고 네 아이 강보의 생명을 버리고 갑자기 수야(脩夜)의 행을 지었느냐?” 하시면 또한 무엇으로써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말씀에 대답하리오.

...〈하략〉...²³

23 기태동 본인의 슬픔을 서술하여 제문을 마무리한 몇 단락은 생략했다.

이 제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사망하여 다시 보지 못하는데 대한 슬픔과 한스러움, 누이 동생의 생전 효성스럽고 현숙했던 행적을 기술했다. 특히 “달이 밝으면 생각하고, 바람이 맑으면 생각하고, 꽃이 피어도 생각하고, 잎이 떨어져도 생각하고, 자다가 깨어도 생각하고, 길가다가 멈춰도 생각하고, 근심되어도 생각하고, 즐거워도 생각하고, 배불러도 생각하고, 파스해도 생각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으니, 비록 생각하지 않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나 사망한 동생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혼인한 후에도 혼인한 여성과 친정 동기간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누이 동생의 덕행에 대한 기술에서 시부모에 대한 효성을 친부모에 대한 지극히 효성스러운 마음과 행적을 시부모에게 옮긴 것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기태동이 친정 부모에 대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효성과 도리에 따른 시부모에 대한 효성을 구분하여 인식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누이 동생에 대한 친정 오빠의 제문은 18세기 혼인한 여성이 여전히 친가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기태동은 누이의 덕행을 기술하면서 부모, 시부모에 대한 효성스러운 행적 뿐 아니라 형제, 친족, 이웃과 돈독하고 화목하게 지냈고, 아랫 사람에게 은혜와 위엄을 가지고 대했다는 점도 기술했다. 그리고 “의리를 분변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은 문득 의연한 한 장부라.”라고 서술한 부분이 주목된다. 의리를 분변하고 시비를 따지는 장부와

같은 면모도 친정 오빠로써 사랑하고 싶은 누이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는 18세기 중반까지도 여성의 덕행이 유순함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여성의 입후권(立後權)과 시가와와의 관계

유교적 제사 형태가 정착되기 전에는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양자를 들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종법적 질서와 유교적 제사 형태가 정착되기 전에는 아들, 딸이 모두 부모의 제사를 담당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부모 제사를 담당하는 윤희 봉사와 각각의 제사를 나누어 담당하는 분할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봉사 형태는 부모 사후에도 생시와 같이 봉양한다는 인식하에 나타난 것으로 장자만이 부모 제사를 담당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유교적 제사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다.²⁴ 따라서 이 당시의 제사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했다.

고려시대의 양계적 친속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조선 전기에는 양자나 양녀를 들이더라도 부부가 각각 자신의 친족을 양자나 양녀로 삼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양자나 양녀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양자녀는 수양자, 수양녀, 시양자, 시양녀로 지칭되었다.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는 자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 들이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닌

24 정공식,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17~21쪽 참조.

여러 명의 수양 자녀나 시양 자녀를 두기도 했다.²⁵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유교적 제사 형태 정착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1437년(세종 19)에는 그 일환으로 아들 없는 사람의 제사를 담당할 계후자를 세우는 원칙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후 약간의 개정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최종본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적처(嫡妻)와 첩(妾)에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官)에 고하여 동종지자(同宗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도록 한다. (양가(兩家)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우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면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 존속과 형제 및 손자는 후사로 삼지 못한다.)²⁶

이 법에 의하면 계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동종지자로 규정하고, 존속, 형제, 손자는 후사로 삼지 못하게 했다. 즉, 남편측 동성 친족 장자가 아닌 아들로, 아들 향렬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계후자로 세우고자 하더라도 사사로이 할 수 없고, 관에 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관에 고할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규정되었는데, 바로 양자가 될 사람의 생부와 양부, 즉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소지를 올려 관에 고해야 했다. 만약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관에 고할 수 있었

25 박경, 『조선 전기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66~91쪽 참조.

26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經國大典』 권3, 禮典, 立後.) ※ 세주는 < >로 표시함.

다. 이들이 담당 관서인 예조에 고하면 예조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 입후 사안이 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본 후 법에 부합하면 입후를 허가하는 입안을 발급했다. 이를 흔히 계후를 허가한 입안이라 하여 계후 입안이라고 한다.

입후법 규정에 의해 입후를 하고자 하는데 친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친가 어머니가, 양자가 될 집안인 소후가(所後家)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소후가의 어머니가 관에 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남편과 자신, 그리고 남편의 직계 조상의 제사를 받들 계후자를 세우고자 관에 고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다음 문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신정수 처 유씨가 남편의 동성 8촌형을 계후자로 삼기 위해 관에 고하여 발급받은 계후 입안이다. 당시 신정수 처 유씨는 남편 생전에 함께 살았던 영광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신정수 처 유씨가
 신용백을 입후한 계후 입안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강희 56년(1717, 숙종 43) 5월 일 예조 입안

이 입안은 계후를 위한 것이다.

예조 계목에,

“이번에 고(故) 학생 신정수가 후사가 없어 그 처 유씨가 그 남편의 동성 8촌형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입후하고자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 측의 호구를 제출받으니, 입적(入籍)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유씨의 소지에, ‘남편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 없이 사망하여 남편의 동성 8촌형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고자 양가(兩家)에서 함께 의논하여 소지를 올리니, 다른 입후 사안에 의거하여 입후해 주십시오’라는 소지였습니다.

유학 신만정의 소지에, ‘동성 8촌 아우 정수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 없이 사망하여 저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함께 의논하여 소지를 올리니, 다른 입후 사안에 의거하여 입후해 주십시오’라는 소지였습니다.

유씨의 함사(緘辭)에, ‘남편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 없이 사망하여 남편의 동성 8촌형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함께 의논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만정의 조목에, ‘동성 8촌 아우 정수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 없이 사망하여 저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고자 양가에서 함께 의논하여 소지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정수, 신만정 등의 문장(門長) 유학 신만화의 조목에, ‘신정수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 없이 사망하여 그 처 유씨가 그 남편의 동성 8촌형 만정의 둘째 아들 용백을 계후하고자 하여 양가에서 함께 의논하여 소지를 올린 것

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지 및 함사, 조목에 의거하여 상고하니, 『경국대전』 입후조에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으면 관에 고하여 동종지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라고 했고, 그 주註에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신용백을 신정수의 계후자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강희 56년 5월 7일 우부승지 신 이성조가 담당하여 계문하니, ‘계문한대로 윤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안을 발급한다.

			정랑	좌랑
판서	참판	참의[착업]	정랑	좌랑
			정랑	좌랑[착업]

이 계후 입안에는 먼저 소후가의 어머니가 될 신정수 처 유씨와 친가 아버지인 신만정이 예조에 신정수의 계후자로 신만정의 둘째 아들 신용백을 계후하고자 한다고 올린 소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신정수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다는 사실과 신용백이 신정수의 동성 8촌형의 둘째 아들로, 동종지자이며 아들 항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이 소지를 접수한 예조에서는 유씨와 신만정, 문장(門長)에게 소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경국대전』 입후조를 상고한 후 이 계후 사안이 법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

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후 왕에게 계목을 올려 왕의 윤험을 받아 이 입안을 발급했다. 유씨는 신용백을 계후자로 세운 후 홀로 광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입후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시가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다만 문중의 영향력이 큰 경우에 어머니로서의 입후권이 여성의 위상에 어느정도 관계되는지는 더 천착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 담양의 여성 지식인 송덕봉의 주체적인 자기 인식과 부부 관계

신정수 처 유씨는 계후자를 세우고 광주로 이주하기 전 영광에 거주하면서 시부모 묘를 개장(改葬)할 계획을 세우고 남편 쪽 노비를 추쇄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식의 묘자리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영월 신씨가 다른 남성들에 맞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여성을 부계중심적인 질서 내의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고정 관념과 다른 모습의 여성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6세기 광주 인근 지역인 담양에 거주하던 송덕봉의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그 남편인 유희춘의 일기 『미암일기』에 전해지고 있다.²⁷ 그는 자신의 집인 담양을 근거지로 하여 부부 생활을 영위

²⁷ 송덕봉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이전에 쓴 「16세기 조선의 여성 지식인, 송덕봉」이라는 글을 참조하여 쓴 것이다(박경, 「16세기 조선의 여성 지식인, 송덕봉」, 『여성의 역사를 찾아서』, 나남, 155~171쪽).

했다. 이들 부부의 삶에서도 혼인 후 처가를 근거지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조선 전기의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다만 남편이 관직 생활을 할 때 남편의 부임지나 서울에서 잠시 거주했고, 남편이 유배 생활을 할 때에는 시어머니 장례와 3년상을 마친 후 남편의 유배지로 가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남편의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까지 홀로 찾아갔다는 점에서도 부부간의 신뢰 관계와 송덕봉의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송덕봉은 손자에게 읽힐 책을 바꾸어야 한다며 남편과 의논하기도 했다.²⁸ 또한 유희춘은 그의 일기에 『유합(類合)』 하권을 번역하면서 부인에게 물어보고 수정한 부분이 많다고 기록하기도 했다.²⁹ 한번은 유희춘이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홍문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상서(尙書)』를 교정하는데, “若作酒醴 爾惟麴蘖(만약 술을 만들거든 네가 누룩과 엇기름이 되며)”라는 어구에서 ‘蘖’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자 유희춘은 아내인 송덕봉에게 조언을 구했다. 유희춘과 홍문관의 동료들은 당대 뛰어난 학자들이었지만 술을 빚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蘖’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송덕봉은 그의 경전에 대한 지식과 생활 경험을 살려 “蘖은 보리나 밀을 물에 담갔다가 짚섬으로 싸서 더운 곳에 두면 자연히 싹이 나는데, 그것을 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술에 넣으면 달게 되니 누룩 가루에 조금 섞으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³⁰ 부부가 모두 한문과 경전에 밝았고, 자신의 모르는 부분을 스스

28 『미암일기』 병자(1576) 정월 19일.

29 『미암일기』 갑술(1574) 3월 27일.

30 『미암일기』 갑술(1574) 5월 1일.

럼없이 물어보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대화였다.

이들 부부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는 1569년(선조 2) 9월 부부가 함께 도성에 있을 때 유희춘이 우부승지로 며칠째 승정원에서 입직하다가 집에 모주(母酒) 한 동이를 보내며 지어 보낸 시와 이에 화답한 송덕봉의 시에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유희춘은 술과 함께 직속하면서도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다음의 시를 지어 보냈다.

雪下風增冷 눈 내리고 바람 더욱 차가우니
思君坐冷房 냉방에 앉아있는 님이 생각나오.
此醪雖品下 이 술이 비록 하품이기는 하지만
亦足煖寒腸 언 속을 덥히기는 족하겠지요.³¹

그러자 다음 날 송덕봉은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표하는 시로 화답했다.

菊葉雖飛雪 국화잎에 비록 눈발은 날리오나
銀臺有煖房 은대에는 따뜻한 방이 있겠지요.
寒堂溫酒受 추운 집에서 따뜻한 술을 받아
多謝感充腸 속을 채우니 고마움이 그지 없어라.³²

31 『미암일기』 기사(1569) 9월 1일.

32 『미암일기』 기사(1569) 9월 2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학문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시로써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유희춘은 때로 송덕봉이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그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면 흔쾌히 수용했다.

1570년(선조 3) 6월 송덕봉은 담양에 있었고, 유희춘은 도성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유희춘은 송덕봉에게 3, 4개월동안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고 홀로 지냈다면 값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줄 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³³

편지를 보니 값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양 자랑하셨는데,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군자가 행실을 닦고 마음을 다스림은 성현의 밝은 가르침인데 어찌 아녀자를 위하여 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중심(中心)이 이미 정해지면 물욕(物欲)이 가리기 어려우니 자연히 잡념이 없을 것인데, 어찌 규중의 아녀자가 은혜를 값기를 바라십니까. 3, 4개월 독숙(獨宿)을 했다고 고결하여 덕색이 있다고 이른다면 결코 담박하여 무심(無心)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깨끗하여 밖으로 화려한 것을 끊고 안으로 사념(私念)이 없다면 어찌 꼭 편지를 보내 공을 자랑해야만 알 일입니까. 곁에 지기(知己)의 벗이 있고 아래로 권속, 노복의 무리가 있어 여러 사람이 보는 바이니 공론이 자연히 퍼질 것인데 애써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겉으로 인의(仁義)를 베푼 척하는 폐단과 남이 알아주기를 서두르는 병통이 있는 듯 합니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근심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33 『미암일기』 경오(1570) 6월 12일.

나도 당신에게 잊지 못할 공이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몇 달간 독숙하고 붓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그 공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60이 가까워오니 만약 이렇게 독처(獨處)한다면 당신의 기운을 보하는데도 크게 이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갓기 어려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귀한 관직에 있어 도성의 만인이 우러러보는 때에 비록 몇 달간의 독처라도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당(慈堂)의 상에 사방에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은 만리의 밖에 있어 하늘에 부르짖으며 애통해하고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극히 정성스럽게 예장(禮葬)하여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곁의 사람들 중에는 “성분(成墳)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록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삼년상을 마치고 또 만리의 길을 나서 멀리 험난한 길을 갔는데 누가 이것을 모릅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이와 같은 지극히 정성을 다 한 일이 바로 잊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이 몇 달 동안 독숙한 공과 내가 한 몇 가지 일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습니까. 원컨대 공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하여 수명을 늘리십시오.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 뜻을 헤아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송덕봉은 일단 행실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군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아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독숙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유자(儒子)로서 스스로를 수양하는 일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자로서 행실에 충실하다면 자랑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소문이 퍼질 것인데, 편지를 보내 자랑한 것은 “인의(仁義)를 베풀 척하는 폐단과 남이 알아주기를 서두르는 병통이 있는 듯 하여” 근심된다며 조언했다. 유학자로서의 근본적인 자세를 성찰하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송덕봉은 유희춘이 3, 4개월 독숙하고, 이를 자랑하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유학자로서의 행실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며 남편의 행동을 복돋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점과 자신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유희춘이 몇 달 독숙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며, 유희춘이 오히려 자신의 공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여기에서 송덕봉이 시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남편의 유배지로 갔던 일을 당연한 일이 아닌 남편이 고마워해야 할 일로 인식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는 송덕봉이 부계중심 친족질서에 매몰된 존재가 아닌 주체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남편이 이 행동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송덕봉의 대응에 유희춘이 “편지 내용이 좋아 탄복을 금할 수 없다”며 감탄한 점을 통해서 이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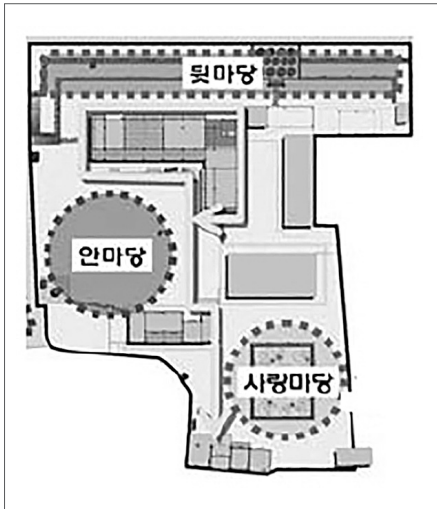
3. 일상생활 공간의 구별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은 ‘남녀유별’, ‘내외관념’ 등으로 인해서 공간이 구별되고 생활에 각종 규제가 뒤따랐다. 밖으로 나가는 것, 길을 다니는 것, 얼굴을 내놓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선, 여성들은 밖이 아닌 집 안에서 주로 생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여성의 공간이 구별되어 있었다. 『예기』에 따르면, “예법은 부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에서 시작한다. 집에서도 내외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쪽 깊은 곳에 거처해야 하는데 문을 꼭꼭 걸어 닫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을 둔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남편이 아내의 거처에 들어가지 않으며 아내도 그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사회적 역할이 다른 남녀는 그에 맞게 생활공간도 달라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유교의 규범에 따라서 안채, 안마당, 사랑채, 사랑마당 등 남녀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었다. 양반들은 이와 같은 유교 관념의 구현에 치중하였다.

안타깝게도 광주지역에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선시대 가옥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899년 건축된 이장우 가옥이 전통가옥 형식을 갖추고 있어 광주지역의 조선시대 남녀 생활공간의 분리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장우 가옥은 대문간, 곳간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배치된 전통가옥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내부 공간분할에 있어서도 남녀구별이 엄격하며 상·중·하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지붕은 기와집이며 대문은 솟을대문을 하고 마당은 바깥마당, 사당마당, 별서 등으로 남녀의 공간이 분할되어 있다.³⁴

34 허준, 장민, 이시영, 「민가의 전통정원 재현 및 활용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이장우 가옥을 대상으로-」



이장우 가옥 안마당과 사랑마당(허준, 장민, 이시영, 「민가의 전통정원 재현 및 활용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이장우 가옥을 대상으로-」 『농업사연구』 제8권 3호, 2009, 123쪽)

먼저 안채와 안마당은 여성들의 생활공간이었다. 안채는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 규방, 안방, 방청이라고 하였다. 집안에서도 비교적 독립되고 폐쇄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편의 생활공간인 사랑채와는 담을 쌓아 분리하였다. 안마당은 대개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폐쇄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옛날에는 길쌈을 하는 가사노동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고 혼례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인들의 노동의 장소이므로 화포(花圃)나 약포(藥圃), 채소밭을 둘 수가 없었다. 조경하지 않고 밝게 비워두었다. 이렇게 나무를 심지 않고 마당을 비워두는 것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중정에 나무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인가의 중정에 나무를 심으면 한 달에 천만의 재물이 흩어진다(中庭不宜種樹 人家種植中庭一月散財千萬)”라는 풍수설에 의한 것이었다.

남성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 공간인 안채 사이에는 담과 문이 존재하였으며, 그 개폐여부에 따라 두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거나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담은 부부의 생활공간을 경계 짓는다 하여 내외담이라 부르기도 했다. 물론 내외담의 일부를 뚫고 문을 내어 집안 내부에서 소통에 필요한 동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 문을 중문(中門)이라고 한다. 집집마다 내외담이나 중문을 두는 방식은 집터, 지형 등 물리적 조건과 집안의 전통,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사랑채와 사랑마당은 남자의 전용생활공간이다. 주택의 외부 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대문, 중문으로 연결되는 그 집의 대표성을 지닌 중심 마당이다. 사랑마당은 조경으로 잘 꾸며져야 하는 공간이다. 매화, 복숭아, 오죽, 국화, 철쭉, 난 등을 심은 화단이 조성되기도 하고 담에 괴석이나 수조를 배치하여 수련을 기르기도 한다. 사랑마당 중앙에는 큰나무를 심지 않는데, 이는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밝게 비워두는 것이다.

IV 조선시대 광주 여성의 경제·사회생활

1. 여성의 재산권과 재산 운용 방식

가. 조선시대 딸에 대한 재산 증여·상속분의 변화

조선 전기에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녀들에게 평균분급하던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국대전』에도 봉사조를 제외하고는 여러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³⁵ 그러나 17세기 이후가 되면 남녀 차등 상속, 장자 중심 상속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조선시대 일반적인 재산 증여·상속 관행에 대한 이해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산은 재산 소유권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었다. 법전에 여러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주도록 규정한 것은 부모가 나누지 않고 사망해서 그 재산을 관에서 나누어주어야 할 때였다. 이렇게 재주의 뜻이 법전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자손들에게 재산을 차별하여 나누어주는 것도 가능했다. 조선 후기에 아들, 딸을 차별해서 재산을 나누어주거나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던 것은 이러한 재산 증여·상속 구조 때문에 가능했다.

³⁵ 『경국대전』 권5, 형전, 私賚.

조선 정부에서는 건국 이후 꾸준히 유교적 제사 형태를 정착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사족들은 그들 스스로 예론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실생활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자녀가 부모 제사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단계에서 적장자가 제사를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해갔다.

또한 조선 건국 후 위정자들이 음(陰)이 양(陽)을 따라야 한다는 명제 하에 처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며, 친영례 도입을 통한 부가(夫家)에서의 거주를 독려하고자 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과 유교 이념의 확산에 따라 17세기 정도에 이르러 양반층의 생활 내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1669년(현종10) 부안의 김명열 형제가 자손들에게 전한 문서에서는 제사를 윤행하지 말고 종가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리고 “딸은 시집간 후에는 다른 가문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정리(情理)는 비록 아들과 딸에게 차이가 없지만 살아있을 때에는 봉양하는 도리가 없고, 사망한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예가 없다”며 재산을 주는데 아들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³⁶

적장자 중심의 제사 형태가 정착되고, 혼인한 딸과 친정 가족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가는 상황에서 아들에 비해 딸의 상속분은 감소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17세기에 모든 가문에서 일률적으로 딸의 상속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이신의 가에서는 이러한 조선 후기 증여, 상속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³⁷

³⁶ 1669년 김명열 형제가 자손에게 전한 문기(한국고문서자료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³⁷ 이신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김경숙 교수의 연구가 있다(김경숙, 「조선 후기 光州 俞義李氏家の 재산상속」, 『사학연구』 99, 2010).

나. 이신의 가의 재산 증여와 상속

이신의 가에는 1697년(숙종 23) 이운부 처 박씨가 여섯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문서와 1703년(숙종 29) 이집 처 유씨 4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문서가 남아있다. 전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준 형태에 해당하고, 후자는 부모 사망 후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 조선 전기에는 이 두 가지 증여·상속의 형태에서 모든 자녀들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분재가 이루어진 반면 조선 후기에는 차등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분배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신의 가에 남아있는 이 두 문서는 각각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의 문서로 비슷한 시기의 문서이다. 그런데, 이운부 처 박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문서에서는 아들, 딸을 차별하여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이집 처 유씨와 그 형제, 자매들이 재산을 나누는 문서에서는 아들, 딸이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다.

우선 이운부 처 박씨가 여섯 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문서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운부는 이신의의 증손이다. 박씨는 이 문서에서 남편인 이운부가 사망하고 자신의 나이도 많아 뒷날의 폐단을 막기 위해 토지와 노비를 평균 분급(平均分給)한다고 했다. 다만 딸자식들이 먼 곳에 거주하여 윤희 제사를 봉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네 아들에게 약간의 전답을 더 주어 부부의 제사를 윤희하여 봉행하게 한다고 했다.

실제 분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운부 처 박씨 노비, 전답 분급 문기의 분재(分財)

구분		노비 (단위: 구)	전답 (단위: 두락지)		
부모 봉사조		0	논 10		
봉사조		2	논 5, 밭 7		
묘직조		2	논 2, 밭 4		
		일반, 제위조 구분	합계	일반, 제위조 구분	합계
장녀 안후기	일반	6	6	논 9, 밭 3	12
	제위조	0		0	
장자 집	일반	10	12	논 12, 밭 14	31
	제위조	2		논 5	
2자 응	일반	9	11	논 12.5, 밭 14	31.5
	제위조	2		논 5	
3자 준	일반	11	13	논 12, 밭 14	31
	제위조	2		논 5	
4자 윤	일반	10	12	논 12.5, 밭 5	22.5
	제위조	2		논 5	
말녀 김승호	일반	6	6	논 6, 밭 6	12
	제위조	0		0	
총 재산		64		168	

〈표 1〉을 살펴보면, 총 재산 노비 64구, 전답 168두락지 중 일부 재산을 부모님 봉사조와 이운부, 박씨 부부의 봉사조와 묘직조로 설정했다. 부모님 봉사조를 둔 까닭은 부모님 봉사 제위조 논 12두락지를 남편 이운부가 살아있을 때 잘못 팔아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몫으로 받은 재산 중 논 10두락지를 대신 채워 넣은 것이었다.

박씨가 이 문서의 서문에서 표방했던대로 네 아들에게는 각각 제위조로 노비 2구, 논 5두락지를 주었지만 두 딸에게는 제위조 노비와 전답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평균 분급한다는 말과는 달리 제위조 외의 재산도 차등분급했다. 즉, 아들들이 9~11구의 노비를 받는데 비해 딸

들은 6구의 노비를 받았다. 논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딸이 제사를 담당하지 못한다는 실제적인 이유 외에도 시집간 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집은 이운부의 장자로, 위의 분재기에서 재산 수급자로 등장한 인물이다. 이 이집의 처 유씨가 그 형제, 자매들과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문서는 유씨가 이때 받은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전해지게 되었다.

〈표 2〉 이집 처 유씨 4남매 화회 문기의 분재(分財)

	노비 (단위: 구)	전답 (단위: 두락지)	
		논, 밭 구분	논, 밭 합계
봉사조	5	논 10.5	10.5
1매 (정만적 처)	6	논 19, 밭 5	24
2매 (나재정 처)	6	논 16, 밭 7	23
3매 (이집 처)	6	논 16.5, 밭 5	21.5
말남 (유경석)	6	논 17, 밭 5	22
말매 (조선극 처) (자식 없이 사망)	1	논 4	4
합계	30	105	

〈표 2〉를 살펴보면, 유씨 4남매가 재산을 나누는 이 문서에는 봉사조를 따로 책정했을 뿐 4남매가 비슷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졌음을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막내 누이인 조선극 처 유씨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자식 없이 사망했으므로 제위조로 노비 1구와 논 4두락지를 책정했다.

이 사례들을 통해 17세기 말~18세기 초에 한편에서는 장자 중심의

유교적 제사 형태가 아닌 윤희 봉사 형태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딸의 제사 봉행이 배제되며 제위조 뿐 아니라 일반 재산까지 딸에게 적게 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편에서는 모든 자녀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세기 중반 이상형은 종손(宗孫)과 두 딸에게 노비와 전답을 분급했다. 그는 노비는 종손에게 3구, 두 딸에게 각각 3구, 4구를 주어 균등하게 분배했다. 반면에 논 15두락지, 밭 9두락지 총 24두락지에 이르는 조상 전래 전답과 선산 등 산지 및 금양(禁養) 전답을 종손에게 주고, 두 딸에게는 각각 논 9두락지, 논 7두락지를 주었다. 이상형이 종손이고 그가 3촌질인 이운을 계후자로 세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종손은 이상형의 계후자인 이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후자에게 친딸의 3배가 되는 전답과 산지를 준 것을 통해 18세기 중반에 이신의 가에서는 종손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한 봉사조 재산이 형성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딸이 제사 봉행에서 배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전반의 인물로 이신의의 장자인 이호의 처 오씨가 외조모 임씨에게 노비 13구 정도를 받은 별급 문기가 주목된다. 이신의 가는 이호대에 광주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처 오씨의 집이 광주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7세기에 아들, 딸을 차별하여 재산을 분급하는 집안도 있었고, 자녀들에게 평균분급하는 집안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등 친정 어른들에게 별급(別給)을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임씨가 자신이 어루만져 오씨를 길렀다는 점과 더불어 오씨가 여러 집안일들을 잘 보살폈으며, 도망하여 배반한 노비를 추심하는데 힘썼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산을 분급했

다는 점 때문이다. 집안 대소사를 살피고 노비를 추심하는 등의 오씨의 적극적인 역할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여성의 외출과 규제

집 안에서 내외의 구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았다. 조선 초 『경제육전』에는 양반부녀는 부모, 친형제자매, 친백숙고, 외삼촌과 이모를 제외하고는 가서 볼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실형으로 논한다고 하였다. 즉 여성은 3촌까지의 친척 이외의 사람의 집에는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 연간에는 “남녀는 길을 달리하고 또한 저자도 함께 하지 않을 것”, “남자와 여자는 대청을 달리할 것” 등의 건의가 있었다. 여성이 바깥세계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규제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 조정에서 여성들의 외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다. 절에 올라가지 말라는 금제를 어긴 여성의 처벌에 대한 논의였는데, 왕은 부녀자들이 사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직접 벌을 받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중들만 직첩을 거두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물론 심한 경우에 여성에게 장 80대의 처벌을 내렸지만 그것도 대개 속전을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한 대간의 관원들은 그 가장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부녀자의 행동을 징벌할 것을 요청했다. 가장에 대한 처벌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조선 초 여성들의 자유로운 외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빈번하였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조선시대 여성들의 외출을 규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윤복 여속도첩(女俗圖帖)
中〈처녀 쓴 여인〉(국립중앙박물관)

대신 여성들이 길을 다닐 때 얼굴을 내놓는 것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태종대에는 3품 이상의 정실부인은 평교자가 아닌 지붕이 있는 옥교자를 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가마의 사면을 부축하는 종들과 옷깃을 스치고 어깨를 비비게 되어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비록 3품 이상의 여성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여성의 바깥출입 억제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예제를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여성들에게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녀들이 평교자를 타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태종 때에 이미 반포되었다. 하지만 1444

년(세종 26)의 기록을 보면 평교자를 타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진 뒤에도 공공연하게 이를 타고 다니는 일이 있어 사헌부에서 다시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평교자를 타던 여성들에게 옥교자를 타도록 하는 것을 현실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지령에도 법을 어기며 나들이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평교자(국립고궁박물관)



옥교자(국립고궁박물관)

걸어 다니는 여성들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너울이나 치네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가렸다. 장옷으로 여성들의 몸을 가리는 것은 여성의 신체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여성이 외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약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유교적 윤리규범과 여성들의 일상 활동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지만 제도적 강제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 영역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광주 지역에서도 내외구별이 강제되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던 모습이 확인된다. 세종연간 남녀가 길을 달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도림마을이다.³⁸

도림마을은 30여 호가 사는 작은 마을인데, 대대로 나주 오씨가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다. 마을에는 ‘도림사’란 사당과 함께 흔히 강당이라 부르는 ‘지어재’라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사들과 선비들이 찾아와 학문과 나랏일을 논의하였다. 남자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마을의 여자들은 그 앞을 나다니기를 꺼렸는데, 이것이 점차 자연스럽게 워지면서 강당 앞길로는 여자들의 통행이 금지됐다. 그런데 강당 근처에 이 마을의 유일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야 했다. 따라서 이 마을의 여자들은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 강당 앞길을 우회하는 골목을 이용했는데, 여기를 여자들만 다닌다고 하여 ‘암고살’이라 불렀다. 남녀유별의 관념이 마을 전체 남녀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38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남도, 규방의 나날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4, 24~25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도림마을 암고살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남도, 규방의 나날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4, 25쪽. 이하 사진도 동일함)



옛 암고살



강당 앞길



강당(지어재)

또한 광주 양산동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회곽묘로 추정되는 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장옷이 출토되었다.³⁹ 장옷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던 쓰개의 하나로 초기에는 서민 부녀자들만 사용했고, 후기로 오면서 양반집 부녀자들도 착용했다. 광주 지역에서도 여성이 외부의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장옷은 앞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마 위에서 턱 아래로 둘러 고름 부분을 잡는 것으로 소매를 팔에 끼우지는 않는다.



양산동 회곽묘 출토 장옷

(전남문화재연구원, 『광주 양산동 회곽묘유적光州 陽山洞 灰槨墓遺蹟』, 광주광역시, 2006, 36쪽)

³⁹ 전남문화재연구원, 『광주 양산동 회곽묘유적光州 陽山洞 灰槨墓遺蹟』, 광주광역시, 2006.



신윤복 여속도첩(女俗圖帖)
 中 <장옷을 입은 여인>(국립중앙박물관)

당시의 위정자들이 여성의 생활을 철저히 폐쇄적으로 한 의도는 물론 유교적 의미에서의 정절을 여성이 지켜야 할 최우선 덕목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문 밖 출입 및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유로우면 그만큼 실절의 위험이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3. 정치적 사건과 광주의 여성들

가. 유배된 남편을 따라 광주에 거주한 경혜 공주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유배된 남편을 따

라서, 혹은 낙향하여 광주에서 생활을 한 여성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혜 공주가 있는데, 그는 유배된 남편을 따라 5년여 동안 광주에서 거주했다. 경혜 공주는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딸로 단종의 누이이기도 하다. 문종이 세자 시절에는 평창 군주에 봉해졌고, 1450년(세종 32)에는 정종(鄭宗)과 혼인했다.⁴⁰ 문종이 즉위한 후에는 경혜 공주로 봉해졌다. 문종의 딸로, 단종의 손위 누이로 공주로서의 삶을 누렸으나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직후 남편 정종이 혜빈, 금성 대군 등과 편당을 이루어 난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영월로 유배되면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⁴¹

이후 1456년(세조 2) 성삼문, 박팽년 등의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세조는 가담자와 연좌된 사람들을 처벌한 후 정종을 광주에 안치했다. 세조는 그가 거주하는 집의 난간과 담, 문을 견고하고 높게 만들도록 하고 수직자를 두어 외부인과 교통하지 못하게 했다.⁴² 공주도 광주로 내려왔는데, 세조는 공주가 내려갈 때 의금부에 “광주에 안치된 정종의 처가 내려갈 때 교자를 사용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매어 보내도록 하라”고 명했다.⁴³ 실록에 공주의 호를 박탈했다는 기사는 없다. 그런데 세조는 이때부터는 즉위 초와는 달리 공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종의 처’라고 칭했다. 이를 통해 경혜 공주의 당시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455년(세조 원년) 정종의 토지, 노비, 가옥이 몰수되었을 뿐 아니라 광주에 안치되기 전날에는 정

40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정월 24일 경자.

41 『세조실록』 권1, 세조 원년 윤6월 11일 을묘.

42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27일 을축.

43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27일 을축.

종의 가산도 적몰당했다.⁴⁴ 이를 통해 이 당시 경혜 공주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세조는 공주가 선왕인 문종의 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주가 내려갈 때 탈 교자를 관에서 제공해주도록 했다.

이후 1461년(세조 7) 정종이 극형에 처해지게 될 때까지 경혜 공주 역시 광주에서 함께 거주했고, 그 기간 동안 공주가 아닌 정종의 처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정종이 사망한 후 세조는 환관을 보내어 정종의 처를 서울로 데려오도록 했다.⁴⁵ 그리고 정종의 처는 문종의 적녀이며 죄가 없다며 집, 토지, 노비와 공름(公廩)을 내려주고자 한다는 뜻을 언급했다.⁴⁶ 이후 세조는 속공했던 노비 50구를 돌려주고 집을 마련해 주고 녹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다시 경혜 공주라는 예전 봉호를 사용했다.⁴⁷ 정종이 광주에 유배되었던 해 공주와 정종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정미수이다. 정미수는 이후 관직에 진출하여 고위 관직에까지 이르렀고, 공주와 정종의 제사는 물론 단종비 송씨의 시양자로서 송씨의 제사까지 담당했다. 이로 인해 정미수의 후손들은 숙종대 단종과 송씨가 복위되기 전까지 송씨의 제사를 봉행했다.

44 『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 8월 24일 정묘.

45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0월 23일 기축.

46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 12월 14일 경진.

47 『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5월 4일 무술; 『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7월 19일 임자;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 3월 25일 갑인;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2월 14일 정유;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7월 8일 신미.

나. 박지흥의 처 서씨의 삶

세조의 왕위 찬탈 후 박지흥(朴智興)은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낙향했다. 낙향한 후 재취인 처 서씨의 친가가 있는 광주에 거주하며, 서씨와의 사이에서 박정(朴禎), 박상(朴祥), 박우(朴祐) 세 아들을 두었다. 장남인 박정은 일찍 사망했고, 둘째 아들인 박상은 1496년(연산군 2)에 진사가 되고, 1501년(연산군 7)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했다. 1515년(중종 10) 훈신들을 비판하며 중종 반정 직후 폐위된 중종의 비 단경 왕후 복위 상소를 올려 뒷날 사림들의 칭송을 받았다. 셋째 아들인 박우는 1507년(중종 2)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0년(중종 5) 식년 문과에 급제한 후 도승지, 대사헌, 병조 참의, 이조 참의까지 역임하는 등 순탄한 관직 생활을 했다.

아래 별급 문기는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된 서씨가 둘째 아들 박상에게 자신의 사내종 1구를 별급한 문서이다.⁴⁸

홍치 9년(1496, 연산군 2) 월 12일 □상에게 문서를 작성해 허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네가 일찍 사마시에 합격하여 경사로운 자리를 열었는데, 성주께서 오셔서 영효(榮孝)의 자리를 빛내주시니 비할 바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쪽에서 전해 온 노 목을두가 양인 처와 낳은 첫 번째 소생 노 석을구지 나이 3세 갓 인년생을 별급하니, 후소생을 아울러 자손에게 전하여 가지고 오래도록 부리되 뒤에 다른 말하면 이 문서의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

48 『고문서』,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3.

재주(財主) 고 진사 박지흥 처 서씨 [도서]

증보(證保) 어모장군 전 행총좌위부호군 권 [착명][착서]

증보 어모장군 전 행사직 김 [착명][착서]

필집(執筆) 성균 유학 양 [착명][착서]

서씨는 1496년(연산군 2) 아들 박상이 진사시에 합격한 후 영친연(榮親宴)에 광주 목사까지 참여하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사내종 석을구지를 둘째 아들 박상에게 별급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낙향한 양반이 재취 후 처가를 거주지로 삼아 가족 생활을 영위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15세기 여성이 혼인 후에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그대로 그곳에 거주하며 자신 집안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식을 키워내었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V 소결

조선시대의 광주 지역 여성의 삶도 당시 다른 지역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하여 만들어진 유교적 여성관과 생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다. 즉, 주체적으로 자신의 글을 남긴 광주지역 여성의 기록물이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가문에서 생산하였거나 보존하고 있는 자료 또는 현재 남아있는 공간이나 유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광주 여성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시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보편적 규범과 생활상을 통해 광주 지역 여성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포착해 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여성교훈서가 유통·보급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소학』에 불구하고지만 각 가문에서 이를 소장하고 있어서 여성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중반 광주에 부임한 지방관은 『소학』의 편목을 조정하여 『해동신편(海東新編)』이라는 책을 정리하였는데, 이로 보아 『소학』류 전적의 내용 구성 및 보급이 광주지역에서도 시도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광주 지역의 여성들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본인의 존재를 인

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편찬된 지리서와 읍지류에는 효녀·효부·열녀 등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여성들의 행동을 수록하였다. 이에 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에 나타난 광주 지역의 효녀·효부·열녀 등을 살펴보았다. 그 중 열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열녀는 유가적 장의를 시행한 여성, 유가적 제의의 상징물을 지켜낸 여성, 왜란과 호란에서 순절(殉節)한 여성,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한 여성, 남편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희생한 여성, 남편을 따라 죽은 여성, 신체를 훼손하여 시부모와 남편의 치료에 힘을 쏟은 여성 등의 유형이 확인된다. 읍지에 나타난 광주지역 열녀의 행위는 개가를 거부하고 수절하거나 또는 유가적 의례를 과잉으로 실천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신체를 훼손하거나 자발적인 죽음 종사(從死)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읍지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은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가와 남성들의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훈서를 통해 여성들의 행위가 제약된 것으로 독해된다.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여성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봉호(封號)이다. 외명부 봉호는 총 10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혼인이었다. 남편이나 아들, 손자를 통해 여성은 봉호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여성이 서얼 출신이거나 재혼한 경우 봉호를 받을 수 없었다.

셋째, 광주 지역 여성은 ‘남녀유별’, ‘내외관념’ 등으로 인해서 공간이 구별되고 생활에 각종 규제가 뒤따랐다. 1899년 건축된 이장우 가옥은 사랑채 공간과 안채 공간 등 남녀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여성들이 길을 다닐 때에도 내외구별이 반영되어 길을 달리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도림마을은 강당 앞길로 남자들의 출입이 빈번해지자 여자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대신 여성들은 강당을 우회

하여 우물물로 가는 '암고살'을 이용하였다. 또한 광주 양산동에서 회곽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장옷이 출토되어 여성들이 외출할 때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당시의 위정자들이 여성의 생활을 폐쇄적으로 한 의도는 유교적 의미에서의 정절을 여성이 지켜야 할 최우선 덕목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여성들의 행위 규제를 통해 실절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의 지배층들은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법 제정과 예제 보급을 통해 유교적 사회질서가 정착되어 갔으며 여성들의 삶도 변화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광주 여성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광주 지역에서 작성된 문서 중에는 유교적 질서가 정착되었다고 알려진 18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혼인한 여성과 그 친정 오빠가 애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난다. 또한 조선 후기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재산을 분급하고 가계계승자인 장자에 대한 상속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었던 조선 전기의 재산 증여·상속의 관습이 여전히 행해지는 집안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사 운영과 자식 교육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실도 드러난다. 직접 관에 청원을 하고 왕에게 상언까지 하면서 집안의 노비를 추심하기도 하고, 홀로 되어서도 당당하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여성도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 발굴을 통해 이러한 광주 여성의 주체적 역할이 더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5장
결론

I. 연구의 의의 및 한계

II.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I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광주여성사 연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고자 계획했을 때, 기록되어 있는 전근대 시기의 광주 역사가 짧고 특히 여성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근대 이전의 광주여성사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여성사를 통사로 발간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관의 지원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속한 성과위주의 지원은 자칫 연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여성과 관련한 사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연구를 통사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 여성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일반적인 여성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러나 과거의 유물에 대한 기록을 뒤져가는 가운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드문드문 남아 있는 과거 광주여성의 삶의 흔적을 발굴해 엮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의 유적의 출토 유물을 보면 당시 신창동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고 베틀로 옷감을 짜며 옷칠한 그릇을 사용하고 현악기로 음악을 즐길 만큼 생활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마한 문화권에 속했던 광주는 5세기 말엽

에는 한반도 서남부와 인근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하였고, 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무주, 즉 지금의 광주를 기반으로 후백제 건국의 토대를 닦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지역의 맹주 자리를 나주에 내주게 되지만 후삼국 통일이 추진한 지방 호족들의 흡수 정책을 바탕으로 일부 세력은 광주의 새로운 호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려 말 권문세족에 대항한 신진사대부 세력이 형성되게 되고 호남 지역의 향촌 사회는 국정 쇄신과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호남의 절의 정신은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절의정신이 광주지역의 한말 의병과 광주학생항일운동, 5·18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광주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힘써왔던 광주여성은 역사에 주체자로서 또는 보조자로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살며 존재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 여성사를 다루는 것은 과거 속 지역사회와 여성의 역사성, 사회성, 주체성을 드러내어 여성의 존재의 깊이와 존엄을 보여주고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삶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광주지역의 여성사 연구는 그동안 주로 지역의 개별 연구자들과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이루어져 왔고, 광주여성가족재단 내 여성전시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비롯한 근현대 시기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 인물도 근현대시기의 예술인, 독립운동가, 교육가, 종교인, 민주화운동가 등에 한정되어 조명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여성사 I 연구는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근대 시기 광주여성의 삶의 흐름과 궤적을 살펴보고 광주지역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으며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거 현실과 맞닥뜨린 광주여성의 삶에 주목하여 그 시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함으로써 역사의 공백을 메꾸고 당시의 삶을 살아온 광주여성을 조명한 데 의의가 있다.

전근대 시대의 광주지역 묘지명을 비롯한 가문의 기증유물, 관찬 자료와 읍지 등의 사료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열부와 열녀, 효녀 등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유교이념과 여성의 존재가 공존했던 역사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과 그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전근대 지역사회에서 여성사를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희귀성을 극복하고 역사 속 여성의 활동과 역할이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노력은 광주여성의 역량과 힘을 후세에게 전승하고, 광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여성사 연구를 통해 지역사 연구에 여성주의적 관점과 서술의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역사 연구에 내실을 기하고, 광주여성사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광주여성들의 삶의 궤적과 흐름을 조명하고자 계획하였던 필자의 포부와는 달리 전근대시기의 광주 여성들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점은 필자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광주여성사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료가 없었고 근현대 시기가 도래하기 전 광주역사의 미미함이라고 치부하

기에는 변명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인류역사 상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되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와 현재의 광주여성에 대한 기록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광주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위업을 성취해 내면서 근현대시기 도시로서의 발전을 거듭해왔고 전남을 포괄하는 지역의 대표도시로 성장했으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발돋움했다. 광주의 역사 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광주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광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는 근현대 시기 광주여성들의 활동과 주요 인물들의 이력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나 이를 구체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들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전근대 시기의 광주여성사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작업을 토대로 향후 과제와 전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I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광주지역은 여성 인물들을 비롯해 보존하여 계승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여성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이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어 광주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이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가부장적 질서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논리를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여성과 관련한 사료들은 대부분 그 중요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의 여성 인물과 관련한 유적들도 훼손되거나 유적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선사·고대시대부터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온 이름 없는 여성들, 평범하게 각자의 삶을 일궈 온 많은 여성들, 종교와 이념, 문화의 경계에 서서 고통당한 소수자로서 여성들과 그에 대한 저항의 외침을 쏟아내었던 용기 있는 여성들, 격동적인 역사 속에서 불의에 항거한 여성 영웅들의 목소리와 흔적을 다시 되새기고 잊지 않도록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주여성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부여를

통해 광주여성의 역사적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광주여성의 정체성이 현재를 사는 광주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리고 광주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광주여성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격동의 역사 속에서 자신과 가족,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하고자 했던 여성 인물을 조명해 나가야 한다. 지역 여성사 연구는 거대담론에 묻힌 지역 여성들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역사의 공백을 보충하거나,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소수 여성엘리트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역사 속에서 여성의 공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전근대시기 60여명의 광주여성 인물을 발굴하였다. 과거 광주여성 인물을 추적하여 그들의 생애와 일상을 되살려 생생한 광주여성들의 모습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둘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광주여성과 관련한 문헌자료 등이 다방면으로 수집·정리되어야 한다. 그동안 광주지역에 기증되어 보존된 명망가의 유물도 남성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집안 남성들의 권세와 영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에 불과하였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조사와 동시에 생활용품, 문집과 문서, 일기와 편지, 사진, 신문 기사, 유물, 구술, 영상 등 자료의 수집·정리를 부지런히 해야 하며 이를 가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개인들이 소장한 근대 시기의 사료는 빠르게 소실되고 있기에 적극적인 발굴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지역의 여성 인물 및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체계적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광주여성사 작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집된 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아카이브⁰¹ 나 라키비움⁰² 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980~90년대 지역 여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여성 관련 사료 조사 및 여성인물 발굴과 함께 생존한 여성들의 생애 구술 작업, 여성사 아카이브, 라키비움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사 작업을 위한 역사적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의 문제가 주로 고민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애사, 생활문화사, 구술사 등 새로운 여성사 연구 방법을 통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인식의 심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형태가 아니라 빅데이터 구축에 따른 실시간 정보 제공과 함께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료의 수집이나 보존은 개인이나 한 기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사료의 발굴, 수집, 보존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춘 기록전문가와 아카이브가 구심점이 되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속적인 것이

01 '아카이브'(archives)란 디지털 보존소를 의미하며, 수장품(收藏品), 자료 등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자료들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문자·화상 정보·3차원 정보·음악 및 동화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

02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다양한 정보자원을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기에 지금의 여성사 연구가 발간되었다고 하여 완전히 광주 여성사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미래세대에 전수할 만한 중요한 광주여성 인물 및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콘텐츠화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광주여성 인물 및 문화유산의 콘텐츠화 작업은 광주지역 여성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성, 예술성, 가치관 등의 문화적 요소들은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광주의 여성인물 및 유적지를 활용한 영상, 음악, 여행지도 제작, 기념사업 및 전시회 개최 등 문화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근대 시기의 광주여성사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토론회 및 포럼 등의 주제로 광주여성 인물 및 생활 등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등의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여성사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광주여성사 연구는 광주 역사 및 지역학과의 연계성도 검토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적인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광주지역만의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사교과서 등의 첨가에도 노력을 가하며, 교육청이나 아시아문화원, 광주비엔날레 등의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기본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後漢書』, 『三國志』,
『周書』, 『北史』, 『隋書』, 『日本書紀』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日省錄』, 『光州牧誌』, 『光州邑誌』, 『光州三綱錄』,
『湖南孝烈圖』, 『朝鮮王朝實錄』, 『三綱行實圖』, 『世祖實錄』

2. 단행본

강명관, 2009, 『열녀의 탄생』, 들베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4, 『남도, 규방의 나날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9, 『광주의 歷史와 文化』,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광주시사 1』,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
국립광주박물관, 2016,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VIII - 신창동 528·590번지 일원
을 중심으로』,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2015, 『담양』, (주)통천문화사.
국립광주박물관, 2014,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VII - 木器 追加報告』, 국립광주박
물관.
국립광주박물관, 2012, 『2,000년 전의 타임캡슐』, 비에이디자인.

- 국립광주박물관, 2010, 『신창동 유적의 의의와 보존 - 도작농경과 유적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2010, 『국립광주박물관』, 통천출판사.
- 국립광주박물관, 2008, 『기록으로 본 조선시대 사회문화 - 석탄 이신의 종가 기증 유물전』,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2008, 『光州 - 유구한 문화의 도시』, 도서출판 라인.
- 국립광주박물관, 2000, 『광산김씨 집성촌의 역사와 민속』,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광주광역시, 2012, 『光州 新昌洞 遺蹟 - C5, D4, D5 grid(584번지 일원)』,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007, 『광주 신창동 유적 - 2005년 15 grid 남서 지점』, 국립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7, 『2005 광주-장성간 도로확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光州 新昌洞遺蹟』, 국립광주박물관.
- 국가편찬위원회, 2011,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 국학자료원, 1982, 『眉巖日記草』, 국학자료원, 조선사편수회 발행본 영인.
- 권순형, 200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혜안.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그림으로 본 조선』, 글항아리.
- 김덕진, 2018, 『전라도의 탄생 1』, 도서출판 선인.
- 김상기, 1966, 「견훤의 가향에 대하여」 『이병기송수기념논문집』.
- 김용선, 2016, 『(속)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 김용선, 2001,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하)』, 한림대학교 출판부.
- 김용선, 1997,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 김원용, 198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종욱, 2018,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 : 조선 후기, 여성해방과 어린이 존중의 근대화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 대동문화재단, 2014, 『광주역사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 歴史科學協議會, 1996, 「原始古代の女性と戦争」, 『歴史論評』 96-5.
- 歴史科學研究會, 1991, 『女性史研究入門 - 原始篇』, 三星堂.

- 무등역사연구회, 2001, 『광주·전남의 역사』, 태학사.
- 문숙자, 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 박경, 2012, 「16세기 조선의 여성 지식인, 송덕봉」 『여성의 역사를 찾아서』, 나남.
- 박경, 2011, 『조선 전기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 박무영, 2004,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 박성봉, 1986, 『東夷傳 百濟關係資料』, 慶熙大學校文化研究所.
- 박주, 1990,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 변태섭, 1986, 『한국사통론』, 삼영사.
- 森浩一編, 1989, 『女性の力』, 中央公論史.
- 석장리박물관, 2011, 『그녀, 인류를 꿈꾸다』, 석장리박물관.
- 신호철, 1996,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 손직수, 1982, 『조선시대 여성 교육연구』, 성균관대출판부.
- 역사학회, 1992, 『韓國 親族制度 研究』, 일조각.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3, 『古文書』, 영남대학교 박물관.
- 玉城肇(김동희 옮김), 1986, 『세계여성사』, 백산서당.
- 이강래 역주, 1998, 『삼국사기 II』, 한길사.
- 이건무·조현중, 2003, 『선사 유물과 유적』, 솔.
- 이기길·이동영·이윤수·최미노, 1997, 『광주 치평동 유적 - 구석기·쟁신세층 시굴 조사 보고서』, 조선대학교 박물관·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이기백, 1967, 『한국사신론』, 일조각.
- 이순구, 2011,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북스.
- 이종서 외, 2017, 『고려시대사』2, 푸른역사.
- 이현혜, 1998, 『한국 고대의 교역과 생산』, 일조각.
- 임유경, 2014, 『조선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역사의 아침.
- 이혜순, 2007, 『조선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라남도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 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박물관·광주광역시,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光州光域市』, 전남대학교 박물관.

- 전남문화재연구원, 2006, 『광주 양산동 회곽묘유적光州 陽山洞 灰槨墓遺蹟』, 광주광역시.
- 田中良之, 1995, 『古墳時代親族構造の研究：人骨が語る古代社會』, 栢書房.
- 田汝康 지음(이재정 옮김), 1999,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예문서원.
- 정용숙, 1992, 『고려시대의 후비』, 민음사.
- 정창권, 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 정해은, 2011, 『조선의 여성 역사가 다시 말하다』, 너머북스.
- 정현백·김선주·권순형, 2018,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6,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 下』, 도서출판 심미안.
- 최숙경·하현강, 1972, 『한국여성사 : 고대~조선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1990, 『한국사특강』, 서울대출판부.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1999,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古文書集成 27-영광 영월신씨편(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호남지방문화연구원, 2017,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 전남대학교출판부.

3. 논문 및 자료집

- 강영경, 1982, 「한국 고대사회의 여성 - 삼국시대 여성의 사회활동과 그 지위를 중심으로」 『숙대사론』 11 · 12합집.
- 고고학연구실, 1957, 「청진 농포리 원시유적 발굴」 『문화유산』 57-4.
- 고병익, 1973, 「元과의 關係의 變遷」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 권순형, 2017, 「고려시대 절부에 대한 고찰」 『여성과 역사』 27, 한국여성사학회.
- 권순형, 2015, 「고려 말 열녀 사례연구 - 양수생 처 열부 이씨」 『여성과 역사』 22, 한국여성사학회.
- 권순형, 2007, 「고려시대 여성의 여가 생활과 명절 풍속」 『이화사학연구』 34, 이화사학연구회.

- 권순형, 2004, 「고려시대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 『이화사학연구』 31, 이화사학연구회.
- 권순형, 1995,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 - 이혼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28,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 김갑동, 2016, 「전라도의 탄생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 63, 호남사학회.
- 김갑동, 1993,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신편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 김광철, 1996,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신편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 김난옥, 2009,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 - 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김당택, 1993,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신편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 김두진, 1994, 「한국 고대의 여성의 지위」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 김병인·이현정, 2010,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시대 여인」 『역사학연구』 38, 호남사학회.
- 김연순, 2007, 「조선시대 교화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 『한국문화연구』 13.
- 김연순, 2005,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형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7, 「고려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수행」 『사학연구』 86 (한국사학회).
- 김용선, 2016, 「김구부 묘지명」 해제, 『(속)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 김용선, 2010, 「새 고려묘지명 7점」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 김용선, 2006, 「고려시대 묘지명 문화의 전개와 그 자료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김용섭, 2001, 「고려 충렬왕조의 <광산현제영시서>의 분석 - 신라 김씨가 관향의 광산지역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72, 역사학회.
- 나희라, 2013,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사관」 『진단학보』 117, 진단학회.
- 나희라, 2013,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시대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 『동국사학』 55,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노명호, 1995, 「가족제도」 『신편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 민현구, 1974, 「高麗後期の 權門世族」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 박경자, 1982, 「견훤의 세력과 대왕건관계」 『속대사론』 11·12합집.
- 박은경, 2017, 「고려시대 재가에 대한 검토 - 유교사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학회.
- 박은경, 2015, 「고려 서류부가혼 사회의 여성상과 부덕」 『여성과 역사』 23, 한국여성사학회.
- 박종기, 2008,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 박종기, 2007, 「이색의 당대사 인식과 인간관 - 묘지명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6, 한국역사연구회.
- 변동명, 2000, 「견훤의 출신지 재론」 『진단학보』 90.
- 山口讓治, 2012, 「日本木製農具の系譜」 『2012 光州 新昌洞遺蹟 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엄 자료집』.
- 서극석, 2018, 「고려 초 ‘光州’ 지명의 출현 시기와 정치적 배경」 『역사학연구』 69, 호남사학회.
- 오영찬, 2012, 「樂浪古墳 출토 漆器의 조사와 연구」 『2012 光州 新昌洞遺蹟 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엄 자료집』.
- 위은숙, 1996, 「농장의 성립과 구조」 『신편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 이정란, 2015, 「고려시대 계보기록과 재산 상속 - 여계(女系) 가문의 상속권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3, 한국여성사학회.
- 이순구, 1986, 「조선초기 주자학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청계사학』 3.
- 장동익·김구진, 1994, 「여·원관계의 전개」 『신편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 정구복, 1995, 「사학사에 있어서의 시대구분과 각시대의 특징」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수아, 1993, 「무신정권의 붕괴와 그 역사적 성격」 『신편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 정일, 2006, 「광주 효천2지구 주택건설부지내 광주 노대동유적」 『韓國新石器研究』 12.
- 정현백, 1988, 「새로 쓰는 여성의 역사(원시 고대편) - 모권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2, 창작과 비평사.
- 조현중, 2012, 「신창동유적의 木器와 漆器」 『2012 光州 新昌洞遺蹟 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엄 자료집』.

- 최규성, 2009, 「화평군 김광철 묘지명」 『하남역사박물관』, 하남역사박물관.
- 최영호, 2005, 「고려시대 묘지명과 고려사 열전의 서술형태」 『한국중세사연구』 19, 한국중세사학회.
- 김경숙, 2010, 「조선후기 光州 全義李氏家の 재산상속」, 『사학연구』 99.
- 김일미, 1969, 「朝鮮의 婚俗變遷과 그 社會의性格 :李朝前期를 中心으로」, 『이화사학연구』 4.
- 이순구, 1995, 「朝鮮初期 宗法の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장병인, 2015,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新俗禮·半親迎·假館親迎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9.
- 전호태, 1997, 「한국 고대의 여성」 『韓國古代史研究』 12.
- 정금식, 1996,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승혜, 2013, 「儒學 奇泰東이 죽은 누이를 위해 쓴 한글제문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7.
- 최일레, 2019, 「백제 개로왕의 여성 節行觀에 담긴 역사성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1.
- 최일레, 2019, 「한국 古代의 특이한 출산 사례와 當代의 반응 - 多胎兒와 삼쌍둥이 출산 사례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9.
- 허준·장민·이시영, 2009, 「민가의 전통정원 재현 및 활용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이장우 가옥을 대상으로-」 『농업사연구』 제8권 3호.

4. 인터넷자료

『三國史記』6 新羅本紀6 문무왕 2년조 '湏聖堂' 원문 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g&levelId=sg_006_0020_0300&types=o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광주광역시남구청

<http://www.namgu.gwangju.kr/gallery.es?mid=a70102000000&bid=0034#content>

광주광역시서구문화원

<http://www.gjsgcc.or.kr/ko/29/view?SEQ=781&page=14>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09850#>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main.do>

1669년 김명열 형제가 자손에게 전한 문기, (한국고문서자료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호남권역 자료센

터, 호남의 호적, 인구 정보

삼베는 짜임의 미학을 일구어 내고 있다

나의 작품 속에서 삼베는 명시적 의미로서의 대상물이라기보다는 우리네의 독특한 향기와 정겨움, 소중한 기억들을 대변하는 언어의 시작이다.

- 작가노트 中 -

간지에 사용된 배경 이미지는 서강석 작가의 작품 中 부분 발췌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전근대 광주여성 인물

전근대 광주여성 인물

- 안길의 처 3명(~676-) :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통합 후 문무왕이 다스리던 시기 무진주에 거주했던 여성들이다. 3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름, 나이,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 소개된 거득공과 안길에 얽힌 이야기가 거득공이 문무왕대 재상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략 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나 안길이 무진주의 吏로서 수도 경주에 가서 상수리(上守吏)를 하였다면 신라가 나당전쟁 후 옛 백제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시기에 무진주에 생존했던 인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안길의 3명의 처가 생존했던 시기는 나당전쟁을 끝낸 문무왕 16년(676)을 전후하여 광주 지역에 생존하고 있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 견훤의 어머니(~867-) : 옛날 광주 북촌에 살았던 어느 부자의 딸이다. 이름, 성씨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외모가 단정하였다고 한다. 견훤을 출산하게 된 배경에 ‘夜來者型 설화’가 개입되어 있다. 즉 광주 북촌의 어느 부자집의 딸에게 밤에 낫선 남자가 찾아와 관계를 갖곤 하였다. 딸이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하자 아버지는 남자가 오거든 실을 펜 바늘을 남자의 옷에 꽂아 놓으라고 딸에게 시켰다. 다음날 그 실을 따라가보니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죽어 있었다. 그 남자는 지렁이가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다. 딸은 이후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자라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 아이는 바로 견훤이다. 여성 개개인마다 출산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1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견훤이 경문왕 7년인 867년에 출생했으므로 늦어도 견훤의 어머니는 850년대에는 생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진□단(陳口端) 처 김씨(?~?): 김씨 부인은 김주정(?~1290)과 상질현대부인 왕씨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 김씨 부인의 아버지 김주정은 광주 사람으로 처음에는 문음에 의해 부성현위가 되었으나,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해양부녹사에 임명되었으며 벼슬이 동지밀직사사와 지도첨의사 등에 이르렀다. 김씨 부인은 낭장 진□단과 혼인했는데,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윤길손(尹吉孫) 처 김씨(?~?): 김씨 부인은 김주정(?~1290)과 상질현대부인 왕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김씨 부인은 장군 윤길손과 혼인하였는데, 윤길손의 아버지 윤수(尹秀)는 충렬왕 때 국왕의 측근세력으로 칠원 유씨가 세족 가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인물이었다.

- 안목(安牧) 처 익양군부인 김씨(?~?): 익양군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김태현(1261~1330)과 개성군대부인 왕씨(1266~1356)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 익양군부인 김씨는 안목(?~1360)과 혼인하였다. 안목은 순흥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벼슬이 밀직부사에 이르렀으며, 공민왕 때에 순흥군에 책봉되었던 인물이다. 익양군부인 김씨는 안목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안원승은 군부판서 진현관이 되었으며, 딸은 봉익대부 우상시 민유(閔楡)와 혼인하였다.

- 박윤문(朴允文) 처 해양군대부인 김씨(1302~1374):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김태현(1261~1330)과 개성군대부인 왕씨(1266~1356)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해양군대부인 김씨는 박윤문과 혼인하였는데, 박윤문은 기거랑과 밀직사우대언 좌사의대부 등을 역임하였다. 해양군대부인 김씨와 박윤문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해마다 국가로부터 녹을 받았다.

- 오첨(吳瞻) 처 김씨(?~?): 김씨 부인은 광주 사람 김심(金深, 1262~1338)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 김씨 부인은 오첨과 혼인하였는데,

오침은 선수 현정장군 전라도진변만호 정순대부 판통례문사를 역임하였다. 김씨 부인과 오침의 자녀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 원 인종의 달마실리(達麻實里, 다마시리) 황후(?~?): 달마실리 황후는 김심(1262 ~ 1338)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달마실리 황후는 처음에 공녀로 원(元)에 가서 인종의 비가 되었다가 태정제 때에 황후로 봉해졌다. 달마실리 황후의 책봉은 1328년(충숙왕 15) 4월에 낭장 이자성이 원에서 돌아와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고려사』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단양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 王瑁) 비 복안옹주(?~?): 복안옹주(福安翁主)는 김심(1262 ~ 1338)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복안옹주는 종실인 단양부원대군 왕후와 혼인하였다. 왕후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에 1310년(충선왕 2) “왕후(王瑁)를 단양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으로 임명했다.”라는 기사가 있다. 단양부원대군 왕후의 아버지는 강양공(江陽公) 왕자(王滋)이다. 강양공 왕자는 충렬왕과 정신부주(眞信府主) 사이에서 태어났다. 강양공은 충렬왕의 장자였으나 원나라 세조의 친딸인 제국공주에게서 태어난 동생 충선왕에게 고려국왕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물이다. 복안옹주와 단양부원대군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고려사에 “왕후의 아들은 양원군(陽原君)에 봉해졌지만, 사서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고, 원에서 벼슬하여 어사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복안옹주의 소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안동(安董) 처 경녕택주(?~?): 경녕택주(敬寧宅主)는 김심(1262 ~ 1338)과 변한국부인 왕씨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다. 경녕택주는 안동과 혼인하였는데, 안동은 대도유수(大都留守)를 지낸 인물이다. 안동은 원의 수도인 대도에서 유수를 역임한 것으로 보이나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최한(崔漢)의 처 김씨(? ~ ?) : 김씨 부인은 김심(1262 ~ 1338)의 딸인데 어머니는 분명하지 않다. 김심의 묘지명에 “이에 앞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사재주부(司宰注簿) 최한에게 시집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홍규(洪奎) 처 삼한국대부인 김씨(1258 ~ 1339) : 삼한국대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김련(金鍊, ? ~ 1278)과 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삼한국대부인 김씨는 홍규(1242 ~ 1316)와 혼인하였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다. 홍규의 친가와 외가는 묘지명에서 ‘의관갑족’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름난 가문이었다. 삼한국대부인 김씨와 홍규는 1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큰 아들 홍응은 무덕장군 전라진변만호 대광 삼사사를 역임하였으며, 나유(羅裕, ? ~ 1292)의 딸과 혼인하였다. 큰 딸은 원의 좌승상 아홀대(阿忽台)와 혼인하였다. 둘째 딸은 정해(鄭諧, 1254 ~ 1305)와 혼인하였으며, 셋째 딸은 충선왕과 혼인한 현비 즉 순화원비 홍씨이다. 삼한국대부인 김씨의 넷째 딸 홍씨는 원충(元忠, 1290 ~ 1337)과 혼인하여 3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다섯째 딸은 충숙왕과 혼인한 덕비 즉 명덕태후 홍씨로 충혜왕과 공민왕을 낳았다.

- 김원의(金元義) 처 인씨(? ~ ?) : 인씨 부인은 인영보(印榮寶)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인영보는 좌우위대장군을 역임하였는데, 그 외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인씨 부인은 김원의(1147 ~ 1217)와 혼인하였는데, 김원의는 광주 사람으로 김위(金位)와 유씨(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씨 부인과 김원의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김공수(金公粹)는 진사에 급제하여 내시 감문위녹사참군사 겸 직한림원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무반이 되어 숙위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딸은 감문위상장군을 지낸 유창서(劉昌緒)와 혼인하였는데, 자녀로는 중서문하평장사 상장군을 역임하였던 채정(蔡楨, ? ~ 1271)과 혼인한 딸이 기록에 남아있다.

- 김주정(金周鼎) 처 상질현대부인 장씨(? ~ ?) : 상질현대부인 장씨는 상질현 사람으로 정현대부 군부판서 응양군상장군에 추증된 장득구의 딸이다. 대부인 장씨는 광주 사람 김주정(? ~ 1290)과 혼인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 김심(1262 ~ 1338)은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밀직부사와 찬성사 등을 역임하고 수성수의협보총량공신 삼중대광 도첨의중찬 판전리사사 화평부원군에 봉해졌다. 큰 딸은 낭장 진□단과, 둘째 딸은 윤길손과 혼인하였다.

- 김주정(金周鼎) 처 김씨(? ~ ?) : 김씨 부인은 찬성사 김련(金璉)의 딸로 태어나 김주정(? ~ 1290)과 혼인하였다. 부인과 김주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가(金珂)는 □녹사를 역임하였다.

- 김주정(金周鼎) 처 이씨(? ~ ?) : 이씨 부인은 판합문사 이신손(李信孫)의 딸로 태어나 김주정(? ~ 1290)과 혼인하였다. 이씨 부인의 아버지 이신손은 상서좌승과 좌우승선, 판합문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씨 부인과 김주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 김수(金須) 처 옥구군대부인 고씨(1226 ~ 1327) :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1226년(고종 13) 조청대부 예빈경으로 은퇴한 고정(高挺)과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옥구군대부인 고씨는 김수(? ~ 1271)와 혼인하였는데, 김수는 해양군 사람으로 벼슬이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집현전태학사 판예부사에 이르렀다. 김수와 옥구군대부인 고씨 사이에는 김태일과 김태현(1261 ~ 1330)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김태일은 관직이 신호위녹사참군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 김태현은 1327년(충숙 14) 벽상삼한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판전리사사로 은퇴하였는데, 이때 옥구군대부인이 102세로 돌아가시니 특별히 변한국대부인을 추증하였다. 옥구군대부인 고씨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325년(충숙 12)에는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하여 국가로부터 해마다 30석의 곡식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 김태현(金台鉉) 처 김씨(?~?): 김씨 부인은 좌우위낭장 김의(金儀)의 딸이었다. 김의는 1152년(의종 6)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부인의 남편인 김태현(1261 ~ 1330)은 광산 사람으로 김수와 옥구군대부인 고씨(1226 ~ 1327)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태현은 15세에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276년(충렬 2)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1327년(충숙 14)에 첨의중찬 수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판전리사사로 물러났다. 김씨 부인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부인이 낳은 큰 아들 김광식은 1294년(충렬 20)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이 총부의랑에 이르렀으나, 일찍 사망하여 슬하에 자식은 없다.

■ 김태현(金台鉉) 처 개성군대부인 왕씨(1266 ~ 1356) :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1266년(원종 7)에 은청광록대부 추밀원사 호부상서 한림학사승지로 추증된 왕정조(王丁朝)와 금마군부인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14세에 광산 사람 김태현(1261 ~ 1330)과 혼인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다. 김태현의 첫 번째 부인인 김씨가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개성군대부인 왕씨와 김태현은 3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인 김광철(金光轍, ? ~ 1349)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후 밀직사로 화평군에 봉해졌다. 김광철은 첨의찬성사 원관(元瓘, 1247 ~ 1316)의 딸과 혼인하였다. 둘째 아들 김광재(金光載, 1294 ~ 1363)는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삼사우사 겸 전리판서로 물러났다. 김광재는 중서평장사 김승택(金承澤, ? ~ 1358)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김승택은 안동 사람으로 벼슬이 중서평장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양간(良簡)이다. 셋째 아들 광로는 급제한 후 벼슬이 가안부녹사에 이르렀으나 일찍 죽어 자녀가 없다. 대부인의 큰 딸은 정당문학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안목(? ~ 1360)과 혼인하였다. 둘째 딸은 밀직사우대언 좌사의대부를 역임한 박윤문(朴允文)과 혼인한 해양군대부인 김씨(1302 ~ 1374)이다. 개성군대부인 왕씨는 1356년(공민왕 5)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해마다 곡식을 받았으며, 자손들이 번창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 김광철(金光轍) 처 원씨(? ~ ?) : 원씨 부인은 찬성사 원관의 딸로 평원군(平原郡)에 봉해졌다. 원씨 부인의 아버지 원관(1247 ~ 1316)은 원주 사람으로 처음에는 문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첨의찬성사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원씨 부인의 남편 김광철(? ~ 1349)은 김태현(1261 ~ 1330)과 개성군대부인 왕씨(1266 ~ 1356)의 아들이다. 원씨 부인은 김광철과의 사이에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김승조는 천우위 해령별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김회조는 성균시에 합격하여 충용위 호분별장이 되었다. 큰 딸은 개성소윤 최충손(崔冲孫)과 혼인하였으며, 둘째 딸은 합포만호 현성군 권용(權鏞)과 혼인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셋째 딸은 병부원외랑 유혜부(柳蕙符)와 혼인하였으며, 넷째 딸은 승복도감판관 홍인철(洪仁喆)과 혼인하였다.

- 김광재(金光載) 처 김씨(? ~ ?) : 김씨 부인은 문하평장사 김승택(? ~ 1358)의 딸로 김광재(1294 ~ 1363)와 혼인하였는데, 김광재는 김태현(1261 ~ 1330)과 개성군대부인 왕씨(1266 ~ 1356)의 아들이다. 김씨 부인과 김광조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김흥조(? ~ 1368)는 좌우위 보승낭장과 수원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딸은 내부부령 박문수와 혼인하였다.

- 김심 처 변한국부인 왕씨(? ~ ?) : 변한국부인 왕씨는 김심(1262 ~ 1338)과 혼인하였으며, 4녀 1남을 낳았다. 오침(吳瞻) 처 김씨, 원 인종의 달마실리(達麻實里, 다마시리) 황후, 단양부원대군(丹陽府院大君 王瑋) 비 북안옹주, 안동(安董) 처 경녕택주 등 4녀와 아들은 중정대부 응양군대호군 간변내시원사를 역임한 김승사(金承嗣)이다.

- 김심 처 진강군부인 노씨(? ~ ?) : 진강군부인 노씨는 김심(1262 ~ 1338)과 혼인하였으나, 이외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김심 처 영가군부인 김씨(? ~ ?) : 영가군부인 김씨는 김심(1262 ~ 1338)과 혼인하였으나, 더 이상의 기록은 찾지 못했다.

- 김희조 처 윤씨(? ~ ?) : 윤씨 부인은 윤해(尹骸, 1307 ~ 1376)와 최씨 부인 사이에서 큰 딸로 태어났는데, 윤해는 윤관의 후손으로 벼슬이 전법판서에 이르렀으며 파평군에 봉해진 인물이었다. 윤씨 부인의 남편 김희조는 김광철(? ~ 1349)과 원씨 부인의 아들로, 김태현(1261 ~ 1330)과 개성군대부인 왕씨(1266 ~ 1356)의 친손자이다.

- 익양군부인 김씨(1093 ~ 1156) : 익양군부인 김씨는 광주 사람으로 이부상서 문덕전학사 지제고를 지낸 김상우(金商佑)와 창원군부인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의 집안은 이름난 가문으로 아버지 김상우는 예종 때 어사대부를 거쳐 형부상서로 임명되었으며 송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익양군부인 김씨와 남매간인 김구부(金龜符)는 문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위위주부동정을 거쳐 명주의 수령이 되었으며, 합문지후와 진주통판, 감찰어사 등을 거쳐 5품인 시형부원외랑이 되었다. 익양군부인 김씨는 64세까지 살았고 묘지명에도 ‘친속아손’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을 하여 자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묘지명에는 남편이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없다.

- 강호문(康好文) 처 문씨(? ~ ?) : 문씨 부인은 광주 갑향(甲鄕) 사람으로 강호문과 혼인하였다. 강호문은 1362년(공민왕 11)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교시판사에 이르렀으며, 시문(詩文)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다. 1388년(우왕 14) 광주에 왜구가 쳐들어 왔을 때 문씨 부인은 큰 아이와 젓먹이를 데리고 달아나 숨으로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적에게 잡혔다. 왜구에게 끌려가던 부인은 “도적에게 몸을 더럽히고 사느니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죽겠다.”라고 하며 몽불산 극락암 근처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사흘 뒤 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하였다.

- 김언경(金彦卿) 처 김씨(? ~ ?) : 김씨 부인은 김언경과 혼인하였는데, 김언경은 서운정(書雲正)을 역임하였다. 1387년(우왕 13)에 김씨 부인과 김언경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왜구가 쳐들어왔다. 이때 부부가 적들에게 잡혔는데, 부인이 “이놈들아, 빨리 나를 죽여라! 나는 욕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꾸짖었다. 이에 성난 왜구들이 김씨 부인을 죽였다고 한다.

- 김경탁 처 박씨(1719 ~ ?) : 혼인 후 늦어도 32세인 1750년(영조 26)부터는 광주 서면에서 거주하다 1780년대 중후반 정도에 사망했다. 박씨는 남편 김경탁이 올린 호구 단자에 김경탁의 처로 기록되었고, 남편이 사망한 후인 1771년(영조 47)에 광주목에서 발급한 준호구에는 박씨가 호수(戶首)가 되었다. 당시 호내에는 20대 중반의 아들이 속해 있었다.

- 신정수 처 유씨(1673 ~ ?) : 신정수 처 유씨는 영광의 거주하는 신정수와 혼인한 후 영광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자식, 조카와 함께 살았다. 사망한 남편 몫의 노비를 자신이 나서서 추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했다. 자식과 조카가 사망한 후 계후자를 세우고, 광주로 이거했다.

- 이운 처 기씨(1715~1746) : 광주 북면 흑석리와 동면 편방리에 거주하던 이운(1715 ~ ?)의 처로 3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 후 친정 오빠인 기태동이 사망한 누이를 애도하며 지은 제문이 남아있는데, 이 제문에는 누이동생을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과 한스러움, 누이 동생의 생전 효성스럽고 현숙한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이 제문을 통해 혼인한 어느 누이 동생과 친정 오빠의 매우 친밀했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 송덕봉(1521~1578) : 덕봉은 그의 호이다. 1521년(중종 16) 송준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나 16세인 1536년(중종 31)에 해남의 유희춘과 혼인했다. 혼인 후에도 자신의 집인 담양에서 부부 생활을 영위했다. 남편인 유희춘은 과거 급제 후 관직 생활을 하다가 1547년(명종 2)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생활을 했다. 송덕봉은 시어머니 3년상을 치른 후 남편의 귀양지인 함경도 종성으로 찾아가 남편과 함께했다. 유희춘이 1567년(명종 22) 해배 후 복직되었다. 유희춘의 일기인 『미암일기』에는 유희춘 해배 후 송덕봉과 유희춘 부부의 신뢰 관계와 송덕봉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송덕봉은 담양에 있고 유희춘은 홀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유희춘이 보낸 편지에 대한 송덕봉의 답서에는 지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남편의 단점에 대해 조언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 이호 처 오씨(?~?): 광주 마지면 윤림촌을 근거지로 한 오가일의 딸로 이신의의 손자 이호(1607~1645)가 오씨와 혼인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정착하고,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광주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외조모 임씨가 오씨에게 노비를 별급한 문서가 남아있는데, 임씨는 별급 이유로 여러 집안 일들을 잘 보살피고 도망 노비를 추심하는데 힘썼다는 이유를 들었다.
- 이운부 처 박씨(1636 ~ ?): 이호의 아들인 이운부(1634~1689)의 처로 남편과 함께 광주목 북면 흑석리에 거주했다. 1689년(숙종 15) 남편이 사망한 후 가산을 경영하다 1697년에 6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했다. 딸이 멀리 거주하여 제사를 봉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만 제위조를 분급했을 뿐 아니라 제위조 외의 재산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여 분급했다.
- 이집 처 유씨(1672 ~ ?): 이운부의 아들인 이집(1659~1718)의 처로 남편과 함께 광주목 북면 흑석리에 거주했다. 1703년(숙종 29) 친정 부모의 재산을 에서 재산을 4남매가 회회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따로 설정한 봉사조를 제외하고 4남매가 평균분집했다.
- 경혜 공주(1436~1473): 경혜 공주는 문종과 현덕왕후의 딸이다. 문종이 세자 시절에는 평창군주로, 즉위한 후에는 경혜 공주로 봉해졌다. 1450년(세종 32) 정종과 혼인했다. 동생인 단종이 즉위한지 얼마 안 되어 계유정난이 일어나

세조가 집권하고, 남편 정종이 해빈, 금성대군 등과 난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1456년(세조 2)에는 성삼문, 박팽년 등의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어 정종이 광주에 안치되었다. 이에 공주도 광주에 내려와 1461년(세조 7) 정종이 극형에 처해질때까지 광주에 거주했다. 정종이 사망한 후 세조가 환관을 보내어 정종의 처를 서울로 데려오도록 하고, 이후 속공한 노비를 돌려주고 집을 마련해 주고 녹을 주었다. 광주에서 공주와 정종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정미수이다.

- 박지흥 처 서씨(? ~ ?) : 박지흥(1411~?)은 세조의 왕위 찬탈 후 낙향했다. 낙향한 후 서씨와 재취했는데, 서씨의 친정인 광주에 거주하며 서씨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두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친정의 경제적 기반 하에 홀로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일찍 사망한 장자 외에 두 아들이 모두 문과에 급제했는데, 1496년(연산군 2) 둘째 아들 박상이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그에게 노비 1구를 증여한 별급 문기가 전해진다.
- 정조이(鄭召史) : 김진태(金騫太)의 아내로 집이 가난하여 의지할데가 없었으며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시어머니의 병에 밤낮으로 간호하여 조금도 게으르거나 괴롭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치료하니 고을 사람들이 관청에 고하고 관청에서 다시 조정에게 보고하여 포상(褒賞)을 하였다.
- 김조이(金召史) : 이해운(李海雲)의 아내이다. 지아버가 일찍 죽으면서 아내에게 이르기를 “늙은 어머니를 두고 내 죽으니 눈을 감지 못하겠소” 하매 아내가 이르기를 “내 있으니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 지아버가 죽으매 슬퍼하기를 예절에 넘게하고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고을 사람들이 관청에 고하고 포상(褒賞)하였다.
- 계한(桂間) : 무녀(巫女)이다. 눈이 먼 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시집을 갔는데 지아버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성질이 난폭하여 장인과 사이가 좋지

못하매 아버지를 섬길 수 없음을 걱정하고 지아비를 권하여 다른 아내를 얻어 따로 살게 하고 홀로 살면서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포천(褒闡)하였다.

- 맹금(孟今) : 아버지는 무부(巫夫) 박재명(朴再明)이었고, 그녀는 경양역(景陽驛)의 비(婢)였다. 그녀의 나이 겨우 16세에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몰래 왼쪽 넓적다리를 베어서 드림으로써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병을 낫게 하였다. 미천한 신분인 비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뛰어나자 국가에서 면천(免賤) 별단(別單)을 내려 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 민씨(閔氏) : 예조정랑 권극중(權克中)의 아내이다. 지아비가 죽자 3년을 여묘(廬墓)하고 슬퍼하기를 예절에 넘게 하였으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무덤 옆에서 살았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전씨(全氏) : 생원(生員) 김사충(金士忠)의 아내이다. 나이 30세에 지아비가 죽자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집에 불이 나 불길의 사당(祠堂)에 뺨치자 전씨가 불길을 무릅쓰고 신주(神主)를 꺼안고 나오다 머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정씨(鄭氏) : 사인(士人) 고거후(高居厚)의 아내이니, 절행(節行)이 있었다. 정묘호란 때 적이 핍박하자 분연히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고씨(高氏) :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의 딸이며 사인(士人) 노상룡(盧尙龍)의 아내이다. 정유재란 때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칼에 엎드려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이씨(李氏) :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의 아내이다. 정유재란 때 적을 만나 굴복하지 않고 죽자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증(贈)하고 그 마을을 표(表)하였다.

- 이씨(李氏) : 사인(士人) 활(活)의 딸이다. 시집가기 전에 정유재란을 만나 적이 핍박하자 이씨가 크게 적을 꾸짖고 거절하다가 피살되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는데, 정문(旌門)이 칠석(漆石)에 있다.

- 박씨(朴氏) : 판관(判官) 김식의 아내이다. 정유재란 때 지아비를 쫓아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왜적이 사방에서 수색을 하여 부녀를 옥보인 것을 보고, 스스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는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는데, 정문(旌門)이 칠석(漆石)에 있다.

- 김씨(金氏) : 사인(士人) 온침(蘊沈)의 딸이다. 나이 16세에 정유재란을 만나 적에게 잡혀 적이 앞서 가도록 핍박하였으나 김씨가 나무를 꺾어고 말을 듣지 않으니 적이 드디어 살해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는데, 정문(旌門)이 칠석(漆石)에 있다.

- 양씨(梁氏) : 현감 자징(子澂)의 딸이며 사인(士人) 오급(吳岾)의 아내이다. 정유재란에 배를 타고 피란하다가 적을 만나 물속으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이 사실이 문정공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자징(子澂)의 묘표(墓表)에 실려있다.

- 고씨(高氏) : 사인(士人) 안여인(安汝仁)의 아내이다. 정유재란에 적을 만나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르기를 “원컨대 흥적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속히 나를 죽여달라”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굴복하지 않다가 드디어 살해되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기씨(奇氏) : 판결사(判決事) 고용후(高用厚)의 아내인데, 일찍이 규범(閩範)이 드러났다. 용후(用厚)가 사건에 연좌되어 3년을 옥에 갇히니 기씨가 온갖 고생을 다하여 구호하다가 하루를 울면서 그 딸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네 아버지가 나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고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는데 오래지 않아 용후(用厚)가 과연 은혜를 입어 석방되니 세상 사람들이 ‘지성감천(至誠感天)의 소치’라 하고 열부(烈婦)라 일컬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임씨(林氏) : 첨정(僉正) 이원명(李原明)의 아내이다. 정유재란에 왜적이 원명(原明)과 그 어머니 임씨(林氏)를 살해하고 임씨(林氏)를 앞서 가게 하자 임씨(林氏)가 패도(佩刀)를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이씨(李氏) : 정언(正言) 빈(彬)의 딸이며 장사랑(將仕郎) 정시립(鄭時立)의 아내이다. 지아비가 양진강(梁進江)의 치독(致毒)으로 죽자 이씨가 송사(訟事)의 법정(法庭)에 달려가 호소하기를 26일간 하여 마침내 지아비의 복수를 한 뒤 여러 날을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
- 김씨(金氏) : 사인(士人) 유하식(柳夏植)의 아내이며 문경공 안국(安國)의 7대손이다. 하식(夏植)이 일찍 죽자 김씨가 부르짖으며 통곡하다가 기절하였고, 손으로 친히 염(殮)과 습(襲)을 하고 장사를 예정대로 행하였다. 유복의 아이가 있어 만삭이 되었는데 본가로 돌아가 분만을 하여 딸을 낳고 그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지아비가 죽는 날 마땅히 자결을 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오직 배속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을 하였으니 결단코 지하의 지아비를 따르겠습니다. 계집종을 택하여 乳母를 삼으소서” 하고는 음식을 끊고 즉지 지아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고했던 말로써 시어머니에게 고한 뒤 7일 동안 단식 끝에 연기와 불기운 같은 뜨거운 기운을 일곱 구멍으로 내뿜으며 죽었다.
- 홍씨(洪氏) : 사인(士人) 윤업(尹業)의 아내이다. 지아비가 회시(會試)에 나아갔다가 두질(痘疾)에 걸려 객지에서 죽자 홍씨가 밤낮으로 통곡하며 죽음으로써 맹세하고 단식 끝에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박씨(朴氏)** : 사인(士人) 기종조(奇宗趙)의 아내이며 박필욱(朴必郁)의 딸이다. 지아버가 죽은 뒤 10여 차례나 자결을 하려다가 옆 사람에게 의하여 구제되자 끝내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도내의 유림들이 방백(方伯)과 수의(繡衣)에게 포천(褒薦)을 청하였다.

- **황씨(黃氏)** : 민중(敏中)의 딸로 대점(大帖) 효녀동(孝女洞)에 살았는데 출신이 비미(卑微)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머니가 고질(痼疾)이 있자 길쌈을 하여 받은 돈으로 약값을 마련하고 지성으로 구호하여 마침내 병을 치료하였다. 이웃에 김유화(金惟華)라는 나이 3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늙은 총각이 있어 강제로 황씨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마을 사람 조위도(趙偉道)와 더불어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 자신과 황규수가 이미 사통(私通)을 하였다고 퍼뜨리고 또한 규수의 필적을 모방하여 서로 왕래한 편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에 황씨가 밤낮으로 울면서 언문(諺文) 편지를 모두 취하여 불사르고 이르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악명(惡名)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관청에 고하여 원통함을 풀어 달라 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자 황씨는 마침내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족과 작별하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찢러 죽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조문하고 아울러 황씨의 평소 행실과 원통하게 죽은 始末을 듣고는 관청에 고하니 목사 이윤(李倫)과 감사(監司) 이사명(李師命)이 김·조 두 사람을 잡아 엄하게 다스려 사실을 자백 받고 모두 장살(杖殺)하였다. 그리고 감사(監事)가 쌀과 포목을 황씨의 집에 주어 상장(喪葬)을 돕고 글을 지어 제사지냈다.

- **강씨(姜氏)** : 정덕린(鄭德麟)의 아내이다. 지아버의 병에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였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전조이(全召史)** : 서리(胥吏) 정봉서(鄭鳳瑞)의 아내이다. 시부모를 지성으로 섬겨 시아버지의 병에 손가락을 잘라 희생하였고, 다시 병을 앓아 명이 끊어지려하자 다시 손가락을 잘라 수일동안 명을 연장하게 하였으며, 또한 지아버가 병을 얻어 생명이 위독하매 다섯 손가락을 연이어 깨물어 피를 입에 넣어 희생하니,

고을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이때 어사(御使)가 남모르게 그 집에 이르러 상제한 사실을 탐지하고는 극구 칭찬하고 본도(本道)를 떠나는 날에 특별히 음식물을 지급하였다. 그가 죽을 때 그 아들이 또한 손가락을 잘랐으니 가히 효도를 계승한 집안이라 이를만하다. 여러 번 포천(褒薦)을 입었다.

- 서씨(徐氏) : 이수광(李守光)의 아내이다.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질병에 대변을 맞을 보고 손가락을 자르니 사람들이 감복하였다.
- 두은례(豆隱禮) : 사노(私奴) 순재(順才)의 아내이다. 집에 불이 나 두은례(豆隱禮)가 밖에 나갔다가 급히 돌아오니, 그 시어머니가 나이가 늙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은례(豆隱禮)가 불속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껴안고 나오다가 불길에 휩싸여 시어머니를 껴안은 채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 유씨(柳氏) : 이덕호(李德浩)의 아내이다. 혼인을 하고 미처 돌아가기 전에 지아버가 죽자 유씨가 부음을 듣고 머리털을 자른 뒤 어버이와 작별하고 상차(喪次)에 이르러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이때 늙은 시아버지가 미음을 권하여 몰래 옷섶에 쏟아 버리니 사실은 식음을 전폐한 것이었다. 마침내 겨우 7일을 지나 자진하여 죽으니 도내의 유림들이 여러 번 포양(褒揚)해 줄 것을 청하였다.
- 홍씨(洪氏) : 지주(地主) 이정운(李鼎運)의 아들인 통덕랑(通德郎) 명하(明夏)의 아내이다. 나이 16세에 시집을 가 17세에 지아버가 죽으니 기절하였다가 소생하여 함께 따라 죽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하고 밤낮으로 울면서 타일러 차마 죽지 못하고 슬픔을 참으며 장례를 마쳤다. 그리고 시부모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으로 하고 시어머니가 죽자 슬퍼하기를 예절에 넘게 하였다. 복을 마친 뒤 시아버지의 재취를 기다렸다가 손수 습렴(襲殮)의 도구에 비단의 물건들을 일체 쓰지 아니하였다. 본 고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는데 이날이 임자(壬子) 8월 30일이었다.



2019 기본 05

광주여성사 I (전근대편)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연구책임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집필진 최일레 (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채희숙 (목포대학교 사학과 강사)

박미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박 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발행처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 대원빌딩 9F

Tel. 062)670-0500 Fax. 062)670-0505

발행인 김미경

디자인 푸른커뮤니케이션

ISBN 978-89-98622-74-9 [93300]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광주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